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주 지 석 해 련 합장 031-855-5501,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 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6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 426 호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동국대 불교병원의 문은 언제 열릴 것인가?

불투명한 개원 일정으로 인한 동국대 불교병원에 대한 걱정이 종단 안팎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개원 예정에서 금년 봄, 금년 가을로 일정이 지연되더니 급기야 내년 봄도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병원 개원시기에 대한 답변이다.



잠자고 있는 무균이동침대 동국대 불교병원 개원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해 설치한 일부 시설들이 포장도 뜯지 못한채 의료진과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병원 개원 여전히 '안개속'

16일 종립학교 관리위 '운영실태확인소위' 구성

종단 의지 부족 · 정치적 등 악재 극복돼야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이하 종관위) 회의 역시 불투명한 개원 일정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서 원택 스님은 "지금 상황에서 개원 시기를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학교의 재정을 조사해 본 뒤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동국학원 이사 영배 스님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과잉투자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원은 해야겠지만 교육환경 악화, 기존병원 투자문제 등이 겹치고 있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운영실태 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9월 초순경에 활동 결과를 밝히기로 했다.

동국대 불교병원의 개원이 '부지하세월'로 늦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지적된다. 첫 번째는 종단과 학교 구성원들의 개원에 대한 의지결여. 이는 종단의 정치적 역학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문제로, 지난해 이사장 자리를 놓고 물밑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힘겨루기'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녹원전 이사장의 퇴진과 정대 스님의 이사장 취임, 신임 총장 체제의 출범 등이 지나치게 종단 정치 구도에 얽혀 있었던 것과 관련한 후유증이 병원의 개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한 중진의원스님은 "학교 행정과 재단의 운영, 종단 정치의 흐름 등이 긴밀하게 얽혀 있어 본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탄했다. 종단의 주요 소임자인 또 다른 스님도 "개원보다 급한 일은 없는데 다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다. 화합된 의지만 있으면 개원의 수순은 이미 정답처럼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종단 안팎의 중론임을 확인하는 말들이다.

또 개원을 위한 자금의 부족이라는 현실문제도 크게 부각된다. 지금 시점에 '학교운영실태 확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당초 불교병원이 '빈손'으로 시작됐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돈타령'은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재단의 정관개정 등 행정 절차가 묶여 있는 것도 이유로 등장 하지만 성원미달로 인해 이사회가 유회되는 등의 현실은 '과연 의지는 있는가?'라는 의구심만 쌓고 있다.

불교계는 오는 18일 191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새만금' 항의 2명 폭행 당해 입원

세영 스님 · 국회의원 등 책임자 처벌 · 공사중단 요구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이를 두고 환경운동가들과 새만금추진협의회(대표 김영두, 이하 새추협) 관계자들 간의 몸싸움이 일어나 2명이 실신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9일 4공구 구간이 2m 밖에 남지 않았다며 공사 현장에 소속 회원 20여 명을 급파했다. 현장에서 항의 농성을 하며 공사를 저지하던 환경운동가들은 새추협 관계자들의 물리적 위협으로 10일 철수했다. 그러나 12일 오전 4공구 현장에 재진입한 80여명의 환경운동가들은 삽과 곡괭이로 방조제를 걷어내다 같은 날 오후 다시 새추협 관계자들에게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2명이 몸싸움 도중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물막이 졸속 공사와 관련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은 11일 유인태 정무수석과 만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9명도 12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개 단체도 12일 서울 세실레스토랑에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갯벌과 전북 경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창환 교수(아주대 예방학과)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지 않고 갯벌이 보존되어야만 항만과 축소된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및 물류 전진 기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해양-생태관광 특구'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필렬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화재청 승격 또 미뤄질 듯

정부조직법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문화재청 승격 여부가 또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제24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상정된 주요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나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13일 "문화재청뿐 아니라 기상청 승격, 소방청 · 한의약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만간 이들 안들을 종합해 정부 통일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들을 한꺼번에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통일안이 제출되더라도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

이 의원은 그러나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어 통과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 수련정보센터 신행정보센터로 개편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여름 사찰 수련회와 주말수련회 정보를 제공해 온 '수련정보센터'를 수련회를 비롯해 법회, 봉사활동, 수행 등 신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신행정보센터(www.ibuddhism.org)'로 확대 개편한다.

18일 문을 여는 신행정보센터는 단위사찰과 불자, 네티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불자와 네티즌들은 신행정보센터를 통해 조계종과 사찰의 종합적인 신행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 7월 14~17일 실상사서

각 지역과 부문 · 사안별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환경활동가들이 매년 한차례 모여 환경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제8회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이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 일대에서 열린다.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에서 꿈꾸는 생명 · 평화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생명평화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불교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50여개 단체 250여명이 모이는 워크숍에서는 ▲기조강연 ▲심포지엄 ▲집중마당 ▲토론마당 ▲체험마당 ▲노고단에서 환경기도 ▲생명평화 민족화해의 돌탑쌓기 ▲지역민들과 환경활동가가 함께 하는 문화마당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현안에 대한 공유 및 토론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쏨분 주한 태국대사가 함께 오찬을 하며 양국간의 불교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과 태국이 이처럼 공식교류를 추진키로 한 데는 법장스님의 의지도 있었지만, 쏨분 대사의 역할이 컸다. 쏨분 대사는, 태국이 정부 차원에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토록 한 데 이어 마침내 양국간의 공식교류 물꼬를 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류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쏨분 태국대사가 준 교훈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구산스님과 숭산스님이다. 그렇게 개인의 원력에서 출발한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150여 사찰을 운영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 수는 개신교의 30분의 1, 가톨릭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 수치가 제시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종단 차원의 마인드와 대책 부족"이다.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해외 포교에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장스님은 최근 제시한 31대 핵심 종책 과제에서 해외 및 외국인 포교 활성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님과 불자들 모두 제2의 쏨분 대사, 제2의 숭산스님이 되겠다는 자세다. 해외포교 활성화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큰스님 초청

도솔암 극락보전 낙성식 및 천일재 · 백중천도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그동안 여러 불자님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도솔암 극락보전 중건불사가 원만 진행되어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연했던 아미타부처님의 개금불사도 회향하여 점안식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격에 맞게 다시 조성한 아미타부처님 후불탱화의 점안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년을 지나 오늘에 와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 천년을 이어갈 터전을 마련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큰 가피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뜻깊은 불사 회향을 맞아 도솔암에서는 사부대중 뿐만 아니라 선망부모, 무주 유주 고혼과 함께 회향하고자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을 모시고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지장 기도도량 도솔암에서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뜻하신 바의 소망이 성취되고 돌아가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함께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 극락전 낙성식 및 점안식 : 2003년 6월 21일(토) 오전 10시
■ 백중기도 입재일시 : 2003년 6월 21일(토) 10시
■ 백중기도 동 참 비 : 일금 오만원정(영가수에 상관없음)
■ 천도기도 입재일시 : 2003년 6월 21일(토) 10시
■ 천도기도 동 참 비 : 일금 오십만원 【망축(시댁 · 친정, 생축)】
(기도비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 문 의 : 전화 063)561-0075, 564-2861 팩스 063)561-4080
■ 접수안내 : 천도재 법회에 동참하시는 분은 6 월 19일까지 망축 생축 축원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 농협 521030-51-002482 예금주 : 도솔암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앞 출발
■ 문의전화 : 이회장 017-221-8778 진연회 02)820-3242, 4689
부산 박길하 011-579-7226 / 대전 이현호 011-409-2702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 운 사 지장제일기도도량 도솔암 주지 지 정 합장



사 설

조계종 신도회 통합의 산고

조계종에는 두 개의 신도회 조직이 있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그것이다. 이 두 조직은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통합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그 이유는 조계종단 측에서 전국신도회의 법인격을 해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신도조직이 소속 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따르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조계종단측의 요구를 나무랄 사항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국신도회측에서 내놓고 있는 "시민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현대시민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단 관계자들은 이런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종헌 종법이 신도회의 자율성이나 역할과 위상을 제약해서도 곤란하다. 반면에 신도회 역시 사부대중의 일원이며, 2부중의 결속기구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따라서 무조건 종단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문제다.

마냥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법인 정관에 '종단의 감사를 받겠다'는 조문을 단다면 어떨까 한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양측이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시대의 변화가 통합 신도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용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신도회의 자율성과 종법의 준수 양자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각별한 여름 수련회로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전국의 사찰들이 여름수련회 공고를 잇따라 내고 있다. 여름 수련회철이 시작된 것이다. 직장인들과 그 가족들이 일년 중 가장 기다린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름 휴가다. 쳇바퀴 돌듯 하는 일상생활에서 모처럼 여유와 휴식을 갖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요즘 바캉스니 해외여행이니 하는 소비성 휴가 보다는 산사 수련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향락위주가 아니라, 산사의 자연속에서 자기자신과 주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수련회를 여는 사찰에서는 매년 하는 행사라고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내실있는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살펴 보완하고, 정신적 갈증을 채우는 특화 프로그램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수련회에 오는 불자들을 보면 경전이나 수행공부를 만만치 않게 한 사람들이 꽤 있다. 각계각층에서 참가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도법사는 수행이 깊은 중진급 스님들이 맡아야 하며, 무엇보다 열정이 필요할 것이다.

수련회를 여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본사급의 큰 사찰임에도 개최에 무관심한 곳도 있다.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포교를 해야 하는 판에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리의 씨앗'을 심는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수련회를 다녀온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평생 잊지못할 체험"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름수련회, 주말수련회, 템플라이프 등이 늘어나 '잊지못할 체험'을 나누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40세이후 발심출가자 구제 필요

특별법 제정·타당한 검증절차 등 제시

조계종, 출가연령 제한 공청회

40세 이상 출가자를 제한하는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영배)가 이같은 주제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내용 요약 8면>

공청회에서는 "다소간의 문제는 있지만 승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율장 어디에도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연령제한은 교육적 편의를 위한 편견"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발제 및 논평자 중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지오스님(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산스님(교육원 교육부장) 성무스님(용주사 교무국장)은 현행 40세 이하 출가연령 제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승가의 질적 향상 △승단의 위계질서 확립 △승가교육의 효율성 극대화 △사회 낙오자들의 도피성 출가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40세 이후 발심출가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오스님은 40세 이상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에서의 행적 등 엄격하고 타당성 있는 검증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지오스님은 또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종단에서 발급하는 승적은 부여하지 않고 은사가 직접 수계를 주되, 소속은 은사가 속해 있는 사찰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인스님은 '40세 이상 출가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승석 교수(동국대)와 조연현 기자(한겨레신문)는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교수는 "율장 어디에도 출가연령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고령자를 구제하고 있는 마당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고령 출가자의 경우 정신적 능력이나 사회적 경륜을 고려하여 비구나 비구니로 인정받기까지의 단계적 기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연현 기자는 "출가연령제한 반대는 물론, 신체적 장애에 대한 출가 제한도 개선된 인권 의식에 맞춰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고령 출가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도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난해 9월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15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1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법령을 개정했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무안백련축제 지원 약속

법장스님, 무안군수 접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0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서삼석 전남 무안군수의 예방을 받고, 오는 8월 14~17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무안백련대축제'에 불교계의 지원을 약속했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이 자리에서 "연꽃축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백련 자생지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며 "무안이 연꽃문화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무안군이 7년째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축제 문화로 승화시켜준데 고맙다"며 "전남 지역 4개 교구본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96년부터 매년 일로읍 복용리 회산 연꽃방죽에서 연꽃축제를 벌여왔으며, 올해는 '순백의 꽃망울, 화합의 대축제!'란 주제로 열린다. 김철우 기자

조계종, 5개 권역별 행자교육

출가연령 제한후 처음, 대구·경북부터

조계종 제25기 행자교육원(8월 14일~9월 5일)이 입교지원서(13~20일)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출가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하로 낮춰진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25기 행자교육원은 교육과정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권역별 행자교육은 전국을 대구·경북(16~19일), 부산·경남(17~20일), 호남(7월 1일~7월 4일), 충청권(7월 22일~7월 25일), 직할·경기·강원(7월 29일~8월 1일)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해당 권역의 1개 본사에서 3박4일간 실시하는 교육. 6개월에서 1년간의 개별 사찰 행자교육과 1개월의 본사 행자교육을 마치면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었던 과정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

교육원 담당자는 "개별 사찰에서의 수행 생활을 점검하고 행자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며 "습의와 기초교리 중심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열린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는 제24기 행자교육원 탈락자 가운데 40세를 넘겼지만 절에 남아 계속 수행 중인 행자 9명에 대해서도 25기 행자교육원 입교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권형진 기자

구족·전법사계 수계산림

태고종, 7월3~5일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구족계 및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구족계는 득도한 지 3년이 경과한 승려를 대상으로 품수되며, 종단 소속사찰의 교임과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재가불자, 포교사 등에게는 전법사(포교사)계를 내린다. 혜초스님(전 총무원장)을 전계사로, 일우스님(원로회의 의장)을 갈마사로, 법장스님(중앙호법위원장)을 교수사로 열리며, 수진스님(담양 용화사) 인공스님(서울 봉원사) 지허스님(순천 선암사) 등이 7증사로 참여한다.

태고종은 이번 수계산림을 통해 종도들의 종단관을 고양하고 승려들의 자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한진수씨 5일 임명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5일 종무실장(1급)에 한진수(54·사진) 전 감사관을 임명했다. 전북 장수 출신으로 전북대를 졸업한 한 신임 종무실장은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장으로 시작으로, 200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도난문화재 회수

유공경찰관에 감사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0일 국보 제247호 금동보살입상 용의자를 검거하고 문화재를 회수한 공주경찰서와 상습 사찰 문화재 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형사 3계 4반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및 격려금을 각각 수여했다.

법장스님은 "불교문화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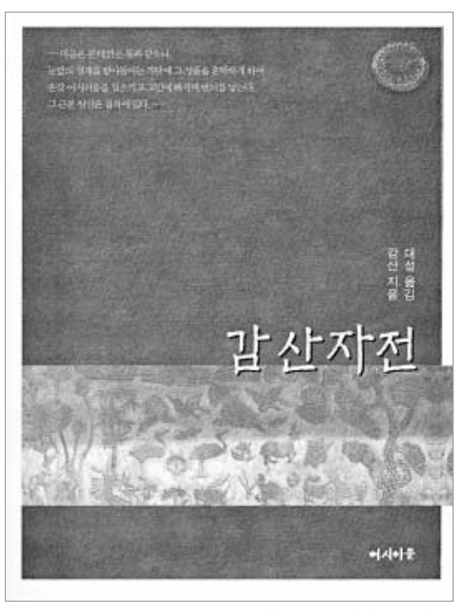
고침 본지 지난호(425) 13면 '장군죽비'의 하단기사 마지막행 '이끌어내는 것이 사부대중의 진정한 모습이다'가 출력실수로 누락됐습니다. 18면 정태혁 박사 인터뷰기사 중 진언다라미는 '진언다리니'로 31면 머리기사의 밑걸음은 '밑거름'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 22면 머리기사 제목의 '다경요체'는 초의선사 저술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잘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멸빈자 사면해야" 62%
선거제도 부정적 50%

중앙승가대 '승가' 편집실 3차례 설문

스님과 재가불자 10명 중 5명이 조계종의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94년 종단개혁 이후 제시됐던 '종단개혁 5대 실천이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승가대 <승가>지 편집실과 김응철 교수(포교사회학)가 최근 공개한 '종단개혁과 사면복권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은 95년, 98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비슷한 항목으로 조계종의 출 · 재가 400~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 년도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2003년 조사는 3~4월 두 달간 이뤄졌다.

총무원장 선거, 직선 · 사부대중 추천 의견 늘어
"청정교단 구현 · 민주적 운영 등 이행 안돼"

우선 선거제도에 대한 종도들의 '긍정적 인식'은 80.9%(95년)→23.3%(98년)→20.2%(2003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연도별 '부정적 인식'의 추이는 19.1%→49.3%→47.3%였다.

이는 98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선거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최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종단 선거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중 98년과 2003년 조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총무원장 선출방법. '현행 간접 선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8.7%(98년)에서 15.8%(2003년)로 높아졌고, '산중총회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6.1%에서 12%로 상승했다. 또 '사부대중이 추천하고 종정이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4.1%에서 12.3%로 세 배나 늘었다. '모든 스님의 직접 선거'는 48.3%에서 33.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꼽혔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결국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접선거 방식과 종정, 원로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 등이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회의원 선거 방식은 '교구 소속 스님들의 직접 선거'가 41.8%(2003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8년 조사 때는 48.7%였다. 그러나 교구본사 주지 추천 · 교구 추천위원회 추천 · 교구 종회에서 선거 등 간접선출 방식에 대한 지지율도 33%에 달하고,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16.5%만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구본사주지 선출방법을 보면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이 좋다는 견해가 98년과 2003년 43.2%와 40.8%로 가장 많았으나, '본사대중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98년 11.2%에서 2003년 21.5%로 높아졌다.

종단개혁목표로 설정된 5대 실천이념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이같은 평가는 전반적으로 종단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종도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03년 조사결과 5대 실천 이념 중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항목은 '청정교단 구현'(52.5%)이었으며, 다음으로 '정법구현'(41.3%) '종단 운영의 민주화'(38.8%) '불교의 대 사회 역할 확대'(37%) '불교자주화 구현'(36.6%) 순이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2차 조사(98년) 때보다는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1차 조사(94년) 때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특히 올해 조사 결과 정법구현과 종단 운영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역할 보다는 종단 내부의 수행풍토 조성 및 승가의 지도력과 자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과 관련한 올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6%가 '찬성'했으며, '멸빈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62%로 조사됐다. '멸빈 징계 제도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의 합리적 조정과 남용방지'(42.8%)를 가장 많이 꼽아 최근의 멸빈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9일 사실상 전국신도회의 해체를 요구하자 선진규 전국신도회장(왼쪽에서두번째)과 손안식 부회장(왼쪽에서 첫번째)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총무원 전국신도회 법인해체해야
전신회 자율운영 위해 유지 바람직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주요 간부들이 중앙신도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신도회의 사단법인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은 자율적인 신도회 운영과 시민사회 활동을 위해 법인 형태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9일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 임원들로부터 신도회 통합 추진경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종헌과 신도법에는 중앙신도회를 조계종 신도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신도회도 조계종에서 시작된 만큼 하나의 신도회로 존재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조계종 전국신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사단법인은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장스님은 "지난 2월 통합을 합의한 이후 중앙종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법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종법과 사회법에 모두 적용되는 단체가 돼 탈종단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배석한 기획실장 현고스님도 "신도회 통합을 위해서는 종헌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법인 체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신도회 역할의 극대화를 위해 부설로 법인을 둘 수는 있다"면서 사실상 법인 해체를 요구했다. 총무부장 성관스님은 "통합 신도회가 법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부장 스님들을 이사로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은 "종단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합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통합 신도회가 시민사회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인을 존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선 회장은 "신도회는 사부대중의 일원인 재가불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법인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며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종단에서는 신도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후원과 신도들이 환희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인을 유지한다는 통합 당시 약속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총무부장 성관스님, 기획실장 현고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김진관 부회장,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 손안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불련 40돌 … 동문을 찾습니다

그리운 동문찾기 · 대학생포교 후원캠페인 전개

1963년 창립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지난 40년간 한국불교 최대의 인재산실로 수많은 승 · 재가 동량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본지는 대불련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와 함께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기획 '그리운 대불련 동문찾기 및 대학생포교 후원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지난 40여 년간 대불련 활동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사회에 진출해 전국 각 분야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동문들을 하나로 모아 당시의 구도열정을 되살리고 교계 최대의 인재은행을 만들어 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청년불자의 열정과 구도심으로 불교를 보다 젊게 그리고 사회화하는데 한 몫을 하면서 한국불교계에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불교학생회 감소,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학 불교학생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꿋꿋하게 활동하는 불자학생들을 돕고, 포교기금을 마련하는데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육성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명단은 본지에 게재되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종찬)에 대학생 포교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 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 어제와 오늘 (기획연재)

1963년 창립 이후 40년간 한국불교의 발전과 함께 했던 대불련의 주요 역사, 전국 주요 대학별 불교학생회 소개 및 출신동문들의 활약상, 대불련과 함께 젊음을 바쳤던 동문과 재학생들의 생생한 사연, 그리운 동문 및 은사 찾기의 애절한 사연들이 기획시리즈로 본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63년 창립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추억의 사진, 활동상황을 회고 하면서 그때의 동문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신행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조명합니다. 또 대불련 동문들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합니다. 사연은 대불련 동문회와 본사 사이트에서 공동으로 접수받습니다.

공동주최: 대불련 총동문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백중 49일 기도,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명절, 방생, 영가천도,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각종 법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 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 반드시 경전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자재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활자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어서 책 한 권을 전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음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현 대 설 법 연 구 소 대표 전화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



장기기증 및 헌혈봉사

법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은 회원들과 7일 평택 청담정보고에서 '생명나눔실천을 위한 장기기증 및 헌혈봉사 캠페인'을 벌였다.

일주문



불교연구학회 창립 · 세미나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은 27일 오후 3시 연구원 법당에서 불교연구학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02)3411-6167



생태체험 '감자캐기'

도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는 회원들과 함께 21~22일 남원 실상사에서 '생태체험활동-감자캐기'를 한다.(02)733-1884



'절 잘하는 법' 주제 강의

화암 양평 사나사 주지는 14일 경내에서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을 주제로 청견스님 초청 강의 및 지도 행사를 가졌다.



포교기금조성 하루찻집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10일 부산불교회관 보송찻집에서 '포교 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하루 찻집'을 열었다.



무주 백련사 산행모임

세영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회원들과 함께 21~22일까지 무주 백련사로 제38회 산행모임을 한다.(02)720-1654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법회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30일 오전 10시 5천일 지장기도 100일 천도재 및 동계 올림픽 유치 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음식 쓰레기 없는날' 선포식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은 2일 인천 흥륜사에서 회원들과 '매월 첫째 수요일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기자사회…' 주제발표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12~1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임원세미나에서 '한국기자사회 공동체의 과제' 주제발표를 했다.



개원법회 및 산사음악회

종연 인천 수미정사 주지(옴누리선원장)은 15일 경내에서 개원법회 및 개원축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송성문 성문종합영어 저자는 12일 국보급 문화재 30여건을 기증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그때 그사람 지금은 — '주부가요열창' 스타 변해림씨

13년만에 2집 음반 … 다시 불자 곁에



1988년 6월 MBC '주부 가요열창' 최초의 3주 연속장원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가수로 데뷔한 변해림(52 · 사진) 씨. 두 아들의 어머니로 평범한 삶을 살던 변 씨는 '가수 데뷔'라는 20여년을 간직해 온 꿈을 이뤘다. 독실한 불자인 변 씨는 '애증의 그림자'라는 타이틀곡으로 독집 음반을 낸 후 '청법가' 등을 담은 찬불가 앨범 두 장을 발표해 불자들의 사랑도 받았다.

이후 가정을 돌보기 위해 잠시 대중의 곁을 떠났던 변 씨는 지난해 4월, 13년만에 2집 앨범을 냈다. 변 씨의 홈페이지(http://www.bhl.pe.kr)에는 그의 컴백을 환영하는 팬들의 응원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부산에서 가요학원을 운영해 온 변 씨는 부산 내원정사와 창원 길상사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마산교도소 위문공연 등에 참석해 음성공양을 펼치기도 했다.

변 씨는 "앞으로 환희심이 저절로 우러나는 찬불가 음반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올 연등축제 시상식

조계사 문화교육관서

2003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시상식이 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봉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04위 신장등 제작을 통해 제등행진의 변화를 꾀한 서울 능인선원이 최우수상(봉축상)을 수상했다. 조계사와 천태종은 전년에 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연등상)을 수상했으며, 한마음선원은 연등축제 발전을 선도한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각각 받았다.

'열사람의 한걸음' 더 소중히 생각

제1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 이인영 씨



"저보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해 오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해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제1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한 이인영 새천년민주당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사진)은 1987년 전대협 제1기 의장으로서,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고문에 의한 진상이 전해졌을 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정의를 향한 대중의 힘이 발동하면 역사는 반드시 바뀐다는 진리를 소중한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박종철인권상 첫 번째 수상자로서의 명예를 저버림 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멀고 긴 길을 함께 떠났던 그래서 승리했던 그 날의 정신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남동우 기자

공무원불자련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는 7~8일 경주 황룡사지에서 제4차 합동수계법회 및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 공불련 지도법사 도문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노옥섭 회장은 "조직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공불련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강선원 총재 · 이사장 취임법회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8일 서울 신진주 웨딩홀에서 제2대 총재 및 제4대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전임 총재 덕암스님을 비롯,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신임 활안 한정섭 총재는 "평등한 불교 교육과 끊임없는 포교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 · 18 민주영령 등 추모 수륙대제



광주 미륵사(주지 혜법)는 6일 광주 주남마을 광장에서 5 · 18 민주영령과 호국선열 및 양민학살 희생자 합동수륙대제를 봉행했다.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정옥스님(미륵종 교육원장)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유주무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청불자회 창립 2돌 법회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 불자회(회장 방우원)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현봉 스님은 "공무원 불자들이 중심이 돼 지역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감정평가사 불자회 성지순례



감정평가가 불자회(회장 허통)는 6~7일 경주 남산 일대와 골굴사, 문무왕릉, 기림사, 오어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회원 및 가족 32명이 참가한 순례에서 허통 회장은 "앞으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팔공산 약사암 대웅보전 기공식



대구 약사암(주지 일여)은 7일 대웅보전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은 법화종 전 종정 금파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약사암 대웅보전은 33평 규모로 환경친화적인 스틸하우스공법으로 건립된다.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하계 수련회 안내

이뭣고?

참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도량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여름 수행의 장을 마련합니다.

하루 밤의 꿈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사람의 수행을 통해서 나와 남의 분별과 집착이 없는 깨달음을 향해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찻 수	기 간	정 원	대 상
36차	7월 21일(월) - 7월 25일(금)	50명 (남:25, 여:25)	20세 - 60세 일 반 인
37차	7월 28일(월) - 8월 1일(금)	50명 (남:25, 여:25)	
38차	8월 4일(월) - 8월 8일(금)	50명 (남:25, 여:25)	
39차	8월 11일(월) - 8월 15일(금)	50명 (남:25, 여:25)	유 경 험 자

1. **참가자격** : 20세이상 60세미만 (정원관계로 신청자중 소정의 심사로 선발)
2. **접수기간** : 7월 10일 오후 5시까지 (미리 예약 접수)
3. **접수방법** : 신청서류 전형, 신청서류 작성
4. **접 수 처** : ●백양사 종무소 전화 : (061) 392 - 7502 / 팩스 392 - 2081
   ●백양사 참사람 수행원 전화 : (061) 392 - 0434 / 팩스 392 - 0435
   ●백양사 홈페이지 (www.baekyangsa.org) → 참사람 수행원 → 수련회 신청서 작성
5. **수련회비** : 9만원(4박 5일)
6.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지참(수련복 지급, 수련후 반납)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수련회담당자 : 장세실

하안거 단기출가(산사체험) 안내



歸鄕(귀향)! 수행속으로…

귀향은
자기 자신의 근원(本來面目)으로의
돌아감(回歸)이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산사의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심신을 맑히는 수행속으로…

수련회 일정

- 제1차 7. 2 - 5(일반)
- 제2차 7. 9 - 12(일반)
- 제3차 7. 16 - 19(일반)
- 제4차 7. 24 - 26(중고생)
- 제5차 7. 28 - 30(어린이)
- 제6차 8. 1 - 4(일반)
- 제7차 8. 6 - 9(일반)

수련회비

- 일 반 : 80,000원
- 중고생 : 50,000원
- 어린이 : 20,000원

계좌번호

- 우체국-예금주 : 직지사 702829-01-000591
- 농 협-예금주 : 직지사 737081-51-014041

직지사 종무소 : 054-436-6174, 6013 홈페이지 : www.jikji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 지 사

백제불교초전지 성역화 1년 남았는데…

'만불전' 등 핵심사업은 '제자리'

불교계, 재원없어 올4월에야 설계끝내

영광郡의회, 추가예산집행 거부조짐

백제불교 최초 전래지로 알려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좌우두일대를 성역화 하는 사업이 완료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기반공사만 진행되고 핵심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백제불교 최초 전래지 기념사업은 지역 기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문화체험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97년 3월부터 170여억원을 들여 1만 3천여평의 부지에 마라난타상, 만불전, 만다라 기념광장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영광군과 지역불교계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두백스님, 김봉열 영광군수)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영광군은 2001년 6월부터 진입로 개설, 부용루 건립, 전시관 건립, 기념공원 조성 등 3년동안 1백여원을 투입, 성역화 기반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불교계가 담당한 마라난타상과 만불전 건립이 지지부진해, 현 상태로 추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2004년 말까지 마무리 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민자유치 부분인 불교계의 재원이 조달되지 않자 영광군 의회에서는 추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불교계의 마라난타상 조성과 만불전 건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50여억원에 달하는 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야 마라난타상과 만불전의 설계를 마친 불교계는 만불전에 봉안할 원불(願佛) 조성 비용으로 1구좌당 50만원의 성금 모금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영광군과 지역 주민들은 백양사를 비롯해 지역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범불교적으로 동참해 기념사업이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청 관계자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에는 지역불교계의 힘만으로는 힘겨워 보인다"며 "이런 때 불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동참안내 (061)352-8097.

후원계좌:우체국 500264-02-0212057(예금주 백제불교초건추)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수리寺 인근에 터널4개

수원~광명 서부고속도로

천년 고찰인 군포 수리사(주지 성견) 인근에 터널이 뚫릴 계획이어서 환경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터널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오는 2005년 착공할 예정인 수원~광명간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노선의 일부로 산본신도시 인근의 수리산에 터널 7곳(4500m)과 교량 5곳을 건설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수리사 인근 주봉인 수암봉 구간에 4개의 터널(1770m)이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자연 및 사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

남동우 기자

SK시주금 순수치않으면 반환

승가사, 손길승회장에 내용증명 보내

SK측 "돌려 받을수 없다"

검찰이 SK그룹의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시주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승가사가 최근 SK그룹에 시주금이 순수하지 않다면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가사 손철수 관리실장은 11일 "이번 사건의 판결이 외압에 의한 시주로 결론난다면 10억원의 시주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SK 손길승 회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시주금은 이미 비용 처리된 것이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은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북한산관통노선 사전포석 의혹

"투표결과 보고서 누락, 공청회 요식행위 불과"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최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관통을 위한 사전포석 의혹이 일어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 ·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첫 번째 근거는 5일 노선재검토위 마지막 회의에서 나타난 투표결과의 보고서 명시 여부. 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비관통노선 6명, 관통노선 5명으로 볼 수 있으나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단순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명시된다.

두 번째 근거는 19일 예정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구간 공청회 참여인사 공정성 여부. 공청회 토론자 과반수 이상이 건교부측 인사로 추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연대는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재검토위 활동 결과물인 투표결과는 보고서에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개 불교단체도 13일 "국무총리실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를 반환경 · 반불교 정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남동우 기자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학술대회 열려

미·유럽등서 70여명 참석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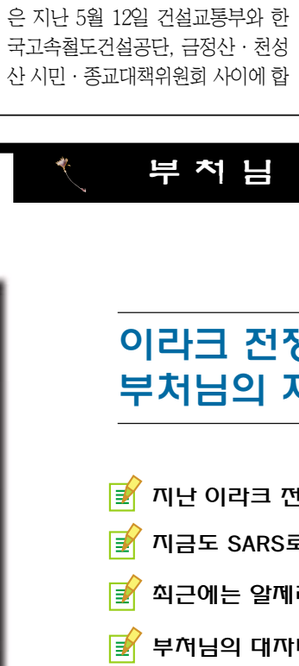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국제평화대회에는 14일부터 16일까지 와다 하루키 교수(동경대), 박한식 교수(조지아주립대), 돈 오버도퍼 교수(존스홉킨스대) 등 미국과 유럽, 아시아 활동가와 학자 70여명 참석했으며, 도라산역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본행사와 통일기행, 국제학술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6일 오전 9시부터 성대 600주년 기념관(조병두 홀)에서 열린 '6 · 15공동선언 발표 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과 라이너 베르닝 독일코리아정보센터 소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유럽, 아시아, 한반도' '북핵 문제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남동우 기자

"내원사·천성산환경대책위 배제된 경부고속철 합의내용 수용 못한다"

지율스님 기자회견



"천성산 문제의 공식적 창구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내원사 및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와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된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12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율스님(내원사 산감)은 지난 5월 12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금정산 · 천성산 시민 · 종교대책위원회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지율스님은 또 "합의서에 명시된 45일간(2003. 5. 12~6. 30)의 기간으로 천성산 · 금정산의 생태, 지하수, 지질, 소음, 진동, 터널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내원사에 제출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통과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정밀조사 계획〉(2002. 6)에도 천성산의 현장 생태, 지질 조사를 위해 1년 4계절의 기간을 제안했던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동석한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경부고속철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부장관 등을 고발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지렁이 이용·음식쓰레기를 퇴비로

정토회, 실험가정 모집

정토회 산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2차 실험가정을 모집한다.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받는 실험가정은 서울 50가정 이내,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마산, 광주지역 각 10가정 이내다. 실험가정으로 선정되면 매일 관찰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를 이용해 퇴비화 하는 것으로, 지렁이 똥인 분변토를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www.ecobuddha.org, 02-587-8997)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사자후賞에 권오국불자

조계사 청년회 설법대회

조계사 청년회가 두번째로 개최한 설법회대가 10일 조계사 법당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최고상인 사자후상(조계종 포교원장상)은 권오국 불자가, 법륜상(현대불교신문사 사장상)은 김정희, 여시아문상(조계종 포교사단장상)은 김육섭, 감로상(대한불교청년회장상)은 진창호 불자가 각각 차지했다. 임연태 기자

목탁소리

불서는 어디에?

김주일 (취재2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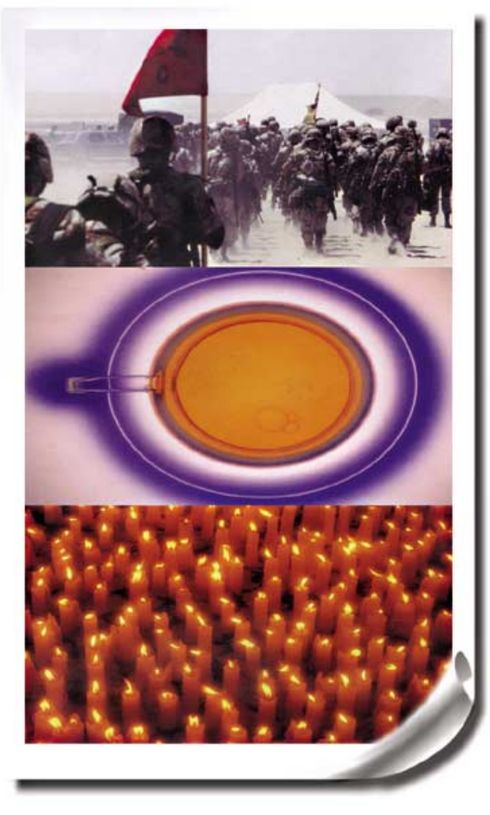
'책을 펼치면 꿈이 열린다'는 주제로 4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03 서울국제도서전'은 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여준 전시회였다. 도서전은 95년부터 국제전으로 바뀌어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민음사, 김영사, 열린책들, 문이당, 효형출판 등 국내 126개사를 포함한 세계 18개국 167개 출판사가 참여해서 총 20여만종의 책을 선보인 대규모 행사였다. 하지만 불자라면 한번쯤 접하고 싶었을 불서코너는 넓은 매장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불서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의문을 안고 전시장을 몇바퀴 돌아봤지만 단지 김영사와 명진출판사 등 대형 출판사들의 종교코너에서 자사가 내놓은 10여권의 불서를 본 것이 고작이었다. 이에 비해 140여개의 기독교출판사들이 연합으로 참가한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부스와 6개 회원사가 참여한 한국천주교출판연합회 부스는 나란히 진을 치고 관람객들을 맞고 있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불교출판 전문가는"초창기 2~3회 정도는 불교출판사들도 전시회에 참여 했으나 최근 몇년동안은 재정적 문제와 인력부족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도서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는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아 불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래서 불교출판사들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웠다면 다른 종교출판사들처럼 서로 연합해 십시일반으로 홍보 부스를 설치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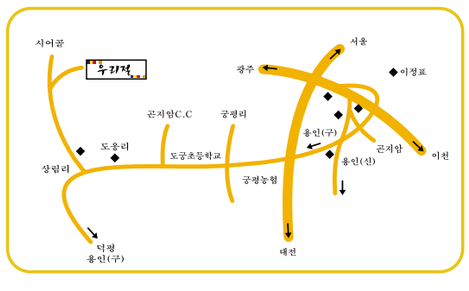
부처님 가피가 충만한 우리절



이라크 전쟁과 사스 · 알제리 지진 희생 영가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위로를.....

-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 지금도 SARS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알제리 지진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의 의거 불우한 영가를 천도합니다.
- 모두 오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국제영가님들에게 차 한잔씩 올립시다.
- 행사안내
  - 일 시 : 2003년 6월22일 일요일 오전10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 큰법당
  - 법공양 : <일원곡> 제5권 (동봉스님의 40번째 책)
  - 후 원 : 동선회,겨운행복,목련사랑,신도회
  - 곁들임 : 동봉스님 출판기념법회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 제5권과 목련사랑에서 보시한 배건을 나누어 드립니다.



장소: 곤지암 우리절
www.urijeol.com
우리절.net
Tel: (031)763-4674~5

개교기념 불교학술대회…상월조사 업적 등 조명

천태종 금강대 · 진각종 위덕대

밀교경전 번역·학술 자료집 발행·세미나 개최

종립대학 불교학·교학체계 발전 견인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에서 설립한 종립대학들이 불교학과 종단 교학체계 연구에 기여하는 등 불교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천태종 금강대, 진각종 위덕대 등은 불교학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시대에 맞는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소속 종단의 교학체계를 세우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종단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내년 개교 예정인 태고종의 동방대학원대학도 정기적인 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종립대학들의 종단 정체성 확립 기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천태종의 교학체계 연구는 그동안 종단 산하의 천태불교문화연구원과 종전연구원 등에서 담당해 왔으나 금강대 부설 천태불교문화연구소와 불교문화학부도 이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천태종 종립 금강대는 개교를 기념해 11일 대강당에서 첫 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봉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등 5명의 불교학자들이 발제를 맡아 천태종과 상월 조사, 21세기 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기표 동국대 강사는 '상월원각대조사의 생애와 업적'에서 천태종 중창과 총본산 건립, 대승적 수행체계 확립, 현대적 교화제도 확립 등을 상월대조사의 업적으로 평가했다. 또 "상월 조사의 모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저술 마다 상치하는 내용이 많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춘 동국대 교수는 '천태종 중창의 역사적 의의' 논문을 통해 "천태종은 총화불교를 실현하고, 생활 · 대중불교를 구현하며, 상생과 조화의 가르침을 통해 미래문명을 선도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각종 종립 위덕대의 불교문화학부와 밀교문화연구원도 밀교와 교법 · 교학체계를 바로 잡고 발전시키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위덕대는 매년 밀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밀교학 연구와 경전번역, 학술지 ·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위덕대는 진각종의 제56돌 창교절(6월 14일)을 기념해 1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밀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진각종 창교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김경집 진각종 종학연구실 연구원이 '창교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발제하며, 장익 위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가 '진각종학의 불교학적 기반'에 대한 눈문을 발표한다. 위덕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밀교학 대중화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진각종 교육원 관계자는 "종립대학에서도 종단의 교법 · 교학체계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며 "종립대학의 연구활동이 종단의 교법 · 교학 사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한법화종 57주년 기념법회

법화종은 9일 서울 총무원 대법사에서 창종 5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해산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지우스님, 총무원장 직무대행 혜륜스님, 중앙종회의장 양운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모든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법회는 지난 1월 총무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촉발된 종단내 분규를 일단락하고 열린 첫 종단 행사였다.



분당 대광사 대법당 기공식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운덕)는 12일 대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주지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부처님의 청정한 법음과 광명을 펴는 수도권의 모범적인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원력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에 건립되는 대광사 대법당은 전통 목조 다포양식으로 2백여평 3층으로 지어진다. 실내에는 19m 높이의 청동 관음좌상이 봉안될 예정이다.



◇관음종은 7년여의 복원불사끝에 총본산 묘각사를 낙성하고 종도들의 정신적 · 신앙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해 나기기로 했다.

"전법도량으로 우뚝 서길"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 낙성대법회 봉행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가 7일 낙성됐다. 지난 97년 2월 화재로 대웅전과 범종각 등이 전소된 이래 관음종 종도와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복원불사를 추진한 지 7년여 만이다.

관음종은 7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등 사부대중 3천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새로 건립된 대불보전에서 점안 및 낙성대 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총본산 묘각사 낙성을 종단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 관음종이 불교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에게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전파하는 전법도량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관음종은 530여평의 대지에 연건평 450평 지상 3층 규모의 묘각사 대불보전을 낙성함에 따라 종단의 종지 종풍을 선양하는 법화신앙의 중심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일붕스님 원적 7돌 추모

일붕선교종은 8일 서울 신영동 일붕선원에서 일붕 대종사 원적 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일붕문도회가 주최하고 일붕선교종과 일붕 은제자 문도회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발원문 낭독, 행장 소개, 제례사,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재단법인 일붕선교종도 9일 경남 의령 일붕사에서 '일붕존자 원적 7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1914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난 일붕스님은 32년 제주 삼방굴사에서 득도한 이래 춘담스님으로부터 일붕 이라는 법호와 한영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이후 해인대학 교수, 동아대 주임교수, 불국사 주지, 동국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88년에 일붕선교종을 창종했다.

종단소식

학인대상 설법문안 공모

조계종 포교원은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들을 대상으로 <법회와 설법>(9월 발간) 100호 특집에 게재할 설법문안을 공모한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일반, 군 등에서 주제를 선택해 200자 원고지 35장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원고 형식은 설법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어체, 존칭어로 작성해 7월 31일까지 포교연구실(kimpd@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총 350여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02)720-7064

구인사 개산 58주년 법회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4일 대법당에서 개산 제5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 천태종 중창 이념인 불교를 통한 말법중생 구제와 세계인류평화를 염원한 유지를 받들어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세계 불교화에 노력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승정원 원로원으로 개칭

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진일)는 10일 총무원 보리원에서 제29차 임시종회를 개최했다. 승정원을 원로원으로 개칭하는 등 종헌 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10월 14~16일 강원도 심신수련원에서 승려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또 법계위원장 범해스님과 고시위원장 제공스님 등에게 대덕 법계를 품수했다.

게 시 판

모집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는 스님, 사찰 · 불교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2기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7월 8~9일, 18일 3일간 총 24시간 열리는 과정에서는 기획, 파워포인트, 포토샵, 프리젠테이션 일반에 대해 교육한다. 참가비 25만원. 한편 재가연대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참여불교세계대회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02)745-7799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중학교 과정 무료 검정고시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은평구 4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초등학교 졸업자 및 중입검정고시합격자. 교육내용은 중학교과정 도덕,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국사), 과학, 미술, 가정 등 8과목. 기간은 8월~2004년 7월. (02)385-1351

▲서울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영어문학, 일어문학반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일시는 매주 1회 1시간. 영어 및 영어 독해와 강의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02)804-4058

행사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무료 종합진료를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방과, 정형외과. 진료는 28일 오후 4시 센터 내 강당. 진료상태에 따라 내복약과 안경 등을 지급한다. (031)455-0551

▲불교여성개발원은 '준비하는 결혼,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미혼남녀를 위한 무료 혼인준비 강좌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첫 강좌는 26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2층 강의실에서 백경임 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학과 교수의 '불교와 결혼생활'. (02)722-2101

구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경력자),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마감은 20일까지. (033)643-1801~4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동목욕 담당 사회복지사, 방과후보육교사 등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자격증사본 각 1부. 마감은 18일까지. (02) 852-0525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의견광고

이천만 불자의 가슴에 또다시 못 박지 마십시오!

- 종권전횡 종권탈취 행위로 멸빈을 받은 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반대합니다 -

삼보님전과 종정예하, 원로의원스님들, 그리고 총무원원장스님, 종회의원스님들과 이 땅의 사부대중에게 엎드려 告합니다.

최근 과거 종권전횡과 종권침탈 행위로 인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면 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일부의 권위와 권력과 언론의 행동과 논리를 저희 젊은 수행자들은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滅擯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1994년과 1998년의 종단 사태는 폭력으로 종권을 사수하고 폭력으로 종권을 탈취하고자 한 용서받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비폭력적이어야 할 교단에 조직폭력배의 몽둥이와 칼로 수행자를 유린하고 잘못 내린 교시를 빌미로 조계종 종단의 규범과 체제를 부정하고 전체 불교를 유린하였습니다. 종단은 마비되었고, 스님들은 승복이 부끄러웠고 불자들은 불자됨이 부끄러워 개종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는 것조차 진저리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젊은 수행자들은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종권전횡을 반대하고 항거하는 것이 정당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국불교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기에 그들은 律藏과 宗憲 · 宗法에 근거해 滅擯이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교단의 사부 대중은 기꺼이 그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종단은 평온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律藏과 宗憲 · 宗法을 고치면서까지 滅擯者들을 사면 복권해야할 절실한 당위성과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현 집행부의 傳統性과 正體性은 무엇입니까?

멸빈 복권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앞서, 지난 종단사태 때 멸빈자들이 자행했던 무도한 폭력으로 가슴에 피멍이 들었던 사부대중과 이천만 불자들의 아픔과 울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뜻을 물어보셨습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소수의 주동자들과 힘의 논리에 의한 사부대중의 뜻이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단이 정상화된 후 극소수 주동자만 滅擯의 징계에 처했을 뿐, 대다수에게는 제적 이하의 징계를 내렸고, 꾸준한 종단 화합 조치로 현재 사면 복권을 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滅擯된 사람들까지 되살려 종단의 정통성과 화합을 헤쳐 가면서까지 복권을 시도한다면 저희 젊은 수행자들은 그 의도의 불순함을 의심하며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멸빈자들을 복권시키는 것은 종단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뿐입니다. 고질적인 폭력과 종권 다툼을 예고할 뿐이며 역사를 되돌리는 용서받기 힘든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나는 정진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수행자들은 법에 근거하여 그릇됨을 그릇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신과 실천만이 삼보의 慧命을 이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국 젊은 수행자들 모임
靑思靑行會 회원 합장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스님과 목사, 신부, 교무 등 4개 종교 축구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자기 종교 중심의 이기심 넘어서 하나된 모습
"스님,살살하세요." 웃음섞인 말들로 서로 격려
어느팀 우승 중요치않아, 모인 사실만으로 기뻐

'하나됨' 일깨우는 희망의 슛!골~인!

스님, 목사, 신부, 교무 종교인 친선 축구대회

"스님, 파이팅!"

"목사님, 힘내세요!"

10일, 울산 남구 월드컵 문수 축구경기장에는 스님과 목사, 신부, 교무 등 4개 종교 성직자들이 축구경기를 가졌다. 불교, 개신교, 성공회, 원불교의 성직자들이 팀을 만들어 출전한 한국 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축구대회였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울산 월드컵 문수경기장에 모인 각 종교 성직자들은 자기 종교 중심의 이기심과 배타적 분위기를 넘어 축구로 하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먼저 신부팀과 교무팀 경기를 시작으로 각 경기는 풀리그전으로 진행됐다. 경기가 없는 스님과 목사, 수녀, 보살, 정녀들은 관중석에 나란히 앉아 응원을 펼쳤다.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난후 후반전에서 교무팀의 공격이 활기를 띄자 응원의 열기도 더해갔다.

슛! 골~인!

드디어 한 골이 터졌다. 종교의 벽을 허물며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놓은 득점은 교무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원광대 선후배로 구성된 교무팀은 단 한번의 연습도 없었지만 호흡이 척척 맞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승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양산 분도수녀원 한마르타 수녀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임을 알아가고 한발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며 "여성 성직자들도 탁구라도 하면 좋겠죠?"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열린 스님팀과 목사팀의 경기. 제일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한 스님팀은 목사팀을 맞아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종료 후 짧은 휴식시간. "스님, 좀 살살하세요." "목사님은 축구 선수보다 잘하시는 거 같아요." 웃음 섞인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축구경기에서 스님팀은 목사팀, 교무팀, 신부팀을 차례로 이겨 전승을 기록했다.

응원하던 김인숙 불자(울산시 남구)는 "감격스럽다. 어느 팀이 우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경기를 관람한 사람도, 직접 경기에 뛰었던 사람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누구나 소리 높여 종교화합을 외쳤지만 대립과 반목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기에 이날 축구 대회가 주는 감동은 더욱 컸다.

스님, 목사, 신부, 교무가 한자리에 모인 축구 대회이고 보니, 수녀와 비구니 스님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며 응원을 보내는가 하면 응원을 통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과 목사, 신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다. 경기장 한쪽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울산불교교육원 소속 석정원차회가 녹차와 다식, 떡, 수박 등을 준비해 전통 문화의 멋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참석한 선수 중 최고령이었던 인천 성지교회 안병성 담임목사(62)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 많은 종교인들과 북한종교지도자들이 서로 하나되는 자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대구 성공회 서대구교회 천제욱 신부는 "종교간에 서로 적대적인 경우도 없지 않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몸으로 부딪히며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털어놨다.

부산, 경남은 물론 대구 서울 인천 등지에서 먼길 마다 않고 경기를 위해 달려온 성직자들. 사전 연습은 없었지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칠 줄 모르고 뛰고 또 뛰었다. 울산시 불교사원연합회(회장 눌암)와 울산 불보신문이 마련한 평화통일기원 제1회 종교인 연합 친선축구대회. 축구 경기에 앞서 가진 식전행사에 참석한 각 종교계 원로들 또한 이날의 축구대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성공회 부산교구장 이대용 주교,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상임 고문 정영문 목사, 원불교 부산 대신교당 황도국 교무 등 각 종파의 어른들이 참석한 식전행사에서 행사를 주관한 눌암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종교인들의 화합된 모습은 나와 이웃을 하나로 묶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용 주교 또한 "오늘 이 경기에 참석한 모든 종교인들이 누가 누구를 이겼다고 기억하기 보다 사랑을 배웠다고 기억하게 되길 기도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종교화합을 강조하는 어떤 학술대회나 세미나보다 더 큰 결실을 맺은 1회 종교인 연합 친선축구대회는 대회 자체가 종교간의 벽을 허문 멋진 골든 골이었다. 승부를 넘어 똑 같은 승리의 트로피를 받아든 종교인들은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글= 천미희 기자



◇고교시절 절친한 친구인 종선스님(우측 두번째)과 김동규 신부(우측 세번째)가 손을 맞잡고 있다.

25년만에 재회, 우정 친선경기로 이어져
서로 다른 삶 방식 이해, 다양한 교류 기대

"어, 동규(신부)야!"

"어? 재철(종선스님)아!"

2000년 초파일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8개 교단 대표들이 통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이 만났다. 25년만에 한사람은 성공회 신부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은 스님이 되어 만난 두 사람의 우정은 두 종교간의 이해로 이어졌고, 종교인 친선 경기대회라는 큰 열매의 씨앗이 되었다.

종교인 친선 축구대회 집행위원장 종선스님은 "김동규 신부를 만나면서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세상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찾아낸 종교화합의 물꼬는 축구.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맺어준 송영웅 목사, 장덕훈 교무를 집행위원으로 4개 종파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집행위원들은 올 가을에는 성직자들만의 축구경기를 갖고 매년 6월에는 대규모 축구대회를 연어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기로 했다.

김동규 신부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보다 다양한 교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천주교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종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연령제한 합리적” “보완책 필요” 의견 다양

40세가 넘으면 스님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계종의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공청회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 주최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오는 8월 실시되는 제25기 행자교육원부터 적용되는 이 제한 조치는 지난해 9월 조계종 중앙종회가 출가자 연령제한에 관한 규정을 15~50세에서 15~40세로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40세 이상의 발심출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0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 승가자질 향상과 승단 위계질서 확립 등 출가연령을 낮춘 이유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세 이상 출가자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발제와 논평을 요약했다.



조계종 출가연령제한 공청회 (발제와 논평)

자격심사위서 적부 가려야

발 제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각 5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출가 연령’을 묻는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니, ▲비구는 30~40세 ▲비구니는 20~30세 ▲사미는 20~30세 ▲사미니는 20~30세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의 제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40세 이하로 제한하되 진정한 출가자를 위해 가칭 ‘40세 이상 출가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적합성 유무를 심사하는 방법 ▲15세~60세로 환원하는 방법 ▲승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30세 이하로 낮추는 방법 ▲최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출가 심사 자격 규제와 함께 행자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동진 출가자와 고령출가자를 이원화해 이들에게 수행체계와 종단법계 및 업무를 차등화 하는 방법이다.

저연령 출가유도 비전 제시

논 평 정산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고령출가자 증가 및 전체 출가자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제한한 것은 출가자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연령층의 출가를 유도할 수 있는 종단 비전제시, 수행과 중생교화를 근본으로 하는 청정승가공동체의 지향, 발심 출가자를 선별할 수 있는 엄격한 수행과 교육과정 및 수계제도 마련 등이다.

사회행적 등 검증거쳐 허용

발 제 지오 스님(조계종 교육위원장)

출가 연령 제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 출가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40세 이상인 출가자도 기존 40세 미만 출가자와 동일하게 행자생활 및 기본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연령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다. 40세 이상인 출가자는 사회행적과 논문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타당성을 입증한 후에 허락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시에는 40세 이상인 출가자는 종단에서 발급하는 승적은 부여하지 않고, 40세 이상인 출가자가 정하는 은사가 직접 수계를 주되, 소속은 은사된 이가 속해 있는 그 사찰로 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종교자유 제한 간과 말아야

논 평 성무 스님(용주사 교무국장)

종법으로 출가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권내지 개인의 수행 원력을 제한하는 비합법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점 해결 방법에서 ‘특별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교육 · 위계질서 문란 · 종단 위상 추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

율장엔 출가제한 규정없어

발 제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율장에서는 출가 연령의 하한선을 규정할 뿐 상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면, 출가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고 이해할 만하다.

출가 연령의 문제에서 고려하고 강구해야 할 것은, 고령자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고령자의 우대라고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이미 사회 복지 사업으로 이들을 구제하고 있다. 고령자 출가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정신적 능력이나 사회적 경륜 고려하여, 비구나 비구니로 인정받기까지의 단계적 기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도 있다. 고령자의 출가제한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대처할 인재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재를 선별할 것이 아니라 승단자체의 교육과 수행을 통해 양성하는 것이 불교 고유의 기능이며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생에 출가를” 너무 가혹

논 평 조연현 기자(한겨레신문)

‘혼자서만 타는 수레’라며 남방불교를 ‘소승’으로 폄하하고, ‘중생들과 함께 타는 수레’라고 등장한 대승불교가 오히려 중생들의 승차를 막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출가를 간절히 바라는 구도자들에게 “다음생에서나 출가하라”는 것이 대승다운 것일 수 있을까.

신체장애에 대한 출가 제한 또한 개선된 인권 의식에 맞춰 변화가 절실하다. 불교가 ‘편견의 종교’가 아니라 깨침의 종교, 자비의 종교라면 이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승가는 평등 공동체 …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선발 엄격심사 · 행자기간 연장 등 고려해 봄직

종합 논평 혜원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승가가 평등한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승단의 입문에 차별을 부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제한’이라는 것은 ‘차단’이며 ‘막는 것’이다. 그러나 율장이나 승려법 어디에도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말은 없다.

만약 ‘경장’ ‘율장’에 근거를 두지 않고 승단의 입장만 고수한 견해로써 법령이 이루어진다면 매번 시대와 사람이 바뀜에 따라 의혹과 모순이 생겨 또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출가자 선발의 엄격한 심사를 한다. ▲행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이때 사승은 출가자의 여러 가지 면목을 관찰하며 공동체의 습의를 익히게 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받기 전 6개월에서 1년간 사승의 곁이나 사승이 정하는 곳에서 머물게 하여 승가의 구성원으로 결격이 없는지를 다시 관찰한 다음 사승의 승낙과 책임에 한하여 구족계를 수지하도록 한다. ▲3급 고시 역시 사승 혹은 사승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스님으로부터 추천서에 의거하여 고시를 취득하게 한다.

정리=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혜숙
우리는 선우 복지간사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

함께 생활 … 자연스레 가족애 발휘

“해줘야” 보다 “언제나 함께”가 중요

“아이들이 몇이에요?” “예쁜 딸이 둘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몇 살인지 물어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에요.”

나이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제가 그렇게 큰 아이들을 두었는가 하고 모두들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면 그룹홈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되물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선재동산은 청소년 그룹홈입니다. 가족해체나 빈곤,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아이들의 새로운 울타리가 되려는 곳입니다.

선재동산의 가족 희망인원은 5~6명입니다. 지금 선재동산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두 아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모라고 불리는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가족이 되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고, 중간에는 더 많은 수의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의 성격이 다소 다른 그룹홈에서 몇 개월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역할을 잘 하는 것인가를 궁리합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기 보다는 아이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재동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아이는 수년 동안 혼자서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지냈고 홀로 할아버지의 임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자주 무서운 꿈을 꾸고 잠을 설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불과 베개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와 함께 잠이 들고는 합니다.

두 아이들은 비록 선재동산에서 처음 만나 자매사이가 되었지만, 큰 아이가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워할 때 언니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언니가 동생의 공부를 봐주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각자 외롭고 힘들게 지내온 아이들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서로가 자연스럽게 가족애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제로, 의도적으로 가르쳐서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혼자였던 어린 친구들에게 작은 생활공동체를 열어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족애 같은 사랑을 체험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 가정을 갖고 또 엄마가 될 것입니다. 예전의 상처를 이곳에서 모두 치료하고 건강하게 어른이 되고, 건강한 엄마가 되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모일지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곁에서 도와주고자 합니다. 아침에 교복을 하얗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 고

거룩하신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본(사)군불교진흥회에서 시작하여 금년으로 제7회를 맞이한 “군장병불자 위문품보내기”운동이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원력과 신심에 힘입어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2547(2003)년 부처님오신날 위문품 보내기 운동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 입 부		지 출 부	
		항 목	금 액
온라인 입금 지로입금	33,853,000 3,262,000	위문품(샘플포함) 10,300개 사탕 外(과자포함) 발송비 식대 및 작업비용 기자간담회비용 광고비 잔액	 25,750,000 6,821,140 576,790 801,000 300,000 600,000 2,266,070
총 계	37,115,000		37,115,000

위문품 10,116개를 55부대여곳에 전달하였고, 사탕 11,840개를 25부대에 전달하였으며, 과자 53BOX를 6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명예회장 박상길, 명예부회장 이병문, 회장 석정각, 수석부회장 자용스님, 이사 지문스님, 운월스님, 남륜스님, 무극스님, 보륜스님, 이건호, 국순려, 백승진, 감사 최우진, 류권홍, 사무국장 이하전, 사무원 반야심, 방제상 등이 본 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본법인은 군불사 및 법회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임직원이외에는 회주나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없는 바, 본 법인의 임직원를 사칭하는 경우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사)군불교진흥회는 군장병불자들의 신행과 군법사님들의 보살행을 지원하는 순수민간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군불교진흥회장 석정각 합장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위문품 보내기 동참자 명단입니다.(지로는 5월 7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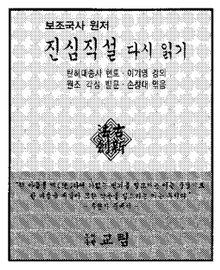
온라인입금

정각스님	5,000,000	김상분	50,000	신미화	15,000	전성례	60,000
진각종	6,530,000	김연삼	50,000	양용석	50,000	정인호	100,000
법사종	1,000,000	김옥주	10,000	오금순	5,000	전재영	30,000
지문스님	1,500,000	김옥주	30,000	오봉정사	300,000	정지현	10,000
이건호	1,000,000	김인옥	500,000	오봉정사회장	200,000	정해춘	10,000
국순려	1,000,000	김정순	14,000	왕공식	4,500	전현옥	20,000
대한불교진흥원	1,360,000	김정희	100,000	유옥노	110,000	정혜숙	250,000
원광사	1,500,000	김종익	33,000	윤성봉	60,000	제유정	20,000
자용스님	1,000,000	김청수	10,000	윤재환	108,000	조남인	100,000
진소스님무정스님	1,000,000	김학석	10,000	윤현주	50,000	조쌍례	180,000
적경스님	1,000,000	김현정	100,000	이강민	30,000	조용재	250,000
선일스님	1,000,000	노교범	5,000	이경애	625,000	차재경	100,000
신직성	1,200,000	노보살	6,000	이경희	25,000	최선도	750,000
강동인	50,000	도춘희	20,000	이광택	10,000	최순애	10,000
강태복	10,000	묘인스님	47,000	이명은	50,000	최용수	28,500
구자익	100,000	박소부	12,000	이상백	10,000	최원석	5,000
극락정사	300,000	박정근	14,000	이애란	30,000	최정아	10,000
금강선원	250,000	박종호	5,000	이옥선	50,000	최준기	10,000
금철희	250,000	법원스님	75,000	이옥자	10,000	최진호	10,000
김종인,박홍익	250,000	보륜스님	750,000	이장원	20,000	최환성	5,000
김규성	50,000	봉림사	500,000	이재길	10,000	한석구	58,000
김달영	50,000	불교어머니	250,000	이춘란	200,000	허홍규	10,000
김명희	100,000	비엠에스코리아	200,000	자비회	200,000	홍도원심	3,000
김법왕궁	500,000	상현스님	150,000	정갈산	20,000	홍성표	30,000
김복업	200,000	서전	250,000	장복순	200,000	황명석	10,000

지로입금

곽경찬	10,000	박승희	20,000	유옥희	5,000	장순경	20,000
김광정	330,000	박인숙	55,000	유창혁	20,000	전영우	30,000
김규삼	30,000	박정근	20,000	유춘자	10,000	전영필	20,000
김성오	10,000	박정원	30,000	유현석	50,000	정진욱	10,000
김성하	20,000	박진영	5,000	윤갈웅	10,000	정현덕	5,000
김연욱	10,000	박희서	100,000	윤상웅	130,000	조미자	50,000
김영호	5,000	박희숙	15,000	이계원	23,000	조명찬	50,000
김은수	20,000	박희찬	50,000	이금예	13,000	조정일	100,000
김준형	5,000	배기환	4,500	이대섭	30,000	주정욱	50,000
김진우	5,000	본우스님	54,000	이동일	10,000	지경숙	30,000
김찬묵	30,000	불국사	10,000	이말숙	20,000	지연자	20,000
김태식	10,000	서동철	10,000	이명숙	5,000	천미진	100,000
노성재	10,000	손덕순	100,000	이미경	20,000	최만성	20,000
도은스님	20,000	송암사	50,000	이상혁	10,000	최병은	10,000
류강하	5,000	송전욱	10,000	이석륜	30,000	최성호	10,000
마명찬	20,000	수련회	100,000	이선영	250,000	최영진	20,000
무명인	10,000	신승철	10,000	이승엽	15,000	하초지	10,000
무명인	30,000	양태관	9,000	이원숙	30,000	허경구	100,000
무명인	50,000	엄성문	30,000	이윤자	10,000	허기림	50,000
문영민	10,000	오담교	30,000	이을순	20,000	허병두	20,000
박백윤	83,000	오덕심	20,000	이준성	3,000	홍성숙	50,000
박선희	10,000	오민환	14,000	이진아	50,000	황상하	20,000
박세화	2,500	오선효	41,500	이찬명	30,000	황원기	10,000
박순자	50,000	용문사	10,000	이형주	20,000	황홍기	4,500
박순호	25,000	월명사	20,000	임인택	10,000		

般若와 華嚴은 하나!
보조국사 : 융회정신~진심직설
탄허종사 : 법계정신~화엄사상
마음과 말이 분리될 수 없듯이 眞空과 妙有는 둘일 수 없다.



禪은 부처의 마음이요.
敎는 부처의 말씀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명선원 강의(화엄사상)
※보조국사의 권수정혜결사문 중에서
“한 마음을 미(迷)하여 가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요.
한 마음을 깨달아 묘한 작용을 일우키는 이는 부처다.”
· 참선 : 매일. 오전 06:00~12:00
· 강의 : 매토. 오후 4:00~ 6:00
①토 : 반야심경~김용정 박사 ②토 : 원인론~각성 스님.
③토 : 불전한문~서대원 박사 ④토 : 유 식~각성 스님.
※각 강의 저자직접 저술한 책으로 강의. 실비제공.
※전과정 4년간 계속.강의과목 매년다름 (문화대학)문의요망.
지금 전화주세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 휴대폰 019-9019-0888
전철 1호선 종로5가 5번출구 보명선원선우회
02-2273-8484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불자들.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이들은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을까? 직무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이들 직장불자회의 여름행사는 단체 특성을 살린 주제 중심의 '수련회'에서부터 철야정진과 수계법회 등의 '합동법회', '근무현장에서 여름나기'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직장불심'의 여름나기 준비. 어떤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본다.

더운 여름… 정진하며 '이열치열'

직장불자회 수련회 · 근무현장서 더위나기 등



그림 / 김영민

직장불자회가 주말과 휴가를 이용해 준비하고 있는 여름행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직장 특성을 살린 '수련회'. 이들 단체 가운데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7월 5~6일 대전 광수사에서 수련회를 열고, 재소자 포교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지회별 우수포교기법 발표,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의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회원들의 포교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 대전 충청대학 체육학과 사희순 교수의 불교무술 시연도 곁들여진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도 오는 8월 9~11일 김천 직지사에서 '청소년 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한다. 서울 · 경인, 부산 지부 등 전국 11개 지부 150여 회원이 참가하는 이번 수련회는 청소년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8월 19~21일 백담사에서 제1회 동아시아교수불자대회 겸 제2회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연다.

교사불자련 청소년 인성지도 프로그램 중심 진행

교수불자련 8월 한국 · 동아시아 교수 불자대회

경찰불교회 안전사고 예방 위해 산사 · 유원지 파견

철야정진과 수계법회 등의 합동법회도 열린다.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이탁수)는 7월 5~6일 산하 10개 지회 60여 회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철야정진 및 수계법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의장 조진규)는 28~29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일터불교, 신행 업그레이드'를 주제로 산사체험 법회를 갖는다. 법회는 그간 철불협의 신행 문화를 점검하고, 새로운 신행 아이템 개발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근무 현장에서 여름을 맞는 직장불자회도 있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의 2천 여 회원들은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근무 현장'에서 봉축을 맞는다. 특히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산사 및 유원지 여름파출소에 파견을 나가는 등 뜨거운 여름을 보낸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목탁 집전하는 법 배워요" 지난 10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회 직장 • 직능불자회 의식집전 교육'에 참가한 직장불자들이 불교의식 집전방법을 배우고 있다.

경불회 지역불자회 잇단 출범

부여 · 영천 · 달서룔 창립법회 봉행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이하 대한경불회)가 최근 지역불자회 결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천 · 대구 달서 · 충남 부여경찰서 불교회가 잇따라 창립됐다. 이는 대한경불회가 그간 추진해 온 불교회 활성화 성공사례 제공, 지역별 연계활동 등의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영천경찰서 현정불자회(회장 이준근)는 지난 5일 영천 은해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회원 47명으로 구성된 영천경찰서 현정불교회는 앞으로 매월 지역사찰 순례법회 개최, 공무원불자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불교회(조상구)도 5월 30일 경찰서 강당에서 회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법사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또 충남 부여경찰서 불교회(회장 황용익)는 5월 29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장곡 스님을 법사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김철우 · 박원구 기자

우리 모임에선

서울 강남룔 불교회, 경기도 선재동자원 방문

서울 강남경찰서 불교회(회장 박행신)는 5월 31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통일 안국사를 방문, 금일봉과 의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박행신 회장을 비롯해, 박금철 상임포교사, 하만진 총무 등 10 여명이 참석해, 선재동자원의 운영에 대한 사정을 듣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무사불자회, 통도사 등 성지순례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는 14~15일 이틀간 양산 통도사, 보문사, 표충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장



법현 스님 초청 정기법회

정진호 우리은행 불자회장은 12일 서울 은행 본점 4층 회의실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22일 창립6돌 '바른신행' 법회

김정길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장은 22일 수덕사에서 창립 6돌 기념 '바른신행법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법문을 듣는다.



가족과 함께 갑사 순례

이정환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장은 22일 충남 계룡산 갑사로 '가족과 함께하는 6월 사찰순례법회'를 떠난다.



무이법사 주재 정기법회

한연구 강원 원주경찰서 법우회장은 5월 30일 경찰서 내 법당에서 영원사 주지 무이 스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불자회는요

한국운전기사불자련 제주지역회

자체법당 봉불 점안식 … 오랜 소원 성취

'관광 일꾼' 자부심, 장애인 돕기 등 추진

제주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한라산과 백록담, 그리고 성산 일출봉에서 내려다본 앞 바다. 상상해보십시오. 환상의 섬 제주도를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생각.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제주지역회 법우님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운불련 제주지역회. 우리 불자회 자랑을 해야겠군요. 자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회의 생일은 1996년 8월입니다. 홍법정사 주지 관효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평화통일 불사리탑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자회 이름을 달고 첫 시동을 걸었던 그 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후로 50여 회원들이 매달 한 번씩 법회를 열고, 열심히 마음공부를 해왔습니다. 사회봉사 활동도 왕성하게 전개했습니다. 회원 차량에 자비합을 설치해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으로 소년 · 소녀가장 돕기, 양로원 방문, 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 돕기, 지역 사찰 순회 봉사 등 작은 것부터 소리 없이 부처님 법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뿐인가요? 올 봄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자체 법당을 마련했고, 3월에 봉불점안식까지 마쳤습니다. 또 매년 참석한 부처님 오신 날 제등행렬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아기동자를 태운 장엄물과 연꽃장식을 한 회원들의 차량이 거리에 나섰을 때, 시민들의 환호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불교 기초교리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불교에 '불'자도 모르는 초짜배기 불자들이었지요. 우선은 불교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회는 스님들의 법문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지역 사찰을 돌며 법회를 꾸준히 봉행해 조금씩 불교를 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탑승하는 손님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을 만큼, '불교박사'가 다 됐지요.

우리 불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제주관광의 일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0년 5월에 제주 운불련 호출택시를 개통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지역민과 친밀함을 갖는 등 우리 불자회는 제주관광활성화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전회원이 동참하는 무료 장애인 도일주 관광 시켜주기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외로운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는 물론, 주변 자연보호 환경운동도 펼칠 겁니다. 할 일이 많은 만큼 우리 불자회는 다른 직장 신행단체와 연계활동도 전개해, 보다 폭넓은 신행활동을 보일 생각입니다.

■송동기 회장


◇운불련 제주지역회원들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제등행렬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앉아 있는 동자승의 모습이 천진난만하다.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오직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인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오가피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20여년을 하루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가피를 키워온 성광수씨의 정성! 믿을 수 있는
수신토종오가피의 신념입니다.

기술이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내유일의 정부출원 바이오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인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를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1년전 온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년전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감동했습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이뤄낸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오가피는
오직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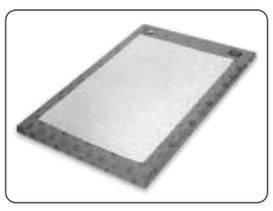
-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사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전화주세요! (02) 446-4422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석씨향방의 제품은 따뜻한 기운을 발로 보내고
시원한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베게
박하, 곽향, 강활, 방풍, 당귀, 천궁, 석창포, 오수유, 만형자 외 기타 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98,000원

베게의 성분 효능 (태평어람, 신농본초,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 서늘한 기운과 열을 받기 쉬운 복잡한 모세혈관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고혈압, 저혈압, 신경질환, 우울증 등의 다양한 질환에 도움이 된다.
- 오래 베어도 베개 온도가 따듯해지지 않고 늘 머리를 맑고 상쾌하게 해줍니다.
- 잔병과 감기에 시달리는 어린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어린이, 학생이 베면,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져 공부가 잘 되며 주부, 직장인, 고령자가 베면, 뇌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목디스크, 우울해소, 비염에 좋으며 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귀가 잘 들리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안마온열보료
홍화, 황정, 황백, 감초, 건강, 두충, 건지황, 인삼, 황연, 황금, 황기, 솔잎, 삼칠근, 백출, 창출 외 기타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1인용 110만원, 2인용 130만원
안마 158만원

안마온열보료의 성분 효능 (태평어람, 신농본초,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 향약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어 자연 치유력을 고조시켜 주며, 전신에 은은한 향약 향과 함께 지압효과를 주며 온몸 구석구석의 뭉친곳, 결린 곳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며, 피순환 및 기순환을 원활히 도와 줍니다.
- 잔병이 많은 어린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병든 세포가 싱싱한 세포로, 난치병의 치유기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편안한 수면과 수면 시간이 짧더라도 충분한 피로회복 효과.
- 고혈압, 중풍관리, 치매 예방

대리점 모집
☎ 02) 538-7161 http// : www.hyangga.com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인 업장 덩어리를 녹이며!
주말 수행 체험 이야기

◆ 중단전차크라 (가슴명치) 막힌 지옥 덩어리를 시원하게 뚫어주며 일주일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신비로운 도인체조를 단 한번으로 배우고!!!

◆ 독 경 염 불 의 들숨시 가슴과 어깨를 들먹거리고 자세 불량으로 거꾸로 호흡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바른자세와 호흡법, 운율법을 배워 진정한 수행과 행복이 시작된다.

◆ 자동단전호흡 은 참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수행으로, 수행 자라면 누구나 배워야할 단전호흡이 일체 무리없이 저절로 되어 일할때나, 쉴때나, 잠잘때에 그대로 적용되어 생활 禪이 절로 된다.

◆ 와 선 단 20분의 투자로 세상 살맛이 난다. 즉석에서 완전한 이완과 에너지 충만의 확실한 체험을 하게되며 초롱초롱 빛나는 두눈이 와선의 진가를 말해준다.

◆ 행 선 복잡한 머리가 상쾌하고 맑아지며, 짓눌린 어깨가 가벼워 진다.

◆ 업장소멸진참회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업장을 지우고 부처님께 바친다.

◆ 기차게 절하는법 숨차지 않고, 헐떡거리지 않고, 맥박이 빨라 지지 않는 호흡에 맞추어 절하는 법을 배워 완전한 수승화강이 된다.

◆ 소리산의 정상(출세봉)에 올라 출세를 다짐하며!!!!!
◆ 수련일시 : 매주 토요일 : 저녁 8시~12시, 12시취침 ~
일요일 : 아침 5 ~10시(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3333배 철야정진 합니다)
◆ 준 비 물 : 간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절을 기차게 잘하는법 읽고 올것.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도 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http://cafe.daum.net/sorisan
◦ 오시는길 : 상봉터미널 - 청평댐→설악면→모곡종점 하차 전화요
동서울.상봉터미널 - 양평→용문→단월 하차 전화요
★ 자가용 : 양평에서 홍천방향→용문터널→단월→대명비발디파크 입구에서 청평 방면으로 6km 지점→석산주유소앞→소향산장→법왕정사

조선 비구니원, '왕실護佛' 지탱

이기운 씨 '설치와 변천과정' 추적 논문발표

왕실 여인들 출가 귀의처로 불당化
정업원외 인수·자수·안일원 등 존재

2004년 한국 비구니 주제 국제학술대회(5월 20~22일) 및 세계여성불교도대회(6월 27일~7월 6일) 개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비구니 위상 강화 방침 발표….

한국불교 출가승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조선시대 왕실 비구니원(比丘尼院)의 설치와 변천 과정을 추적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서 주목받고 있다.

동국대 강사 이기운씨는 역사학회가 이달 말 발간하는 계간 학술지 <역사학보> 178호에 '조선시대 왕실의 비구니원 설치와 신행'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조선시대 왕실 불당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한 논문은 간혹 있었으나 비구니원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이 씨는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여인들이 불교에 귀의해 여생을 보낸 불당(佛堂)으로 공식적인 정업원(淨業院) 외에도 인수원(仁壽院), 자수원(慈壽院), 안일원(安逸院) 등이 있었다"고 밝히고, "왕실 비구니원은 척불을 내세운 조선시대에 내불당과 함께 왕실 불교의 한 축을 지탱함으로써 조선왕실로 하여금 꾸준히 호불의 경향을 유지하게 한 근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왕실여인들의 출가 귀의처였고 인수원, 자수원은 원래 전왕 후궁들의 거처인 인수궁, 자수궁으로 설치되었다가 차차 정업원과 같이 불당화 된 곳이다. 안일원 또한 마찬가지.

◇**정업원=** 고려시대부터 유래한 전통적인 왕실 여인들의 출가 귀의처로 조선시대에도 공식적인 왕실 비구니원의 역할을 이었다. 왕실에서 주지를 임명했으나 유신들의 철폐 요구 속에 몇 차례 철폐와 복원을 거치면서 인수원, 안일원 등으로 불렸다. 명종 이후 인수원에 소속되었다가 현종 때 철폐됐다.

◇**자수원=** 조선시대 선왕 후궁들의 거처였다가 이들이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불당화 돼 후대까지 왕실여인들의 신행처 역할을 했다. 문종때 세종의 후궁들이 자수원 비구니가 되었고 세조 때에도 태종 문종의 후궁들이, 성종 때에는 세조와 예종의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었다.

◇**인수원=** 명종 때 기존의 인수궁을 수리하여 선왕 후궁들의 거처로 삼으면서 불당이 되었는데, 정업원을 인수궁에 포함시켜 수리하면서 정업원이 인수궁에 속하게 되어 이후 유신들은 정업원으로, 왕실에서는 인수원(궁)으로 불렀다. 선조~광해군 때 다시 정업원으로 불리다가 현종 2년 자수원과 함께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안일원=** 고려시대에도 보이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단종 때 처음 보인다. 명종 초에는 세간에서 정업원을 안일원으로 부르기도 하였다고 하여 정업원이 황폐화된 기간 동안 안일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혼칭하여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밖에도 일시적으로 설치된 비구니원은 더 있었다"며 "개인 문집이나 비문 등의 연구를 통해 신행에 대한 부분까지 밝혀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한국불교미술사학회가 부처님 고행상으로 유명한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서 불상 실측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불교미술원류를 밝힌다

문명대 교수, 파키스탄 불상 조사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원류로 지목받아온 간다라 미술의 전모를 밝히려는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 파키스탄의 주요 5개 박물관에 소장된 간다라 불상 2천5백여 점을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가 최근 그 조사 보고서인 <파키스탄 박물관의 간다라 불상 조각 연구>를 펴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세계에선 처음으로 파키스탄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간다라 불상 전체를 실측 조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문명대 교수는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인 파키스탄에 간다라 불상 수천점이 있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전체적 관점에서 체계화시킴으로써 불교미술의 출발점인 간다라 불교조각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년도(~2004년 7월) 마애불과 사원 현지 조사, 3차년도(2004년 8월~2005년 7월) 주요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 이어 국제학술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동산문화재 도난방지·보존처리에 국고 6억 7,400만원 긴급 지원

문화재청은 도난위험과 훼손우려가 있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9건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 6억7,400만원을 긴급 투입, 도난방지시설과 보존처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교문화재는 모두 6건이다. 국보 298호 감사 삼신불괘불탱(사진)의 도난방지를 위해 화상감시시설(CC TV)을 설치하고 보물 578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후불탱 등 4건은 보존처리를, 보물 980호 화성 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은 보호시설인 대웅전을 보수한다. 보물 575호 대승사목각탱부관계문서는 보존처리와 함께 금고도 설치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등 특집
'문화재기능의 맥' 2호

<문화재 기능의 맥> 2호(사진)가 최근 발간됐다.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신응수)가 지난해 5월 창간한 <…맥>은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을 위한 소식정보지 성격이 짙지만 우리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쏠쏠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목조건물의 대표격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경천사 10층석탑의 보존처리 및 복원 현황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공사에 마지막 원력을 바친 드잡이 홍정수씨의 인물 탐방도 눈에 들어온다. (02)3672-8803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절(10)

석굴암의 불상들

화려하고 거대한 석굴사원이 많지만 그 가운데 석굴암이 우뚝 솟은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짜여진 건축과 한국 불상의 고전이 되는 조각이 만났기 때문이다. 석굴암의 조각은 통일신라 조각의 절정인 8세기 중엽 경덕왕 때에 조성되었고, 당시의 다양한 조각이 한자리에 모인 곳이 석굴암이다. 본존불에서 느끼는 위엄, 십일면관음상의 우아함, 10대 제자상의 인간미, 감실상의 단아함, 인왕상의 강인함, 팔부중의 엄격함 등 다채롭기 그지없다. 본존불은 신라인이 이상으로 여긴 불상의 이미지가 극치에 달한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표현된 모습이다. 가늘게 내려뜬 눈, 날카로운 콧날, 길게 호를 그리며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진 눈썹, 갈매기 날개짓하는 형상의 입술 등 신라인이면서 부처님인 것이다. 본존불은 이전의 불상보다 살집이 올라 첫눈에 육중한 체구가 보는 이를 압도한다. 그런데 워낙 얇은 옷이 몸에 짝 달라붙었기에 옷 속으로 젖가슴이 도드라졌지만, 상 전체에서 풍기는 권위는 이러한 육감적 표현을 사소하게 보이게 한다. 그렇지만 오른쪽 겨드랑이에 세 줄로 표현된 옷주름은 간략하면서 힘있게 맺혀 있어 자못 기운생동하다.

본존불 뒤에는 우아한 자태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왼손에 정병을 쥐고 오른손으로 영락을 잡아당기며 조심스럽게 서있다. 김상옥 시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몸짓만 사리어도 흔들리는 구슬소리
옷자락 겹친 속에 살결이 꾀비치고
도도록 내민 젖가슴 숨도 고이 쉬도다"

몸짓만 사리어도 흔들리는 구슬 소리 / 옷자락 겹친 속에 살결이 꾀비치고 / 도도록 내민 젖가슴 숨도 고이 쉬도다.(<십일면관음> 중에서)

수많은 장신구와 천의 자락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구슬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차가운 돌에서 들리는 숨소리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얼굴은 높은 부조로 명료하게 새겼지만 몸은 돌 속에서 스며나오듯이 얕게 표현하였다.

그런데 석굴암 조각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위용이 넘치는 본존불과, 화려함과 우아함을 뽐내는 십일면관음상에서 잠깐 눈길을 위로 돌리면 의외로 감미로운 조각을 만나게 된다. 오른쪽 세 번째 감실에 모셔진 보살상은 왼쪽으로 떨군 고개를 손등으로 가볍게 괴고, 오른손은 쪽 뻗어 비스듬히 꿇어앉아 오른발을 가볍게 감싸고 있다. 고결함을 간직한 채 달콤하게 꿈꾸는 듯, 깊은 사색에 잠겨 있고, 풍염하면서도 섬세한 부드러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다. 온화한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박한 광배가 화음을 이루면서 우리를 차분한 숨결로 휘감기게 한다. 사람을 압도하는 신성함 속에서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는 상이 바로 이 감실의 보살상이리라.



◇석굴암 감실 보살좌상. 석굴암 조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조각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안내
영험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8-325-8802

영가천도후 확인을
한다면 시원하시겠지요
천도중 거의
확인시켜드립니다.
▷포천군 관인면 냉정1리
031)532-6661
해 원 사

구인 구직

산 세 수 려 한
사 찰 입 니 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52)254-5125

공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북한산 용암사
02)387-3216
011-9782-3216

비구니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일을 기도하실 스님)
▷52세 이하
▷용천사
016)521-0003
054)975-0003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61)782-987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시
시내중심에서 5분거리
054)636-3996

철학에 자신있는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서울포교원
02)2201-0796
011)204-2522

산사에서 함께 지낼
공양주보살(2人),
처사님(1人)모십니다
▷강원도
011-361-5055

노후만 보장되면
부처님 시봉하면서
스님과 함께 암자를
운영하실 보살님
찾습니다
031)532-6661

행자님
모십니다
017-476-0506

운전기사 모집
사찰에서 거주하면서
가족같이 불심으로
같이 있으실 분
▷50~60세이하
02)577-0007
031)673-5502

역학 수강생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홍천
033)436-6611

칠석기도 · 백중기도
해드립니다
(비구니)
▷기도스님이 필요한
사찰에서는 연락바랍니다
019)357-50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신심있으신 분)
▷ 전북 정읍 성불암
063)536-4247

행 자
모 십 니 다
▷고졸이상, 40세미만
▷타종단스님 개종환영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후원함
02)917-3363

공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충북 영동 관음사
043)743-2456
011)820-12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하
017)476-0506

기도하실스님
모십니다
▷신라 도선국사
기도터임
※ 상황버섯을 필요하신분 문의 바람
011)-9025-2240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충주 호암사 진여원
043)851-6013

봉고기사
구합니다
▷ 숙식하실분
051)542-4630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 화 사 · 법 명 : 혜법
· 주 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풍이 맞지않아
대한불교 법왕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5월 28일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등록말소 공고
· 사찰명 : 보 경 사 · 법 명 : 성 화
· 주 소 : 경북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1182
위 사찰은 대한불교 본원종에서
사찰 등록 말소를 공고 함
불기 2547년 6월 18일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명리학 수강생모집
⊙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방위 · 적성 · 기타
⊙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출장강의도 가능함)
⊙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료후 부업, 개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배우실 분 수시모집,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명리 교육원
02)336-8484. 335-4847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특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항아리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경전을 중심으로수행과 신행을 중시한 대학
대한불교조계종
대원불교대학 · 대원정사
주 지 일 화
회 장 법 공
후원회장 서원경 합장
강 의 : 매주 화요일,목요일
(주,야)주 1회 수업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 27
TEL 062)571-4004, 6789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사람을 찾습니다



· 성함 : 범윤균 · 성별 : 남
· 나이 : 56세 키 : 165cm
·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떤스님이 모시고 가셨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 후사 : 200만원 사례하겠음
017-653-1077
011-9723-1043

氣 수강생 모집 功
中國秘傳十八代傳人 직접 지도
▶ 개강 : 6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 수련시간 : 오후 5시~7시 (2시간) 시간조정가능
▶ 치료병행 : 각종 남어 난치병 (중풍, 당뇨, 신경통 등)
▶ 초능력 개발
▶ 고급 기공 비법을 선별하여 전수합니다.
접수문의 : 02)935-2728 / 017-208-2866
위치 : 상계역에서 마을버스 484번 종점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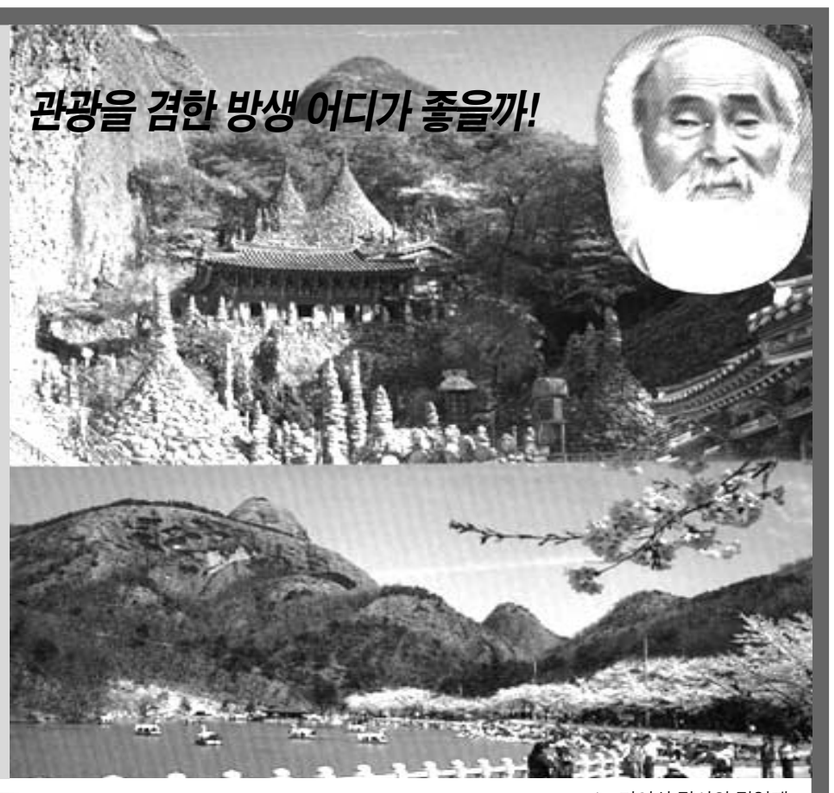
道法(易) 전수
인간사 모든 문제들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고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 치유는 물론
運을 좋게 할 수 있는 道法(易法)을 전수합니다.
易. 氣功 교육원
02)3446-4118

동양학 수강생 모집
고금의 역학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본원에서 다음의 동도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강좌를 개설합니다.
◆개강일자 : 7월 1일(주1~2회 강의)
◆강의실관계상 각 과목당 12명만접수
⊙ 태을 : 무료 강의 - 엄태문선생 (교재구입시 1년 강의)
⊙ 풍수 : 월 10만원- 허정수 선생 (6개월과정)
⊙ 명리 : 무료강의- 엄태문 선생 (3개월과정)
⊙ 육효 : 월 10만원 - 소명호 선생 (3개월과정)
역학도서관 www.edoseo.com
02)3673-3403 / 011-229-2801

이화기와공장
청기와. 한식기와
세멘기와. 칼라함석
041)554-0112 / 011-9820-0112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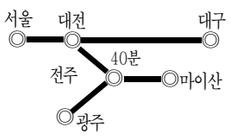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2003 5·6

특별기획 시리즈 '생명' 5 – 연재를 마치며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나
불확실성의 시대인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명 일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또 불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
현대사회와 생명문제 일반에 대한 이해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는가
– 생명에 대한 근원적 이해
해외자료/생명 연구, 어디까지 왔나
– 서양 불교학자들이 보는 불교 생명윤리

미국에서 본 미국불교 – 미국인 불교수행자들의 불교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미국 불교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포교하자
대부분의 미국인 불자들은 스스로 "불자(Buddhist)"라고 부르는 대신에 "선수행자 (Zen Buddhist)"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재 미국 불자들의 불교관이다.

집중진단/불교계의 기부문화 현주소
불교경전에서는 기부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고, 동 · 서양 문화의 차이에 의한 기부문화 양태와 통계를 통해 살펴본 불교계의 기부 실태를 점검한다.
불교경전에서는 기부를 어떻게 보나
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잘못된 오해
불자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실태와 발전방향

윤창화의 근대 불서 출판이야기
출판과 서점을 병행한 만상회(卍商會)와 안진호 스님

현장 속으로/이것이 '고엔카지 지도 비파사나 10일 코스'다
"어떻게 확실한 수행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참가자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신선했다고 평한 우바킨 · 고엔카 전통의 비파사나 수행 10일 코스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한국불교계가 이 수행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한국불교에 던지는 수행 화두
고엔카 지도 비파사나 10일 코스, 어떻게 진행되나
미니 인터뷰/ 보조법사 조지 시아오 선생

연극 속에서 만나는 불교
세익스피어의 잔혹 사극 '타이터스 앤드러니커스'가 보여주는 인과응보의 메시지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구례 화엄사 효대(사사자 삼층석탑과 석등)
은빛 여우의 슬픈 노래

격월간 불교와 문화 02-719-1855 www.kbpf.org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논산 / 법 당 : 20평 / 요 사 : 100평 / 부 지 : 713평 / 가 액 : 3억5천
- 위치 : 대구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42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7평 / 요사 : 27평 / 부지 : 555평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시설비 : 6천5백만원
- ※ 삼존불+약사여래+지장보살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 도시가스 시설완비

02)444-395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성북구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11억
- 위치 : 용인 / 부지 : 2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0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 진 불 사 02)723-4082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 / 부지 : 1000평 / 법당 : 8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40억 / 주차시설 및 산세좋음
- 위치 : 강원도 문막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4억 / 계곡 및 산세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광주시 무등산 입구
- 수려한 자연경관
  등산객이 하루에 수천명 다님
  백일기도 10만원씩 1만집 확보
- 대지 : 200평
- 법당 목조기와 25평, 요사채 방 7개
- 삼성각 10평, 미륵대불 10m, 법종 500관
- 소중한 인연을 찾는 양대훈스님

011)609-3016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대포동
  서울서 45분거리
  이천시내서 5분거리
- 2010년 전철 완공
- 대지 : 188평, 법당 23평,
  요사 37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142-3737
031)634-2136

사찰 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특징 : 잘 지은 절
- 가액 : 3억 3천만원

011)226-2880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새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 찰 안 내

- 위 치 : 창원 동읍 / 대 지 : 205평 / 법 당 : 15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1억3천
- 위 치 : 포항근교 / 대 지 : 22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75평 / 가 액 : 10억
- 위 치 : 부산근교 / 대 지 : 2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3억

※ 마을 상단, 차 진입
※ 세계유명불상사찰
※ 범어사에서 20분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 좋음
- 3층 건물 중 2층, 실평 50평
- 법당, 큰방3, 거실, 주방, 샤워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7백만원(시설완벽)

043)272-014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 남한산성전철역부근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0평, 방1, 도시가스
- 삼존불, 부처님 3분, 후불, 신중
- 보증금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 7백만원

031)732-0471
016)265-2762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000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 7천만원

011)531-1334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
011)598-8673

秘傳 大六壬 역학 전수반 모집

인간사 길흉 적중률에서 神의 경지인 역학위의 최고 역학!
미국 하버드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도 연구중임 六壬學
집중 책임지도(기초에서 고급활용까지)

고 려 육 임 학 회

· 서울지회 : 02)826-0179
· 대구지회 : 053)641-2334
· 대전지회 : 042)525-3880
(011-588-5496)
· 인천(부천)지회 : 032)655-7853
· 부산지회 : 051)783-6049
각 지역은 가까운지회에 연락요망

사 찰 (토 굴) 안 내

- 위치 : 신림동 / 부지 : 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2평 / 가액 : 5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18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북고령 / 부지 : 200평 / 법당 : 36평 / 요사 : 170평 / 가액 : 4억2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 방 불 사 011)9851-5952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주군 상북면
  언양터미널에서 7분거리
- 대지 181평, 농지 200평, 총 400평
- 임법당30평, 요사채 20평 1동
- 건물 완공 2년
- 특징 : 수려한 야산에 정남향
  8m도로접, 교통 편리함
- 가액 : 2억 6천만원
  불교집기및 생활집기 포함

011)9544-099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보건소 앞
  롯데백화점에서 200M
  떨어져 있음
- 2층 건물에 2층
- 크기 : 54평
- 가액 : 2천만원, 월 6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51)552-7828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390
- 대지 : 400평, 밭 700평
- 임야 : 약 200평, 총 9900평
- 법당 1개(기와), 아랫채 2동
- 가액 : 1억(가격 절충)

055)366-1619
054)833-4789(안내)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호계역 1분)
- 법당 : 약 30평
- 삼존불 . 후불탱화.
- 방1. 공양간. 세면실겸샤워실1
- 가액 : 1천만원
  (시설비 일체포함. 시설완벽)

011)9208-4984
017)402-4984

사찰수련원양도 안내

- 대구 동구 송정동 당정마을(팔공산 파계사 西3km)동대구역 20분 2차선 포장도, 주변 30~40대 주차가능
- 토지 : 대지 210. 재소밭 110. 합 320)
- 건물 : 목조형 기와. 철근 콘크리트조. 2002년 11월 준공
  1층 - 객실방 3칸, 큰거실, 중앙계단실, 응접실, 내실, 주방, 부엌, 욕실, 보일러실(심야전기, 기름보일러 겸용)
  2층-법당, 수련실, 복도, 주지실 방 2칸, 거실, 욕실
- 특징 : 요산요수, 수려한 자연환경, 앞에시냇물.
  뒤는 竹林병풍. 확트인남향. 한폭의 동양화.
- 가액 : 현장답사후 결정(개인사정상 부득양도)

053)983-9933

소승은 연령관계상 장래사찰운영이 걱정되어 사심없고 진실된 비구니 스님에게 사찰을 인계코저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 자격 : 40대 비구니로서 동양철학에 관심있는분
※ 참고 : 재정이 건실하고 재산은 약 10억정도

041)337-634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부경찰서 뒷편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대로변 4층 중 3층
- 평수 : 25평
- 가액 : 전부 6백만원
  (보시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읍니다)

055)884-0208
011)866-737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5층 건물 중 2층
- 평수 : 50평중 법당 25평
- 방, 주방, 창고, 최고급 A급시설, 지하 주차장 완비
- 살림 집기 일체구비.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5천만원 들었으나 인연있는 분께 3500만원에 드리겠습

011)9329-7769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대지 : 150평
- 구옥 2채
  (수리하면 좋은 토굴)
- 가액 : 2천만원

041)753-429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창선
- 대지 : 500평
- 법당 1, 요사채 1
- 가액 : 8천만원

055)854-2195
055)854-6365
011)579-416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수욕장 옆
- 평수 : 55평. 법당 1, 주방 1, 방 4, 화장실 2
- 주차장완비, 포교당위치 최고A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상담후 결정
- 스님 사찰 불사관계로 이사감

011)595-1522/051)759-905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 500평. 실평수 약 전평
- 임법당 30평, 목조황토기와.
  2002년 11월 완공
- 계곡과 산세가 수려함. 온양 15분거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IC 5km 지점 2006년 완공예정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집기일체포함

017)479-7879
041)857-905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거리)
- 대지 : 200평
- 법당 30평(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기와) ● 요사채 : 30평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공양간 : 15평(현대식 입식)
  ※ 주방 별도로 있슴
- 가액 : 1억 3천만원

052)294-7025
052)293-7025
019)292-7025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 임야 17,600평중 준농림지 4,300평
- 특징 : 계곡물이 흐르고 2차선도로접. 용문산 자락임
- 가액 : 평당 3만원

017)420-22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105번종점(바닷가 옆)
- 대지 : 507평
  법당 (2층), 28평(1층) , 방 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2억 3천만원(조정가능)

011)609-1106
011)9611-2717
야간 : 062)529-271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인접
  APT단지 밀집지역
- 4층 건물중 2층
- 가액 : 5천 2백만원(시설 깨끗함)

051)524-8108
011)597-670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앞 갓바위)
- 건물(조립식 2층) : 법당 13평
  요사채 40평
- 대지 : 513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조용한 곳

011)807-2355
053)983-3889

사찰 최적 토지 안내

- 익산시 함라산 동남향 웅덩이 모양
- 면적 : 약 2만 8천평
- 지목 : 임야
- 번지내까지 차량 진입가능 자연경관 최상
- 사찰, 실버타운, 종교, 납골묘원등등 가능 지역임
- 평당 : 2만~3만원

건물 대지 안내

- 사찰, 암자, 종교단체 휴양시설 적합한 건물및 토지매매
- 고개정상의민가와떨어진 수행장소 최상
- 통나무집 4채 대지 1,129평 건평 110평
- 연락처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063)855-2005
016)605-0074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內
- 대지 200여평, 건평 53평
- 법당 24평, 방 4, 주방 식당 13평, 화장실
- 가액 : 전세 2억(절충가능)

* 최근 신축한 단아한 목조건물 임.
단양 금수산에서 수행 정진하는 관계로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조용하여 수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02)745-6939 / 011-244-208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대로변 2층 건물 2층
- 평수 : 80평(옥상사용 가능)
  주차시설 완비
- 법당 40평. 방4개. 주방, 욕실
- 보증금 1억3천만원(달세가능)
  (시설비 절충)

051)294-0818
011)551-171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버스 종점 뒤에는 산
- 대지 500평
  법당, 찜질방 1개, 방 2개
- 가액 : 1천 5백만원

017)854-2428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소재지
  대구, 구미, 김천, 칠곡 중간지점
- 임법당 20평, 연꽃연못 100평
  정원 밭 200평, 합 320평
- 옆산 2000평 사용가능

017)813-9126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선화동 도청 정문앞
- 법당 25평, 삼존불. 시설완비
- 큰방4개, 주방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절충 가능)

042)223-0677
011)9725-319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 (종무소, 주지실, 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51)517-1860/016)444-5758

사찰 안내

- 대지 60평, 건평 55평
- 방6개, 화장실2개, 욕실, 주방2개
- 교통 최고. 시내버스 종점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011)9357-5677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전철역 10분. 버스종점 5분거리
- 대지 : 38평, 사용실평수 45평
- 임법당, 주변녹지 경관아주좋음
- 가액 : 1억 2천만원

016)481-6909 (주인직접)

사찰 (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4거리 남부시장 입구
- 법당 : 60평, 방1, 부전실 1개 공양간 1개, 세면실 겸 샤워실1개, 삼존불, 시설완벽
- ※ 시장입구에 있어 포교에 최적
- 가액 : 6000만원
  (시설비 일체 포함)

02)2645-2445
02)2648-244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하남시
- 평수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방4개
- 보증금 3천만원, 월 6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1)715-6333

사찰 및 주택겸용 안내

- 위치 : 수원도심 ● 대지 61평. 2층 건물
- 법당 25평 2층, 요사채 25평 1층
- 도심속의 포교의 전당. 아늑하고 조용한 주택단지
- 가액 : 1억 5천만원(조금받고 양도할 생각입니다)

031)252-5659 (정심행 보살 사찰)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에서 영월사이
- 산좋고 물좋고 경치좋은 소백산 밑
- 대지 : 780평, 전답 : 1570평. 합 2350평
- 평당 가액 : 38000원
- 사철터까지 도로 진입 가
- 주인보살 직접. 답사후 절충가능

043)648-6422
011)9408-642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양산시청에서 3분거리
  터미널에서 5분거리. 시장인접
- 크기 : 2층 60평
-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후불탱화
- 방3개, 부엌, 거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권리금 3200만원

019)447-7771
055)385-0868

사찰 (급) 안내

- 매입자 및 사찰운영자 구함
- 행정수도예정지 인접
- 서울서 1시간 거리
- 경부 IC에서 5분거리
- 전통사찰 건축 양식
- 주변경관수려(관광지 인접)
- 가액 : 8억원
- 사찰운영자는 절충하여 결정

011)9134-6723

포교당 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4층건물중 3층 30평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방1, 주방,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집기포함 2천5백만원

011)9852-8386
051)782-9386

사찰기도터 (급)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있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011)742-5925 / 043)422-1666

목어

투기성 치부의 후유증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A: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주택 신청을 하여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좋은 층에 당첨이 되었다. 당장 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1억 원 정도는 간단히 남길 수 있을 거란다. 15년 직장생활하며 뼈 빠지게 저축하여 모은 돈 전부 합쳐도 1억이 안될 것 같은데….

B :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A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대 주상복합 신청을 하더니, 로얄 층에 하나가 당첨되었단다. 갑자기 살맛이 없어져 버렸다. 열심히 일하며 차근차근 모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디 큰 거 한탕 할 궁리나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투기성의 치부가 남기는 결과…. 그 결과는 그러한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의 삶도, 그 주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망치고 만다. 모든 사람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한탕주의가 판치게 만든다. 돈을 노린 극악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원인도 결국 여기에 있다. 거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자꾸 벌게 되어 있는 구조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나날이 증폭시킨다. 어디로 보아도 부동산 투기 등의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 겉으로는 방법을 문제 삼는 것 같지만, 가만 살펴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주장에 가깝다. 그런 규제를 확대하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협박(?)까지 나온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보면 내가 어디 이상한 세상에 와 살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참 이상한 사람이네. 돈 번 사람의 삶도 망친다는 게 말이 돼?"하는 조소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힙합에 피어난 연꽃 내음

가수 엠시 스나이퍼의 2집 '초행'에서 힙합과 불교가 만났다. 사찰음악과 붓다의 자비로움을 일깨우는 음악이 포함된 앨범은 이미 엠넷(m.net) 가요차트 10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있다. 나이 많은 종교로만 인식돼 온 불교가 젊은 층에 다가서는 방법으로 연예계 진출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 엠시 스나이퍼의 팬클럽 카페를 보면 불교신자가 아니지만, 음악이 좋아 불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글이 있을 정도다.

장군죽비

새만금 사업위해 개종, 웬말인가?

전북 김제지역 불자들로 구성된 김제시 불교연합회가 새만금 방조제 문제와 관련 개종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불교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김제시 불교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라면 삼보일배가 아닌 일보일배도 결행할 수 있다"며 "불교계가 우리의 바람을 계속 저버린다면 개종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불자 세상보기

윤세원
인천전문대 교수

외교술과 불퇴법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보여준 일련의 외교적 행보에 대하여 굴욕외교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일본 방문 후에는 다시 '등신외교'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는 일본 방문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한 후유증이며, 국내의 비난여론은 우리 국민들의 대일 감정과 일본의 교묘한 상황 연출이 맞물려 있는 것 같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일 정상 외교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 미래지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마도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공간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과거사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총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본 틀을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위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변 4강 외교의 핵심과제로 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외교 행위가 국민감정의 카타르시스 행위가 아닐진대, 차라리 과거는 그냥 존재하는 역사로 두고 새로운 미래의 개척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것도 자존심은 상하지만 하나의 실리적인 비전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외교란 어차피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행위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부재는 총론적 당위성을 상당 부분 훼손하였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필이면 현충일에 이루어진 일본 방문, 그리고 TV 화면을 통하여 전달된 일본 국왕과의 만찬 광경은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묵념을 올린 국민들의 대일 감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미숙성의 상징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 피해 당사국의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본의 외교적 결례이며 오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일 궤도 위에서 최근 북한 때리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한 회담 후의 공동성명에서 '추가적 조치'와 '더욱 강경한 조처'라는 이전의 표현보다는 온건한 '북한이 사태 악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으로 정리된 외교적 성과도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된 악재들이 빛을 바래게 하고 있다. 또한 비켜간 과거사에 대한 국내 여론의 역풍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도진에게 미리 배포한 일본 국회에서의 연설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게 했다.

필자는 대통령에게 외교나 국방은 내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7불퇴법을 알려주고 싶다. 성공적인 내치가 외교역량의 기반이요,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가르침은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실성을 갖는 혜안이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 조정의 터무니없는 대응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 보기를 간곡히 권하고 싶다. 또한 타성과 전통에 자신의 논거를 의존하고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고답적인 의리와 명분론으로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좌절된 후 민족이 겪은 두 번의 대 참화를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마당

현대불교를 읽고 / 붓다뉴스 게시판

■군법사 수적열세, 종교정책 땐 소외

김태윤(서울 관악구 신림동)

후세인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십자군전쟁(?)에 한국도 서희부대를 파견하는 등 일조를 하고 있다. 멀리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에게 종교만큼 의지처가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파견 장병들의 수만큼이나 종교도 다양할 텐데, 어찌 군 목사 1명만 파견한 것일까? 모두 개신교로 개종하라는 국방부의 취지인가?

■방송 불교비하 여전, 적극 대응해야

ID: 'sosa' (붓다뉴스 자유게시판 중)

얼마 전 KBS 2TV '폭소클럽'에서 개그맨 배동성씨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캐스터네츠와 트라이앵글, 목탁이라며 불교를 비하해 웃음을 유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진짜 악기를 배웠다며 기타를 들고 나와 노래를 부르더군요. 불교를 하찮은 말장난의 소재로 삼다니 분개할 노릇입니다. 이뿐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불교비하 발언이 나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런 모습들을 수수방관할게 아니라, 공개사과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슈거리와 기획기사 절실

김영원(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가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사의 질적 만족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슈거리와 기획을 많이 다뤄 여러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불교신문이 교계의 소식을 다룬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점에 얽매이지 않고 불교적 시각으로 사회의 현황과 모습을 조명하는 불교적 색체를 띤 신문으로 모습을 탈바꿈했으면 한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됐을 때 일반인들도 현대불교 신문을 통해 유익한 기사와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다.

■사회문제 외면말고 자비 베풉시다

배준호(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얼마 전 한 미혼모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하기 위해 불가에 있는 복지단체를 찾아다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결국 그 미혼모는 그런 시설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가톨릭과 기독교 시설에서 개종을 하면 그녀를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미혼모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해야 할 불가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거두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하기를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불교계가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으면 한다.

■바르고 명확한 내용담은 교재 시급

한상호(서울 용산구 청파동)

나는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불교외의 종교 즉 기독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초, 중, 고를 거치면서 교과서에서 접한 내용이 전부다. 아마도 나와 반대로 불교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 일거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까지 불교 관련 내용이 잘못돼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설사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명확한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들려는 노력도 시급하다.

독자투고

뉴욕에 한국불교가 있는가?

미국에서 불교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불교도 미국에서 인기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착각이다. 현재 뉴욕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미국의 최대 불교잡지인 <트라이시이클>은 일본과 남방불교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쓴다.

내가 있는 뉴욕에는 뉴욕 조계사, 정명사, 한마음선원, 불광사, 도선사 등 10곳이 조금 넘는 한국 사찰이 있다. 그러나 백림사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주택을 개조한 일종의 '포교당' 스타일의 절이다. 불광사와 한마음선원을 제외하고는 10명 남짓한 노신도 만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한국 사찰의 현주소다.

이는 한국스님들의 마케팅 실패다. 한국 사람이 뉴욕에 이

한국사찰 10곳 남짓, 시설·인력 미흡
체제정립 실패와 주입식 포교 문제

민 와서 종교에 상관없이 교회에 흡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속감'이며, '동포 만나기'나 영어를 못해 주류사회에 끼지 못하고 돈버느라 고단한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는 '집합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스님들은 이러한 장소도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이미 많은 사찰이 있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만 절을 지으려고 한다. 또한 미국에 맞는 불교 체제를 정립하지 못하고 한국불교만의 특징을 각인시키지도 못한 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포교를 하고 있다.

단순히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외우고 108배를 하는 법회가 아닌, 무언가를 남겨주는 법회를 마련한다면 미국 내 젊은 한인들과 미국인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ID: '뉴요커', 붓다뉴스(buddhanews.com)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출신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대실 박사팀)이 황삼 EX를 개발하였습니다

항암효과 산삼보다 70배 높아

KBS(9.30 뉴스)



산삼 성분 만든다(2003. 04. 09)

皇蔘 황삼

특허출원 제 2000-59857호



산삼은 잊으십시오. 이젠, 황삼입니다!

천단 유전공학 및 효소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탄생시킨 황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과학기술이 이루어낸 생명공학의 쾌거입니다. 생명공학으로 캐낸 산삼 - 황삼과 함께 건강 백세의 꿈을 이루십시오.

- 산삼능가하는 항암효과 "황삼 EX개발"(매일경제 3월 27일)
- 산삼능가하는 항암물질 개발(한국경제 3월 27일)
- 항암효과 "황삼 EX개발"(한국일보 4월8일)
- 산삼능가 항암효과물질 "황삼 EX개발"(연합뉴스 3월 27일)

산삼과 황삼 진세노사이드 비교

Rb_1(13배), Rg_1(16배), Rd(23배)

◆ 수술 전후 환자분 ◆ 원기회복
◆ 수험생 노약자 ◆ 직장인 스트레스 받는분
◆ 면역 증강이 필요하신분
◆ 건강 장수를 누리고 싶은분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생명공학으로 캐낸 산삼!!

ILDONG 02)455-6944(代) 제조원 : 일동제약 식품사업부

HAMBAKJAE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 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산56)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가시오가피
러시아,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학의 제1인자인 안드류 와일 박사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뮌헨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자매품 함박재 토종오가피
함박재농장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1박스 100㎖ x 60포, 132,000원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으뜸상품 제3066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 2274-2191

필리핀에 뿌리내린 한국불교

불국사 포교당 유일한 사찰 봉사·이웃돕기로 전법 발판

법관 스님, 포교책자 제작위해 일시 귀국



◇법관 스님이 91년 화산 폭발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삐나뚜보를 방문,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에 한국불교를 뿌리내리기까지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한국에서 모셔간 불상을 끌어안고 우는 교민들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2000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 '대한민국 경주 불국사 포교원'을 개원한 법관 스님은 자비봉사와 구호활동으로 현지에 한국불교 뿌리를 내렸다. 법관 스님이 처음 필리핀과 인연이 된 것은 88년. 그때 스님은 카톨릭과 기독교 인구가 대부분인 필리핀에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다고 발원했었다. 그리고 10여 년 후인 2000년 스님은 마닐라에 포교원을 열고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교회만도 100여 개에 달하는 필리핀에 한국 사찰은 스님이 운영하는 불국사 포교원 단 한 곳뿐이다.

"처음 필리핀에서 포교 시작했을 땐 기독교인들로부터 협박도 받았고, 첫해 백중법회 때는 혼자 법회를 했다"고 법관스님은 초창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협박을 받을 때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들을 포용하면 언젠가는 불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원력하나로 버텼다. 교민신문에 광고를 내고 스님이 직접 전단지를 돌리며 한국사찰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자 법회 참석자는 늘기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과 초하루, 지장재일에 한국식으로 예불을 진행하는 법관스님은 현재 7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를 벌이며 부처님 법 전하기에 주력하고 있다.

> 초기엔 타종교서 협박·혼자 법회 봉행
> 주민 생활 열악… 생활용품 보내줬으면

매주 수요일은 마닐라 알라방에 있는 엘시가체 재활원을 방문, 정신지체아들을 돌보고, 매월 첫째 월요일에는 91년 화산 대폭발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삐나뚜보를 방문해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관 스님은 "한국 불자들이 헌옷이나 헌 냄비 등 어떠한 것이라도 후원해 준다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 봉사활동 외에 매년 8월에는 현지인과 교민들이 함께 하는 백중법회를 열어 불우이웃 108가구를 선정, 쌀, 옷, 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연말 크리스마스에는 타종교인들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한다. 이 같은 필리핀 불국사 포교원의 봉사활동과 이웃과 함께 하는 법회는 마닐라 대학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법관 스님은 "마닐라 근교에 사찰을 지어 불법을 널리 펴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전화: 필리핀-847-803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 개최

인각사, 청소년 백일장·학술세미나 행사

삼국유사의 산실 경북 군위군 인각사(주지 상인)가 제3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를 6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3개월간 펼친다.

인각사와 일연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 3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는 6월 21일 전국 초중고생 청소년 백일장, 7월 12일 삼국유사 국보지정 기념 산사음악회, 8월 5일 일연성사 제714주기 추모 다례재와 삼국사(정덕본) 영인본 간행 및 봉정식, 9월 4일 일연 삼국유사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7월 15일 마감하는 삼국유사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이 8월 5일 열린다.

인각사 주지 상인스님은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를 통해 우리 역사와 민족의 얼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의성노인복지관 1주년 포크댄스 등 축하공연

경북 의성군 노인복지관(관장 탄하)이 개관1주년을 맞아 11일 기념식을 가졌다. 의성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법요식과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2부 복지관 소속 노인회원들의 포크댄스와 장구 연주, 영주 장애인복지관 수화공연, 포항 관음사 진여합창단과 얼뿌리 민속놀이단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박원구 기자

도원 스님 초청 수요법회 불교TV 대구지사

불교TV 대구지사 법당 무상사가 11일 조계종 원로의장 도원 스님을 초청 첫 수요 대중법회를 열었다. 도원 스님은 "모든 불자들은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행정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무상사는 6월 25일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7월 9일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스님을 초청, 매주 수요일 법회를 개최한다. 문의 (053)527-0108 박원구 기자

스님·수녀 몽골초원 달렸다

국제우정마라톤대회 나란히 참가


스님과 수녀가 몽골의 광활한 초원을 달렸다.

사단법인 한·몽 문화교류진흥원(대구 수성구 범어동)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개최한 제1회 몽골 국제우정마라톤대회에 한국의 스님과 수녀가 나란히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한몽 수교 13주년을 기념하고 2003 몽골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몽골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열렸으며, 대구 능엄선원 삼현스님, 벽종사 승범스님, 현승스님과 함께 대구 파타마병원 수녀 3명이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몽골정부 훈장을 받은 삼현 스님은 "천주교나 기독교 등 타 종교는 이미 여러해 전부터 몽골에 진출해 각종 교육사업과 의료지원 등을 벌여오고 있는데 불교는 아직 이렇다할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교계에서도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구 기자

경주시민들이 문화재 보존보다는 관광 사업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소장 오영석교수, 이하 연구소)가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대학생 100명을 포함 경주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 문화재 보존보다 관광개발 더 희망
> 경주시민들 대상 조사

연구소측은 "문화재 개발정향 평균값이 5.52로 문화재 보존정향 평균값 4.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경주시민들이 관광자원의 보존보다는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원구 기자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상량식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지원장 혜문)이 6일 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은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 한마음선원 전국 각 지원장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상량의례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스님은 상량문 봉독에서 "본래 공하여 텅 빈 것이 법당의 참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법당은 포항시 우현동 500여 평의 대지에 연면적 392평,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천재지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초산유원지 규탄 대규모 법회

통도사 영축환경위, 공사 즉각중단 촉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영축환경위원회는 27일 양산시청앞에서 위락시설단지인 초산유원지 조성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규탄법회를 연다.

영축산 환경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수행환경 파괴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대규모 위락시설인 초산유원지 건립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고 27일 학인스님, 신도회, 청년회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법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통도사 기획국장 시공스님은 "이미 진행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의 허가만 내주지 않는다면 공사를 허용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았으나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산시는 "이미 음식점과 숙박시설 허가가 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며 기존안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초산유원지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미희 기자

월드컵대회 기념제작 만다라괘불 회향 법회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이 25일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제작한 만다라 괘불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만다라 괘불은 77일간 일반인 친견과 증명 절차를 거친 뒤, 점안의식과 복장봉안 법회는 8월 15일 진행된다. 문의(055)382-1001 천미희 기자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6월 2째주, 4째주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옮기지를 못하고 작고 가벼운 경험담만 허락을 받아 옮기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중에서 토굴 수행을 하시고 계신 보명스님.

경기도 어느 산중에서 토굴 수행을 하시고 계신 보명스님은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하시던 이틀째 되던 날 새벽, 파동명상요법으로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되었다. 스님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공을 초월한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 공간에서 스님은 평소 스님과 인연이 있던 신도들과 영적인 친견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남편의 미친듯한 심한 도박과 카드 빚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른 어느 신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 신도에게는 결혼 전후로 많은 중절로 인한 낙태령들의 원망이 사무쳐 있었고 또한 그 신도의 남편은 전생에서 일제시대(1937년경)때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죄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한다. 그때 너무나 원한에 사무치며 죽어갔던 여자 한 명(소복한 여자)의 영혼이 현생에서 그 남편에게 빙의(태중빙의)되어 그 집안을 몰락의 시간 속으로 휘몰아쳐 가고 있었다고 한다. 스님이 그 상태에서 의념으로 그 영혼들을 천도하고 제령하게 되었는데 그 후, 그 남편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바뀌어 노름에 손을 끊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막 피기 시작한 천안상록리조트 연꽃.

7~8월엔 전국이 '연꽃바다'

전국각지서 어느때보다 풍성한 축제

봉원사 뜰앞서 수반연꽃, 서울선 처음
강화 선원사 연잎차·연식품 맛볼기회
천안 상록리조트 350종 연꽃 한자리에

올해 전국 각지에서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연꽃 축제'가 마련된다.

신촌 봉원사는 7월17일부터 8월15일까지 대웅전 앞마당에서 수반에 연꽃을 담아 전시하는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연꽃축제 기간동안에는 연꽃 사진전도 함께 열며, 주말에는 영산재 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02)392-3007

강화 선원사도 봉원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연꽃축제를 연다. 선원사 건너편에 조성된 연못에서 7월16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되는 '논두렁 연꽃축제'는 연꽃을 활용한 연잎차와 식품 등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032)933-8234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무안백련대축제'도 한여름 더위를 '연꽃 바다'로 식혀준다. 8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연꽃수궁전' 무용공연, 행다시연 등의 문화행사도 곁들여진다. (061)450-5226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도 6월29일부터 9월21일까지 리조트 내 광장에서 '제1회 세계 연꽃축제'를 연다. (041)560-9132

대전 엑스포도 1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6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엑스포 공원에서 '한여름 세계 연꽃축제'를 개최. (042)866-5131

전북 정읍시도 피향정(보물 289호)앞에 조성된 3천평 규모의 연못에서 '제6회 연꽃문화축제'를 8월중 개최할 계획이다. (063)535-5141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우리 절 우리 신도

세보살 원력 선원 구석구석에…

대구지장선원 신도회 신정자, 박성미, 신재일보살

저잣거리음악회 '그늘'에서 뒷바라지
수년간 동고동락…자매처럼 격려·충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지장선원. 언제라도 지장선원 법당에만 들어서면 '지장보살'을 일심으로 염송하는 신도회장 신정자(대각심, 67, 대구 효목동), 부회장 박성미(여래성, 61, 대구 만촌동), 총무 심재임(여래심, 46, 대구 신천동) 세 보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세 보살이 절에 출근(?)하면 제일먼저 하는 일은 공양간 소임이다. 공양주가 없는 탓에 부처님 전에 올릴 사시마지 준비와 함께 주지 지공스님의 세끼 공양도 이들 보살들의 몫.

이뿐 아니라 스님의 승복을 깁는 사소한 일부터 새로온 신도들의 기본교육에까지 세 보살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특히 신도회장 신정자 보살은 지병으로 9년째 거동을 못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40여년을 몸담은 교직생활도 접었지만 매일같이 절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는다. 일상의 크고 작은 고(苦)를 말끔히 날려버리고 지혜를 얻게 하는 기도의 힘은 집안에서는 물론 절 대소사에서 왕성한 실천과 봉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동구시장 내 지역 상인들을 위한 제1회 저잣거리음악회를 개최했을 때도 세 보살들의 드러나지 않는 정성과 행사 뒷바라지가 빛을 더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 보살들은 시장 내 상인들의 장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 직접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열성을 보였다.

이렇게 절에 나오면 한시도 쉴 틈이 없지만 수년간 고락을 같이한 세 보살은 친자매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격려와 충고로 얼굴엔 웃음을 잃지 않는다.

"보통 지장신앙이라고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천도하는 그런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장신앙은 현세의 업장소멸을 중심으로 하는 현세공덕의 신앙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건네는 전법의 말에서 세 보살들의 기도 정진의 힘과 전법사로서의 원력이 그대로 묻어난다. 박원구기자



◇세 보살들이 현대불교신문을 펼쳐놓고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추천의 말

지공스님 지장선원 주지

미안할 정도로 봉사 열심

우리 신도회 세 보살님들은 절 일만 솔선수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불교대학에서 열리는 강의를 들을때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할 정도로 경전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이해심과 포용심도 넓고, 너무 열심히 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어떤 때는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수행하는데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조계종 제주교구신도회 창립

초대회장에 김승석변호사 위촉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교구에 신도회가 창립됐다.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는 지난달 31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불교교육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사 법주 중원 스님 등 본말사 주지를 비롯해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초대 신도회장에 前 한라불교신문 사장을 역임한 김승석 변호사(55)를 위촉했다.

김승석 회장은 "제주지역 본말사 신도회와 수직·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불교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행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안에 범종단 신도회 연합체인 '제주지역불자신도회'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홍영선 관음사 신도회 부회장, 고윤권 제석사 신도회장, 이화철 월라사 신도회장, 이기백 관음정사 신도회 부회장, 김기호 불탑사 신도회장, 강원일 보덕사 신도회장, 김무성 봉림사 신도회장, 김희정 고관사 신도회장, 강창현 연화사 신도회장, 고동일 월성사 신도회장, 홍성봉 월인사 신도회장 등 11명의 본말사 신도회장이 제주교구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김주일기자

전북서 새불교문화재 466점 발견

조계종, 14개시군중 9곳 조사 끝내

전북지역에서 불교문화재 466점이 새로 발견됐다.

전북과 제주 지역에서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 문화부장)은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김제, 익산, 완주, 남원 등 9개 시·군의 조사를 마친 결과 조계종이 자체 파악했던 1,243점보다 약 35% 늘어난 1,709점의 불교문화재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진행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해마다 5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새로 확인된 불교문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불상 등 불교조각이 203점으로 가장 많고 서지 149점, 불화 60점, 서예·현판 34점 등이다. 지역별 전체 문화재 수는 완주(331점), 남원(252점), 김제(247점) 순으로 나타나 금산사, 송광사, 실상사 등 큰 사찰이 있는 지역에 문화재가 역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단장 탁연 스님은 "정밀 조사를 거쳐 학술적·예술적·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는 국가·지방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절터 사이버 체험

경기문화재단, 사이트 개설

양주 회암사지와 여주 고달사지의 문화와 역사를 인터넷상의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문화재단은 12일 '경기도 문화유산 가상현실 체험 사이트(vrkg21.net)'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 고달사지와 회암사지 코너에 들어가면 실제 모습과 가상으로 복원한 사찰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복원사찰의 모습은 3D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또 다산 정약용 코너에는 묘역이 있는 경기도 광주 천진암과 유년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수종사를 볼 수 있으며, '효 및 실학애니메이션' 코너에서는 효 근본도량 용주사를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김원우기자

줌마민족탄압 중지하라

JPNK, 방글라에 촉구

줌마민족네트워크 한국지부(Jnmma People's Network Korea, 이하 JPNK)는 12일 이태원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JPNK는 이날 성명서에서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극단적인 인종주의 정부가 줌마민족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과 방글라데시 정착민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학살, 강간, 방화, 토지탈취 등의 모든 인권 침해행위를 그만두고 치타공 산악지대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특히 JPNK는 "방글라데시의 주류민족인 벵갈리족이 90% 이상이 불자인 줌마민족에게 종교적 박해를 가하고 있다"며 "줌마민족의 완전 자치독립과 이슬람 선교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철우 기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德雲스님의 동양의학 강좌

사암도인의 活人法!!
『德雲 스님』의 열정적인 강의

"동양의학의 정통" "건강 지킴이"
동양의학방송국에서 『사암도인 "活人法"』을 알리는데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德雲 스님" 오랫동안 연구, 발전해온 사암도인 "活人法"을 공개강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펼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 궁금하신 분 많은 도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강 좌 안 내

** 개 강 **
2003년 7월 2일부터
(2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6시간 : 방제학 (한약처방 강좌)
* 매주 수요일 6시간 : 진단학
*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 오후7시-9시)
※ 화요일 (침구학 이론과 실습) : 무료수강

덕운선원 / 동양의학방송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7-3호 / 사당역 11번 출구에서 5분거리
동양의학방송국 : (02) 3487-2311
홈페이지 : www.dytv.co.kr

요통(腰痛)의 동양의학적 고찰

그동안의 덕운선원과 동양의학방송국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과 동양의학을 접해보지 않으셨으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요통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의학, 한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뜻깊은 동양의학 고찰의 장" 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 시 : 2003년 6월 28일 토요일
▶시 간 : 오후 1시 ~ 5시
▶장 소 : BBS 불교방송 대법당(다보빌딩 3층)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출구
▶일 정

시 간	내 용	강 사
1교시(13시 ~ 14시)	요통에 관한 총론	교 수(덕운 스님)
2교시(14시 ~ 15시)	요통원인 및 증상 치료법의 분류	교 수(덕운 스님)
3교시(15시 ~ 16시)	요통에 관한 약물학적 치료법	강사(한약사 박정아)
4교시(16시 ~ 17시)	사암 오행침을 통한 요통 치료법체침 및 일침법을 통한 요통 치료법	교 수(덕운 스님)

덕운선원 / 동양의학방송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7-3호 사당역 11번 출구에서 5분거리
동양의학방송국 : (02) 3487-2311
홈페이지 : www.dytv.co.kr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꿈의 요람'으로

봉은사, 내년 1월 개관



◇2004년 1월 개관하는 지하3층 지상6층 규모의 역삼청소년수련관 조감도.

연건평 2,134평의 매머드…10월23일 완공

수영장·인터넷실·소극장 등 각종 편의시설

새싹학교 운영 등 216개 프로그램 준비 한창

서울 강남 한복판 역삼동에 청소년 포교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봉은사(주지 원혜스님)와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스님)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청소년수련관 공동 위탁자로 선정됐다.

흥사단, 한국기독교장로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위탁 신청을 한 가운데 최근 열린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봉은사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위탁신청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얻었다.

2004년 1월 개관하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건평 2134평의 매머드 시설로 10월 23일 완공예정이다. 건립비용만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대규모 수련관이다.

역삼동내 10만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수련관은 수영장, 체력단련실, 식당, 자료실, 인터넷실, 자치활동실, 멀티미디어교육실, 다목적실, 음악실, 특별활동실, 공연연습실, 소극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봉은사는 수련관을 청소년 기본법에 입각한 수련시설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3년 강남구 청소년 욕구조사를 검토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파악 및 그 대안을 마련한 봉은사는 역삼청소년수련관에 216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특히 청소년 상담실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청소년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을 위한 '새싹학교(가칭)'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봉은사는 업무지원팀, 목적사업팀, 수익사업팀, 특화사업팀의 조직을 갖출 예정이다.

한성우 청소년수련관장 내정자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이 21세기를 여는 청소년들의 꿈의 요람, 신바람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운영에 있어서도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과 인적자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봉은사는 이에 앞서 1999년 4월 서울시로부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모범적인 운영으로 지난 해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1세기형 청소년문화 전형으로"

인터뷰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사회복지사업, 점차 서울전역 확대

파라미타와 협조 다양한 활동 전개

▲어렵게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은?

"그 동안 사회복지 사업이 활발하게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신도님들과 외호해 준 종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남불교사원연합회 및 파라미타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위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년에 걸쳐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역 내 주요 사찰과 연합하여 청소년 포교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청소년포교사업 전형을 마련한 성공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관내 각종 청소년 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 21세기를 여는 청소년들의 꿈의 요람, 신바람의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합니다.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구로서 어울리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21세기형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흐름에 앞서가는 청소년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지스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봉은사의 사회복지사업이 보다 활발해졌다고 평가하는데요.

"제가 취임하였을 때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인 봉은사는 그 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사업의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하는 보살의 삶의 한축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남구내에 있는 선우어린이집, 연화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했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전개하고 있는 작은보시 큰자비실천운동이 호응이 큰 것 같습니다.

"작은 보시 큰 자비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밑반찬 배달사업 그리고 무료진료를 하는 등 지역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실이 청소년 복지사업인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복지사업과 포교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입니까?

"봉은사는 강남뿐 아니라 서울 한강 이남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그 사격에 맞게 1차적으로는 강남지역, 2차적으로는 인접한 서초,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등 주변 지역, 3차적으로 서울지역까지 포괄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강남사원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포교활동과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봉은사에서 주최한 '장애인 나들이' 행사.

사회복지와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는 강남 봉은사는 1996년부터 '작은보시 큰자비실천운동'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돕기', '각종 재난시 기금모금',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을 펼치고 있다.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은보시큰자비실천운동'은 신도들이 저금통을 분양받은 후 1개월에 1회씩 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강남내 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매주 2회씩 진행하고 있다. 30여명의 봉사팀으로 구성된 밑반찬배달사업은 매주 화, 금요일 반찬을 직접 만들어 독거노인 가정으로 배달하는 일을 1회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 강남구 관내에서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복지도량 거듭나는 봉은사

사회복지·포교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

'작은 보시 큰 자비 실천운동' 큰 반응

또 3월 4일 구성된 '봉은사 사회복지위원회'는 무료진료, 무료급식,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활동을 체계화, 구체화하고 있다. 강남구 26개동 신도 대표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는 발족식 후 강남구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수서동 50세대를 선정하여 쌀을 전달했으며, 선재의료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진료사업은 현재까지 186차에 걸쳐 내과, 한방과, 치과 등 2만여명의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무료진료사업은 1999년 5월부터 소외된 이웃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위원회는 최근 봉은사 조실 석주큰스님이 운영하는 온양 보문복지원 안양원(노인복지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봉은사에서 '보문복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유치해 전액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우란분절 49일 지장기도 봉행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올리는 이 작은 등불 하나가 먼저가신 조상님들의 왕생극락 인도하는 등불 되게 하시고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올리는 이 작은 등불, 등불이 모여 유주무주 일체 고혼들의 천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성 인로왕보살이시어 오늘 올린 등으로써 모든 인연영가들을 인도하는 빛으로 삼으소서.

오는 8월 12일은 우란분절(백중)입니다.

이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져 고통 받는 어머니를 위해 덕이 높으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그 법력으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시게 하신 날로, 미혹에 빠져 거꾸로 매달린 듯 고통 받으며 악도를 해매는 수많은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려 봉은사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7대 조상, 친족 및 이름도 받지 못하고 사라져간 태령, 유주무주 모든 인연 영가들을 위하여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우란분절(백중) 49일 지장기도에는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49분들께서 각 재 마다 동참 하시어 금강경을 독경하시며 장엄한 지장기도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모든 인연영가들에게 새로운 천도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효심이 불심의 근본임을 생각하시며, 나로 인해 비롯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의 원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천도재일정

입재 : 6월 25일(수) **초재** : 7월 1일(화) **2재** : 7월 8일(화) **3재** : 7월 15일(화)
4재 : 7월 22일(화) **5재** : 7월 29일(화) **6재** : 8월 5일(화) **막재** : 8월 12일(화)

별도의 기도비 없이 영가등 접수만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각 재마다 합동천도재를 지내드리며, 대웅전 앞마당에 등을 올려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종무소 접수처 ☎ 3218-4000

봉은불교문예대학 수강생 모집

강남구 삼성동 위치한 봉은사에서는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문예 기초 및 창작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각 강좌별로 문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선생님을 초빙하여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사 및 강의시간

분 야	강 사	강의시간	장 소
시	민 영(시 인)	매주 수 오후 3시 - 4시 30분	동법당
소설	안장환(소설가)	매주 수 오후 4시 30분 - 6시	동법당
수필	한상렬(수필가,평론가)	매주 월 오후 4시 30분 - 6시	동법당
아동문학	신현득(아동문학가)	매주 월 오후 3시 - 4시 30분	동법당

▶특 전 : 강의 기간동안 제출된 우수한 작품 문단에 등단기회 부여
봉은불교문학상 제출 자격 부여
봉은문학회 회원 자격 부여

▶분 야 :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등 4분야

▶개 강 : 6월 16일 월요일 – 3개월 과정

▶수강료 : 9만원

▶입학식 :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 보우당

문의 : 봉은사 포교교육팀 (☎ 516-5652, 3218-4815)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군인들에게 자상한 부모이자 불법을 만날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해주기 위해 뭉친 선재사랑회. 8일 경기도 양주군 26사단 군법당인 호국 황룡사를 찾은 정순진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미나 총무(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선재사랑회 회원들이 장병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포장하고 있다.

떡볶이 300인분 만드는 재미 아세요?

따뜻한 음식먹이려 새벽장, 밤샘포장 부지기수

군포교 앞장서는 '선재 사랑회'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그 지극한 정을 그리워하는 군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상의 짐을 일찍 지게 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모임이 바로 '선재사랑회(회장 정순진)'다.

'작은 힘이지만 평생을 이어나갈 봉사활동'을 서원하며 1992년 창립한 후, 주위 사람들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선재사랑회 회원들은 지난 10년간 알토란같은 사연들을 가꾸어 왔다.

선재사랑회를 탄생시킨 정순진(57, 법명 원만성) 회장은 1992년, 철원의 한 사찰 법회에 참석했다가 법당이 비좁아 군인들이 밖에서 법회를 보는 모습을 보고 군포교를 결심하게 됐다. 군인들에게 합장주를 나눠주는 일로 시작한 군포교 활동은 주위 사람들의 참여로 1사단, 28사단의 군법당을 찾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악바리'라 불릴 정도로 억척스러운 정 회장은 1997년 8월 경기도 양주군 26사단 내에 군법당인 '호국 황룡사' 건립과 98년 화재로 훼손됐던 불무리 부대 사단 법당인 일월사의 재건립을 지원했다. 또 2000년에는 21사단 신병교육대 법당인 강원도 양구 도솔암 건립을, 2001년에는 의정부 9200부대 법당 재건축을 지원하기도 했다.

"군인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 병영생활을 더욱 알차게 하도록 돕고 싶어서 군법당을 찾는다"는 정 회장. 그같은 열성 덕분인지 정 회장 곁에는 항상 뜻을 함께하는 도반들이 있다. 안양에서 3시간을 달려 군법당을 찾는 김미나 총무와 선재사랑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윤창분 보살을 비롯한 25명의 회원들은, 그들의 표현처럼 처음엔 참 '무식하게' 봉사활동을 했다.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매주 새벽시장에 나가 떡이며 어묵을 사와 법당 앞에서 300인 분의 떡볶이를 만들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삶은 계란 350개의 껍질을 벗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법회 전날이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200여 장병들에게 나눠줄 사탕과 초코파이를 밤새 포장한 날도 부지기수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해 겨울 새벽, 떡과 과일을 잔뜩 준비한 선재사랑회 회원들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길을 나섰지만 부대로 가는 진입로가 차단돼 장병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길을 돌아 나온 이들은 인근 경찰서와 고아원을 찾아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기도 했다.

군법당 법회가 일요일이다 보니 회원들 대부분은 가족들의 대소사를 마다하고 먼 길을 달려온다. 심지어 을지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노 박준수 씨 부부는 군대에 간 둘째 아들의 면회날에도 선재사랑회 회원들과 함께 군법당을 찾았을 정도다.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달라지는 군포교의 현실. 불자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한달에 한번 수계식 … 큰 보람 느끼는 날

'사탕보살'로 불리는 윤현자 회원은 무료급식소 활동과 이동목욕봉사활동, 장학회 운영 등을 두루 거친 베테랑 봉사활동가. '사탕보살'이란 별명은 그가 항상 군법당에 올 때 마다 개인적으로 사탕을 준비해 오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복을 비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윤 보살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참진리를 만나게 해주는 일로 생을 회향하고 싶다"고 말한다.

26사단 군법사인 해륜 법사는 "선재사랑회 회원들은 군법당을 '잠시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절처럼 여긴다"며 "비라도 오는 날이면 혹시 비가 새지 않는지 전화해서 확인할 정도"라고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불사에 앞장 서 온 선재사랑회는 26사단 사단장 감사패와 군승단장 감사패, 군불교위원장 감사패 등 많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있는 훈장은 바로 불자 장병들 수계식 모습이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수계식 때 마다 새롭게 발심하게 되고 군포교의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선재사랑회 회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금은 '선재사랑회'라고 하면 군포교단체로 인식될 정도로 군포교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결코 넉넉하진 않지만 매달 회원들의 회비가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의 꿈도 함께 여물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696-066068-02-101 예금주 선재사랑회(정순진)

글= 여수령 기자
사진= 고영배 기자

월성스님지음 | 336면 | 신국판 | 8000원 e-mail | ltbooks@hanmail.net 주소 | 대전 동구 중동 9-61번지 TEL | (042)221-8114, (02)747-2114 FAX | (042)255-7209
「행복한 삶을 가꾸는 출판사」
㈜웃는나무 LAUGHING TREE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불가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월성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혹은 일상 생활의 우스개,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의
일화와 비유를 동원하는데 그것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데, 그 충격이 우리의 삶과 사고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 정순진교수(문학평론가)

차례

1장. 그건 돌소에게 물어봐
1. 뭇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 뿔을 뽑아 버려라
3. 바보가 좋다
4. 미녀는 재판에서도 이긴다
5. 본색도류의 보물
6.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7. 남자들 것도 보고 싶다
8. 불길한 징조란 없다
9. 만약 부처님이 올빼미라면?
10. 구름에 달 가듯 스쳐만 가라
11. 생각하지 마라, 미쳐 버린다
12. 행복하게 사는 법
13. 장자부터 죽여라
14. 망할 놈의 도
15. 싸움에 이기면 사랑을 잃는다
16. 여자가 최고!
17. 스님도 울어요?

2장. 그건 스님도 몰라
1. 아이고 스님! 더 어렵네요
2. 스님도 고기 먹나요?
3. 욕심쟁이 스님들
4. 욕쟁이 스님들
5. 중은 사람이 아니다
6. 바로 말하면 벗으리라
7. 인간들 사는 꼴이라니
8. 알음알이
9. 달마 더럽다 더러워
10. 아악! 스님들 왜 이러나?
11.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12. 스님! 왜 출가했어요?
13.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
14. 이상하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니
15. 여인의 몸을 보고 싶다.
16. 일류 인간
17. 선과 악
18. 스님 점치러 왔는데요

3장. 그건 딸깍 새가 알아
1. 친구에게
2. 부처님! 저 스님 나빠요
3. 참회! 그 성스러움으로 가는 길
4. 독단부재의 시대
5. 진리는 현실 속에 있다
6. 무상은 속물들이 쓸 말이 아니다
7. 부처는 길을 가르칠 뿐
8. 일체유심조가 뭐야?
9. 그대는 왜 부처가 아닌가?
10. 지장보살은 지옥 갔다
11. 그러면 부처 아니네 뭐
12. 망상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13. 오늘밤 패지 않으면 안 된다
14. 용과 뱀-성인과 범부
15. 늑대사자의 본성
16. 부처도 막지 못한 길
17. 포대화상의 보물보따리
18. 야인마(夜人馬)
19. 감사행의 비밀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전화 : (042)252-7208 · 팩스 : (042)255-7209 · 책은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릴레이 수행일기 〈下〉



양성홍

대영E.B.Z상사 대표이사

삼천배 후 좋은 인연 맺고 매사 자신감 생겨

법회, 포교활동 통해 무주상보시 배워 감사

봉은사에서 백팔배도 하기 힘든 다리로 삼천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도 그 때는 사업도, 건강도 원만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었다. 막내인 나를 위해 지성으로 기도하시고 남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에도 망설임이 없으셨던 어머님 생각도 절절했다.

한 번, 두 번…. 옆자리의 도반들이 서너 번 할 때, 나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인 것 같았다. 남들이 못하여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만과 아집으로 그동안 살아온 내 자신을, 온전치 못한 이 육신을 날이 밝는지도 모르고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부처님께 던지고 있었다. 완쾌할 수 없다던 이 다리로 삼천배를 하다니….

뒷날 사시가 되어서 나는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이 가쁜한 몸으로 땀을 닦으며 대웅전 계단을 내려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팡이 없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손등을 꼬집어보면서 대웅전 앞에서 탑돌이를 하고 있었다.

그 후로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신도회 활동을 하면서 좋은 도반들과 많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다. 삼천배를 세 번이나 한 나 자신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도반들과 함께 갖가지 법회를 통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진정한 무주상보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하여 그동안 배운 불교교리를 다시 정리하며 능인선원, 봉은사, 조계사 등 교리강좌나 설법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면서 군법당과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보람도 얻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니 실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했기에,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 포교사 품수를 받고 많은 도반들과 함께 포교사단에서 포교를 수행으로 여기며 부단장이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천배 하는 인내와 금강경 독송하는 환희를 한 곳으로 모아 포교사단에서는 5분야에 150개팀이 포교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어렵게 먼 곳에서 행복을 구하려고 했던 자신이 60고개를 눈앞에 두고 보니 부끄러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집 앞의 정원처럼 펼쳐져 보이는 관악산 봉우리와 마주하며 산행을 한다. 하루의 시작이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한 발자국씩 옮기는 기도가 사무실 내 책상까지 연속된다.

밤 11시에는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마무리하며 행여 누구에게 소홀하지나 않았는지를 돌이키며 하루를 보낸다.

발밑에 채여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조용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반기는 이 없어도 활짝 웃고만 있는 풀꽃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더 배우고 싶다.

태백산에 국내외 위빠사나 수행자 모인다

연방죽선원 수행자들 봉화에 '담마나라' 설립



◇6일 경북 봉화의 숲속 수행터에서 열린 '담마나라(dhammaloka)' 설립 기원법회에서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과 산다와라 스님, 연방죽선원 아눌라 스님(중앙에서 좌측으로 앉은 순) 등 50여 불자들이 〈자애경〉을 독송하고 있다.

"그의 아픈 곳이 나아지기를, 그가 늘 안전하기를, 그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찬란한 햇빛에 쌓여 빛나는 모습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그려내세요. 미소를 머금은 평온한 모습으로…."

6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태백산맥 자락 해발 700m의 산속 수행터에서는 국제수행센터인 '담마나라(dhammaloka)' 설립을 발원하는 야단법석이 열렸다. 곧은 나무들이 원시림처럼 둘러싸인 곳에서 50여명의 불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미얀마선원 원장 산디마 스님과 연방죽선원 지도법사 아눌라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자비관을 수행했다.

아눌라 스님은 자신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 채 자비의 기도를 행할 것을 지도했다. 이와 함께 동참한 인연들 서로가 좋은 벗이 되어 수행터가 모든 수행자들의 안식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발원했다.

연방죽선원(원장 법주스님)이 임야 3천여평에 설립하는 '담마나라'는 7월말 30평의 명상홀 건립을 시작으로 남, 녀 숙소와 식당, 세면실 등을 갖춘 수행처로 조성된다. 8월부터 1주일 단위의 집중수행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세계적인 고승을 초청해 국제수행센터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초청 예정인 스님으로는 스리랑카의 은둔 고승인 나냐난다 스님과 스리랑카불교출판협회장 비구 보디 스님을 비롯해 미얀마 파옥명상센터 원장 파옥 스님과 〈여름에 내린 눈〉의 저자 우조티카 스님 등 대표적인 위빠사나 수행지도자들이다.

내년 보디 스님등 세계적 고승 초청계획

철저한 수행,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운영

연방죽선원 수행자들이 뜻을 모아 건립하는 담마나라는 철저한 수행위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전기 시설 등 편의시설은 최소한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3개월 이상의 안거수행을 실시하는 등 전문 수행처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공부한 지도법사 아눌라 스님 등의 영어 통역으로 외국인 수행자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방죽선원 원장 법주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운영하는 담마나라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수행자들이 언제나 마음 놓고 찾아와 정진할 수 있는 국제수행센터가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02)334-1763

김재경 기자

여름 나기는 전문수행처가 "딱이야"

사찰수련회를 여러 번 경험한 불자들은 참선, 위빠사나, 선무도, 요가, 동사섭법회 등 보다 전문적인 수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전문수행처에서 수행하며 여름을 이겨보자.

◆홍천 금강선원 선문장=7월 13~16일(3박4일), 7월 28~31일, 8월 4~7일 3차에 걸쳐 '참선수행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혜거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수련회'를 연다. (02)445-8484

◆충남 공주 도학사=17일부터 연중 무휴로 참선, 위빠사나, 태극선공(실전무술) 등을 닦는 산중수련회를 연다. 수행과정은 2박3일, 3박4일, 4박5일 및 1개월 등 다양. (041)857-0830

◆천안 호두마을=16~22일 상임지도법사 혜연스님의 위빠사나 집중수련회, 27~29일 정원 법사의 경전공부 시간을 갖는다. 2박3일간의 주말 위빠사나 수련회, 6박7일간의 집중 수련회도 계속 연다. (041)567-2841

◆전주 동사섭법회=7월 24~29일, 8월 6~11일, 8월 15~18일 논산 삼동원에서 동사섭법회를 연다. (063)227-1000

◆남양주 봉인사=미얀마 우 예인다까 스님을 초청, 16~25일 9박 10일간 위빠사나 수련회를 연다. (031)574-5585



◇호두마을(아래)의 집중수행 모습.

◆양평 소리산참선캠프=매 주말 호흡에 맞춰 절하기, 참선, 독경, 행선, 위빠사나, 업장소멸 진참회 등을 지도한다. (031)771-7745

◆명상아카데미 오대산수행처=22~27일 오대산 수행처에서 '깨달음의 길' 정규수련회를 연다. '행복한 삶을 위한 명상'도 20~23일 연다. (02)598-7180

◆경기도 광주 봉곡선원=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주말 철야정진 선방을 열고 있다. 인천 용화사 전강 스님의 상좌인 정석스님이 참선과 선체조를 지도한다. (031)765-7094

◆경북 영양 연화사=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박2일간 '관(觀) 수련회'를 연다. 정기 수련회는 7월26일~8월1일(6박7일), 8월15~17일(2박3일) 열린다. (054)682-7770

◆문경 정토수련원=6월 18~20일, 7월 2~6일, 8월 6~10일 늘 깨어있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깨달음의 장' 수련회를 연다. (054) 571-603

◆경주 골굴사=1주, 2주, 1개월 과정 등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선무도 화랑수련회를 연다. (054)745-0246

◆창원 서원사=매주 토요일 참선, 기공, 다도, 포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주말수련회를 연다. (055)291-6405 김재경 기자

'영원한 대자유인' 개정판 낸 강정진 법사



13세에 수행을 시작해 45세에 무(無)자 화두를 타파하고 돈오견성했다는 법기회 강정진(70 · 사진) 지도법사. KBS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선객〉 방영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 법사가 자신의 구도 과정과 수행 중 난관을 넘어서는 방법을 설명한 〈영원한 대자유인〉(궁리) 개정판을 펴냈다. 97년 8명의 서울대생들이 불가에 귀의한 계기가 된 이 책은 1993년 출간된 뒤 절판됐다 이번에 다시 나왔다.

가짜 선지식 출현, 수행불교 위기 일갈

강 법사는 이 책에서 가짜 선지식들이 출현해 현재의 수행불교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일갈한다.

강 법사는 "수행자는 수행단계에 따라 관법, 염법, 의심법 등의 수행법을 달리해야 한다"며 "반드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쉽게 돈오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남북방 불교를 비판 종합하고 돈법(頓法)과 점법(漸法)의 핵심을 밝혀 정법을 드러내고자 애썼다. 그는 〈금강경〉 해설서도 출간할 계획이다.

(051)516-9104 김재경 기자

제 3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어린이를 부처님처럼…』(신나고 재나는 우리절 짱!)

1. 일 시 : 불기2547년 6월 21일(土) 오후2시 ~ 22일(日) 오후 3시
2.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02-511-6070
【교통편 안내】 지 하 철 :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도보 10분
3. 교육내용 Sing in Game
찬불가 I – 권장 찬불가로 불교학교를...
찬불가 II – 신 찬불가와 율동
풍선장식
몸풀기 체조 및 Rec Dance
Game(New Sports)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촛불의식
4. 참 가 비 : 일반 40,000원 / 회원 30,000원 / 군종 및 제주도(도서벽지)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代), 739-4967(본회 사무국) FAX. 02-738-7863
http://cafe.daum.net/burec (본회 다음 카페)
※ 준비물 : 이불(큰타올),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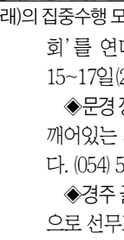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뢰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세균번식 억제)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눈이 맵거나 목이 아프지 않으며
- 마음을 편한하게 해준다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고
-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불쾌한 냄새, 흡연실 담배냄새 제거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넣은 천연재료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합시다.

☎02) 538-7161

http// : www.hyangga.com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조끼·몸배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 모직(울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하복 적삼·조끼·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어르신들 웃음꽃에 어깨춤 절로

"♪♬생신 축하합니다♪"



매달 독거노인 생일잔치 4년째

일심동체로 내세우지 않으며 봉사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칠순, 팔순, 구순을 맞아 잔치 준비에 분주하던 정다운회 회원들이 축하 노래와 율동으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바라밀현장

정다운회의 '효심불심'

"♬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5월 26일 부산 용호복지관 2층 강당에서는 케익, 과일 등이 풍성하게 차려진 잔치상 앞에서 생일축하 노래가 울려퍼졌다. 생일상의 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관 유치원생들의 재롱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이날은 칠순, 팔순, 구순을 맞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잔치여서 기쁨이 더했다.

이른 아침부터 복지관을 찾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딸처럼, 며느리처럼 꼼꼼하게 생일 잔치를 준비한 보살들은 정다운회 회원들. 벌써 4년째 매월 생일잔치를 열고 있다. 99년 정다운회가 결성되면서 처음 마련된 생일잔치는 이제, 매년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생일의 기쁨을 되찾아 드리는 뜻깊은 잔치가 되었다.

"혼자 외롭게 사시니까 생신 날은 더욱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밥이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자고 시작하게 된 거죠." 배인숙 총무는 한사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부끄러워했지만 정다운회가 마련한 생일 잔치는 독거 노인들에겐 생일을 되찾아 준 특별한 선물이자 외로움을 달래는 따스한 사랑이었다.

그러나 처음엔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생일상 차리랴, 선물 준비하랴 어려움이 많았다. 각자 떡이나 음료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시장보고 음식 준비하는 것까지 무엇하나 수월한 게 없었다. 그러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면 가게 문까지 닫고 달려오는 정다운회 보살들의 지극함 때문이었는지, 지금은 후원도 늘어나고 식당에서 생신 맞은 분들을 초대해 대접도 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의 마음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일 잔치를 하게 된 것이다.

동명불원 대불합창단에서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 발심했던 정다운회는 처음 10명으로 출발, 지금은 9명이 활동하고 있는 작은 모임이다. 회장은 없고, 편의상 총무라는 직책을 두었지만 모든 회원이 봉사에 임하는 열성은 여느 모임의 회장보다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일심동체로 어르신들의 자식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회원들의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음이 척척 맞아요. 회원들 마음이 하나가 되니 힘든 줄 모르고 조금 더 정성껏 하자는 생각 하나뿐이죠." 봉사 날이면 가게는 자동 휴무일이 되었던 서명옥 보살은 이제 가게를 그만두어 마음 편히 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정다운회의 보살들은 정이 많다. 세상에 나누어줄 사랑, 웃음, 행복이 많은 회원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청소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릴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언젠가 나도 늙잖아요? 조금 젊은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인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임경이 보살의 말은 정다운회 보살들이 들려주는 불이(不二)의 가르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흥정은 서툴지만 기쁨은 최고

운문사학인 스님들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염주 등 소장품 2천여점 전시 판매

불자, 관광객 반응좋아 수익금 '쏠쏠'



◇6일 운문사 학인스님들이 바자회에서 서툰 솜씨로 흥정하고 있다.

"보살님 이건 해와 달을 뜻하는 월성염주예요. 싸게 드릴께요."

"꼬마손님은 이쪽으로 오셔서 사탕드세요."

6일 비구니 수행도량인 경북 청도 운문사에서 결식아동을 돕기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운문사 학인스님들이 직접 나서 점심을 굶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 1년에 단 한번 여름수련대회 외에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던 운문사 만세루에서는 이날 예외적으로 염주전, 다구(茶具)전, 불서전, 선서화 부채전 등 작은 불교용품점들이 들어섰다.

만세루의 바자회장에는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 주지 흥륜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던 염주, 불서, 녹차, 다기 등 2천여점의 불구용품들이 판매됐다. 특히 스님들이 직접 그린 선서화로 만든 부채와 스님들의 애장품인 난(蘭)화분, 목아박물관 박찬수 관장의 목불상 등은 바자회장을 찾은 불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운문사 승가대 일원스님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밥을 굶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스님들이 해 줄 것이 없나 고민하다가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보자는 생각에서 바자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운문사 학인스님들은 이날 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우선, 인근에 위치한 금천초등학교의 결식아동을 돕는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지역 복지관 등과 연계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계획이다.

운문사=박원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아웅산 수지 (上)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미얀마인들은 자비를 전하고, 실천하며,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아웅산 수지의 'Shambala Sun'과의 인터뷰 중에서)

'비욘드 랭군'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여의사가 남편과 아이를 사고로 잃은 뒤 미얀마로 여행을 갔다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총과 칼을 든 군부대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서는 한 여성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웅산 수지(66, Aung San Suu Kyi) 여사다.



◇3일 아웅산 수지 여사의 재구금(아래)에 대해 항의하는 한국내 미얀마 인.

최근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다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5월 30일 수지 여사가 참석한 대중 집회에서의 유혈 충돌을 이유로 그를 다시 구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지 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비폭력 민주화 운동으로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의 간디'로 불릴 정도로 세계인의 존경받는 불자다. 정치인으로서 종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수지 여사는 자신이 참된 불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자세가 군사정부의 탄압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나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 불자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때문에 불교를 나 자신의 가치관과 분리해서 설명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삶이 곧 참된 불자가 되려는 몸짓이었으니까요."(1996년 1월 'Shambala Sun'과의 인터뷰 중에서)

수지 여사는 2002년 5월 자택 연금에서 풀려난 이후 이틀간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평소 존경하던 우 위나야(U Winaya) 스님을 만나뵙기 위해 양곤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카렌 주에 있는 타마냐 산을 참배했다. 그는 오랜 가택연금 생활로 친견하지 못했던 우 위나야 큰스님을 뵙고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함께 개인적인 신행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아웅산 수지는 1945년 6월,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독립영웅으로 칭송받는 아웅산 장군(General Aung San)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미얀마 독립의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이라는 후광도 있지만, 군사 독재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바친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지 여사는 15세 때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영국인 교수 마이클 아리스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아 기르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그러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1988년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민중들의 반독재 시위와 이를 잔학하게 탄압하는 군부의 폭거를 목격한 후, 그대로 민주화 투쟁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투쟁은 88년 8월 8일 군사정권의 발포로 수천 명이 사망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아웅산 수지는 그때부터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국에서 민주화를 위해 오늘날까지 독재정권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다.(계속)

김재경 기자

'미얀마의 간디'로 세계인의 존경 받는 불자

군부 독재와 타협 않고 민주화 위해 희생

제 17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H · O · S · P · I · C · E

호스피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生 · 老 · 病 · 死 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열반적정을 향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修行의 길입니다.

호스피스? 상구보리 화하중생 대승보살도의 텃밭입니다.

호스피스? 순수한 사랑과 자비를 창조합니다.

정토마을 호스피스 교육의 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교 육 안 내

◆ **일 정 :** 2003년 7월 6일 ~ 2003년 7월 13일 7박 8일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 **교육대상**
– 스님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선착순 남 · 여 25명 ◆ **연 령 :** 32세 ~ 65세
◆ **지 참 물 :** 사진 3장(반명함판),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슈리닝, 슬리퍼, 컵, 가사장삼(스님)
◆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원서마감 :** 2003년 6월 30일
◆ **문 의 처 :** 정토마을 사무국 TEL. 043) 298-2258(代) / FAX. 043) 298-1457
e-mail: jungtoh1@hanmail.net

아미타호스피스회 정토마을 원장 능행 합장

제 2 회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 · 교사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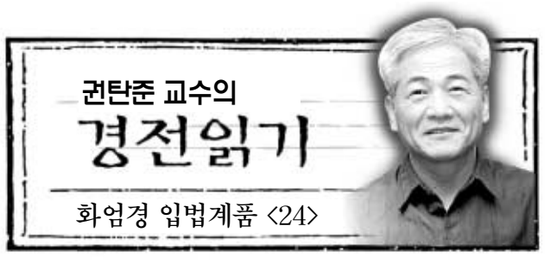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는 『불교 · 어린이 · 문화』라는 주제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기저를 둔 불교생태교육 및 정신과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유아의 불교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03. 7. 19(토) ~ 20(일)
■ **장 소 :** 동국대학교 부속 유치원(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 **강의내용**
● 사회변화와 유아교육의 과제(김종서 - 서울대학교 사범대 명예교수
● 일본 유아교육현장의 문화적 접근(陳省仁 - 일본 홋까이도대학 교수)
● 음악을 이용한 창의적 움직임 (나 정 - 한국교육개발원 유아교육팀장, 문무경 - 서울대학교 강사, 안소영 - 숙명여자대 강사)
● 유아를 위한 창의적 불교 미술문화 감상 및 창작 워크샵 (이수경 - 동국대 부속유치원 원장, 이주연 - 경인교육대 교수)
● 문화이해를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제작의 예(김옥민 -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강사)
● 유아 공교육 개념 및 유아교육법 안내(나 정 - 한국교육개발원 유아교육팀장)
● 신라 문화의 이해(김호상 - 동국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불교생태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이부미 - 중앙대학교 강사)
■ **접수기간 :** 2003. 6. 2(월) ~ 6.27(금)
■ **참 가 비 :** 69,000원(교재,교육재료,숙식 포함)
■ **신청문의 :** 054) 770-2533 ~ 35, 771-1020 ~ 1022
■ **홈페이지 :** www.donggukak.co.kr



동국대학교 부속 유치원



해탈 장자의 법문

미가로부터 남쪽의 주림(住林)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해탈장자를 찾아가서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선재동자는 그를 찾아 나섰다. 그를 찾아 길을 가면서도 선재동자는 법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보살의 경계를 항상 생각하였다. 그래서 서원이 견고해서 고달파하는 생각이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갖추었으며, 몸과 마음이 불법을 떠나지 않았다.

선재동자는 12년 동안을 걸어서 마침내 주림성(住林城)에 이르러 해탈장자를 찾았다. 그리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고백한다.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는데,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만나 뵈옵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을 내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갖추고자 하며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행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보살의 수행을 성취하고자 하며,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켜 모두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여, 저는 이러한 마음과 뜻으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원하옵건대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는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때에 해탈장자는 '모든 부처의 세계를 거두어 들여서 끝이 없이 회전시키는 다라니(普攝一切佛刹無邊旋陀羅尼)'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갔다. 해탈장자는 이 삼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청정한 몸을 얻었다. 그리고 그 몸속에서 모든 부처님과 그 국토 그리고 무수한 부처님의 갖가지 모습과 행적을 아무런 장애가 없이 볼 수 있었다. 저 여래께서는 갖가지 대중의 모임, 세간, 태어나는 길, 가족, 욕망, 업, 말, 근성, 번뇌와 버릇을 가진 중생들 가운데에서 작은 도량에 있기도 하고 넓은 도량에 있기도 하면서 갖가지 신통, 말, 음성, 법문, 총지문, 변재의 문으로써 여러 가지 불법을 말하였다.

부처도 내 마음도 실체없이 공한것
인연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선재동자는 해탈장자가 자신의 몸속에서 나타내 보인 이 모든 여래의 가르침을 듣고 몸에 지닐 수 있었고, 부처님들과 보살들의 부사의한 삼매와 신통변화도 볼 수가 있었다.

이 때 해탈장자가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래의 걸림 없는 장엄해탈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나는 삼매 속에서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과 그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들이 여기에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간 것도 아니다. 나는 안락세계의 아미타여래를 뵈오려 하면 어느 때나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저 부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그 곳에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나의 마음이 모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메아리와 같아서 실체가 없고 모두 공한 것이다.

선남자여,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보살은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닦아 부처님 세계를 청정케 하며, 묘한 행을 쌓아 중생을 조복시키며, 큰 서원을 내기도 하고, 온갖 지혜에 들어가 자재하게 유희하며, 부사의한 해탈문으로 부처의 보리를 얻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고,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선재동자가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의 경계를 실현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다면서, 가르침을 청한 것에 대한 해탈장자의 대답이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정한 모습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을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장애받지 않는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모습과 경계를 무궁무진하게 지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해탈장자가 삼매에 들었을 때, 그 삼매의 힘에 의해 청정한 몸을 얻고 그 몸속에서 시방세계의 티끌 수의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처의 경계와 마음의 경계는 결코 둘이 아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의 모습을 짓고 부처의 경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장자는 다음과 같이 선재동자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선남자여, 착한 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탱하며, 진리의 물(法水)로 자기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며, 모든 경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라.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며, 참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평탄게 하며, 지혜를 중득하여 자기의 마음을 결백하게 하며, 지혜로써 자기의 마음을 명랑하게 하라. 부처의 자재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개발하며, 부처의 평등으로 자기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며, 부처의 열가지 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살펴야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러한 여래의 걸림없는 장엄해탈문에 드나들 뿐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⑲

간화선의 교학적 기초

간화선의 자구적인 의미는 '이야기(話)를 본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란 선문답을 관통하는 핵심된 어구로서 화두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교학적인 측면에서 화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더구나 전혀 간화선의 기반이 전무한 보조 당시의 고려후기 불교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화된 교학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화두의 의미를 돈교와 비교할 수 있다. 돈교는 이름을 떠나고 형상을 떠난,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으로 정의된다. 이점은 화두의 기능과 유사한 면이 있다. 화두는 일체의 언설과 사유의 길을 끊어버리는 까닭이다. 그러나 끊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 끊는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끊는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돈교는 끊는다는 생각이 남아 있기에, 보조의 간화선에서는 돈교를 열 가지 병통의 하나로 치부한다. 이를테면 무자화두의 열 가지 병에서 '무(無)'를 절대의 무로 이해한 것은 바로 이런 병에 떨어진 것이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혹은 어느 쪽도 아닌 절대의 무란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다.

본래없는 '번뇌' 어떻게 끊나?

한편 '생각을 떠난다(離念)'는 <대승기신론>의 이해는 돈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형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순하게 생각을 떠난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부정되는 것은 번뇌이다. 일심 자체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해는 선종에서도 발견되는 견해이다. 그러나 '생각을 떠난다'는 기신론의 언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검토의 대상이다. 만약 번뇌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떠난다는 인위적인 행위로서 정당한 이해가 아니라는 비판이 역시 선종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 역시 이런 관점에 놓여 있다. 번뇌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 착각이며, 무상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끊는다는 전략은 정당한 정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떠나보낼 수가 없고, 무상인 대상을 끊는 것은 오히려 조용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두의 이론적인 기초를 물색하여 보면, 생각을 끊는다든지 떠난다든지 하는 돈교나 기신론의 교학적인 이해의 틀로서 해명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열 가지 선병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남에 있어 돈교와 기신론의 이해가 선종에서도 중요한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화두의 의미를 화엄원교에서 강조하는 법계연기에 기초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화엄의 법계연기는 간화선의 실질적인 기초이다. 대부분의 선승들은 화엄의 기초를 철저하게 배웠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였다. 설사 간화선에서 화엄을 배제한 듯한 발언이 없지 않지만, 결국은 참으로 법계연기를 체득하기 위한 궁여지책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종은 분명하게 화엄종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선종은 화엄의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하게 부처의 출현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바로 간화선의 실천체계이다. 다만 선교일치는 화엄교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불립문자는 연기설에 대한 부정으로 표출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상이 아니다. 철저한 교학적인 이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떠남도 역시 불가능하다. 법계연기에 더욱 철저하다면 역시 부처, 진리, 현실을 기피하지만 말고,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드러내고, 역사현장 속에서 개입해야만 한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마음의 주파수

<한마음 요전>에 의하면 마음은 미세하여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워도 물리적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음이 '에너지'라면 그것은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발표한 것인데 마음은 파동이기 때문에 마음의 종류에 따라 그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분노, 질투, 슬픔, 두려움,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파동 진동수와 명랑한 마음, 정직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등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의 진동수와는

心은 파동이기에 서로 공명하는 성질 소유
부정적 주파수, 인체 조직·장기에 질병 야기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파동이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 대역은 서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마음의 주파수는 첫째, 음식물 속의 중금속과 공명하여 중금속을 몸 속에 침착시키는 작용을 한다. 둘째, 빙의를 끌어들여 자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주시키는 작용을 한다. 셋째 뇌의 자율신경,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엔케팔린 및 멜라토닌 등과 같은 여러가지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 넷째, 인체에 말썽을 부리지 않고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휴면 상태의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진균 및 세균 등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섯째, 인체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마음의 부정적 파동이 파급되어 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부정적 마음의 파동은 인체의 각 조직 및 장기 중에서 비슷한 주파수와 공명하여 그 조직 및 장기에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이렇다. 노여움은 간, 담도 및 눈과 공명하여 간 질환, 담도 질환, 눈 질환을 야기한다. 걱정은 폐, 대장 및 코와 공명하여 폐 질환, 대장 질환 및 코 질환을, 지나친 기쁨은 위, 비장 및 혀와 공명하여 심장 질환, 소장 질환 및 혀 질환을 일으킨다. 공포는 순환 계통, 신장, 방광 및 귀와 공명하여 혈액순환 장애, 신 질환, 방광 질환 및 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마음은 에너지이다.' 혹은 '마음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풀이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최근의 문헌들도 고찰하였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말들을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일축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머지 않는 시기에 반드시 마음을 중시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측정하거나 마음을 찍는 장치 등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다음주 부터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수의학)가 '불교와 생명과학'을 연재합니다.



적운 스님과 함께 하는
선무도 주말 수련회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난, 맑은 공기 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속에서
내밀한 참나(眞我)의 세계가 열리고 연꽃의 향기가 코끝에 밀려듭니다.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기를 주고 싶은 분,
일상의 나른함과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함월산 골굴사의 '움직이는 선(禪)의 숨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 언 제 : 주말 정기 수련회 - 매주 토 일요일 - 1박 2일
* 골굴사 · 선무도 대학에서는 정부의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단기 체험수련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 · 토 · 일요일 - 2박 3일)
※ 대 상 : 10세에서 70세까지의 남 여, 내 외국인(초 · 중 · 고 청소년도 참가 가능합니다.)
※ 주말 정기회원의 동참금은 3개월 23만원입니다.
단기 체험수련회원의 동참금은 2박 3일에 6만원입니다.
※ 문의전화 : Tel. 054)744-1689, 745-0246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선무도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는 활인천역자 (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 · 기수련자 · 한의) 의 필수 비기서!

묻는 것은 항목별로 답이 써져있고, 매일 매일 한장씩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임래정비법

■ 수정보완본 2,500,000
■ 일어판 2,720,000
■ 육임강의록 上, 下 410,000
■ 육임휴대용 310,000
■ 육임신수비결 300,000
■ 육임비디오(28개) 900,000
■ 육임속성강의 1,500,000
(교재드림. 매주금요일 오후 5시 3시간)
■ 육임래정비법 CD 2,000,000

문의 02)993-8680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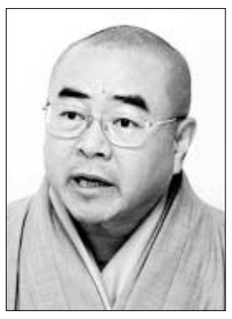
남종선의 개조 육조혜능 스님의 설법집으로 간주되고 있는 〈육조단경〉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선(禪) 수행으로 전개토록 선불교의 실천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선사상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문헌이다. 중국 당나라시대(790년)에 출현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은 이 책이 선불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저서인가를 알려준다.

'돈황본 육조단경'

성본 스님 역주

한국선문화연구원 / 1만8천원

선수행 체계 확립한 禪문헌



특히 금세기 초 중국 돈황에서 발견된 〈육조단경〉은 단경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으며 현재까지 5종의 돈황본이 학계에 소개돼 전하고 있다. 영국과 중국의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이 책들의 제목과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최초로 만들어진 〈육조단경〉의 원본을 필사해 유통된 것으로, 원초적인 형태를 제각기 유지하면서 전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자인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5종의 〈돈황본 육조단경〉을 서로 대조하고 새로운 교정본을 만들어, 이 책이야말로 최초에 만들어진 원본이라고 주장한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성본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은 육조혜능 스님의 구법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5조 홍인을 만나 법을 받으며 반야의 설법을 설하기까지의 과정과 법문, 혜능 스님이 남긴 게송들이 담겨져 있다. 모두 한문으로 쓰여진 선불교의 어록을 현대인들이 접하게 쉽게 하기 위해 상세한 해설을 이야기 형식으로 달아 놓았다.

책 말미에는 그동안 저자가 연구해온 〈육조단경〉에 대한 총체적 설명과 탄생배경, 저자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육조단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알기 쉽게 이야기식 해설

육조단경 탄생배경 등 수록

성본 스님은 "경전과 어록에서 전하는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때만이 불교적인 인격을 이룰 수 있으며, 중생 구제의 능력도 구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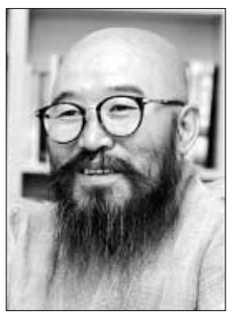
'선사들의 오도송'

무산 스님 지음

김영사 / 9천9백원

"마음이 생기면 만물의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무덤 해골물과 맑은 샘물이 둘이 아니로다."(원효대사). "물 속 달빛 허공에서도 볼 수 있으나 무심의 거울은 비추어도 항상 허공이로다."(백운선사). "천언만어의 경전들이 본시 하나의 빈 종이(紙)로다."(청허선사). "홀연히 콧구멍 없단 말을 듣고 비로소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경허선사).

"해골물·맑은 샘물, 둘이 아니다"



선지식들이 깨침을 얻으면서 내뱉는 오도송(悟道頌). 이 고귀한 노래들은 고행정진속에서 피워낸 한송이 마음의 '꽃등불'이기에 청풍납자들에겐 수행 지침서요, 사부대중들에겐 길잡이가 된다.

1천여년의 한국불교 역사에서도 깨달음의 세계를 구축한 선지식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원에서 참구하고 있는 오도송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의 선사들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지식들의 오도송은 '고사선(枯死禪)'이 되다시피 한 것이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선지식 37명의 행장과 70여편의 오도송을 모은 〈선사들의 오도송〉은 무산 스님(경주 해회선원)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20여년간 우리나라 고승들의 문집과 전기, 선종사 문헌들을 탐독한 후 이룬 결실이다.

이 책에는 신행, 동진, 원진, 원증, 일선, 제월, 청매, 편양, 환성, 상월, 취여 선사 등 진리를 찾기 위해 목숨 걸고 정진 한뒤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의 감로수와 같은 법음이 담겨져 있다.

삼국시대~현대 선지식 37명

행장·오도송 70여편 담아

어려운 한문이 많이 나오는 오도송들이라고 책장을 넘기기전부터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도송에 해석은 물론 일일이 한글로 음을 달아 놓았으며, 어려운 용어에는 반드시 말미에 자세한 해설을 붙여 쉽게 읽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설두·원오 스님 선문답 풀이

'벽암록'

정원 스님 역해

수미산 / 14만원

〈벽암록〉은 설두스님이 선적(禪的)내용을 담은 설화, 일사(逸事)를 100문제로 모아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운문 형식으로, 원오스님이 산문 형식으로 표현한 책이다.

원오스님은 영천원의 방장실, 즉 벽암실에서 '설두백칙송고(雪竇百則頌古)'를 애송하고, 자신의 선기(禪機)와 문장을 활용해 설두스님이 선택해 놓은 일백가지의 공안(公案) 머리에 비평을 쓰고, 공안과 송고의 각구에는 풍자적 단평을 내리고, 다시 그 공안과 송고에 비평적 주해를 덧붙였다. 말하자면 벽암실에서 쓴 선(禪)의 비평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선문답에 관한 일화가 많이 등장한다.



"어느날 조주스님이 투자(投子)스님에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돌연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자, 투자스님은 밤에 다시 살아난 죽은 사람이라면 유령일지도 모른다. 유령을 판별하자면 밤에 해서는 안되니 날이 밝은 다음날 정체를 아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조주대사저(趙州大死底)로 유명한 대목이다.

이러한 선문답은 우리가 망각하였던 정신세계를 단순한 한마디로 홀연히 크게 열어준다. 정원 스님(평심사 주지)이 해석은 물론 글씨까지 직접 쓴 〈벽암록〉은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알기쉽게 편집돼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마음으로 본 현실의 세계를 치열한 구도정신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왜 경멸·천대 받았을까

'금강경과 함께 역사속으로'

김광하 지음

운주사 / 1만원

〈금강경〉을 읽는데 왜 경멸과 천대를 받을까? 혹자는 이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강경과 함께 역사속으로〉의 저자인 김광하씨(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운영위원)는 "〈금강경〉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대의 승단과 재가불자들의 부조리한 현실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경멸과 천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출현 당시 불제자들 문제의식 재해석

이 책은 교리적 해석의 관점에서 벗어나 〈금강경〉이 출현했던 당시(BC 1~AD 1세기) 불제자들의 문제의식을 연구해 역사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래서 기존의 〈금강경〉 해석들에 던지는 색다른 문제의식이 곳곳에 들어 있다. 예를 들면 '금강경은 공(空)이라는 단 하나의 글자도 없이 공을 말하는 것일까'를 비롯해 '금강경 사구게는 복을 받는 게송일까' 등이다. 설명 역시 기존의 틀을 깬다. 재가신도들이 보시하는 이면에는 '보시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기적인 탐욕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또 초기경전인 〈아함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는 용어가 대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집약한 새로운 언어라고 말한다. 즉 당시 승단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슬로건인 셈이다. 어쨌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현대 불교의 실천적 근거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당대의 정체된 승단을 비판하는데 실천만큼 적당한 단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김주일 기자



차! 무소유 청정세계로

'한국 차살림'

정동주 지음

이룸 / 1만5천원

전통문화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를 즐기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차를 마시는 모임인 차회(茶會)만도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으며 차 인구는 3백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차문화는 과연 우리의 '전통문화'인가?

18년째 차나무를 키우고 차를 만들고 있는 소설가 정동주(54)씨는 최근 펴낸 〈한국 차살림〉(이룸)에서 "한국 차문화는 정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차는 마시는 손가락 모양이나 차인이 입는 옷감의 종류, 차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차의 세계는 소유욕에 불들리지 않고 무소유의 청정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소박해서 누구하고도 불편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 바로 차"라고 말한다.

우리 차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저자는 우리 다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 다도의 원류를 찾아가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일본 차문화의 정점에 있는 이른바 '초암차(草庵茶)'법, '농차(濃茶)'법을 김시습의 '매월당 차법', 우리 사찰의 발우공양법 등과 상세히 비교하고, 여러 문헌들을 제시하며 그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차인이 가져야 할 정신자세 등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 차 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차나무 키우기부터 차 만들기, 차 달이기, 차 마시기 등 일련의 과정을 '차살림'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다. '차살림'이란 말에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평등의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차 다리기 등 '차살림'으로 부르자" 제안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공사
2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궁리
3	소리없는 소리	서암스님 시자엮음	시월
4	유식 30송	서광스님	불광
5	화	틱낫한	명진
6	스님 사랑하면 안되나요	월성스님	웃는나무
7	할	한암대종사	휴먼앤북스
8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투마사루	나무심는사람
9	불자의 가족사랑	김현준	효림
10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영험도량



퇴마승 해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3735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 法徹一愚 譯解
泰華淨圓 平心寺의 정원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인본



역해본 원본

碧巖錄
卅餘年前初學時 삼십여년전 처음 배울 때
黑底字兮白底紙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더니
譯解書刊將十載 역해(譯解)해 써서 간행한 지 거의 십년에
有求索人付意味 구색(求索)하는 사람이 있음에 의미를 부여할까나.
杲師燒却戒學語 고사(杲師)가 소각함은 말을 배움을 경계했음이니
至今流通一場愁 지금토록 유통(流通)하니 한바탕 근심일런가
抹底何嘗限碧巖 지울 것이 어찌 벽암록에 한할 뿐이랴
看他本師涅槃時 저 본사(本師)의 열반하실 때를 보아라.
無所說已多語 설한 바가 없음이라 함도 이미 말이 많음이니
倚天太阿不容擬 하늘에 기댄 태아검이 헤아림을 용납하지 않느니라.
- 泰華淨圓 -

300질 한정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3672-4276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 단체강의한곳 :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종합화학(주), 한국중공업외 다수

道家, 佛家에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 치료법 공개!
누구나 5박 6일이면 氣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척추교정 운동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골반,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천일기공 〈정기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만성 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요실금,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간장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안짱다리, 허리굽은분, 만성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주말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

- 척추교정운동법, 오장육부 氣 치유법, 통증해소법, 비만감량법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선착순20명한] T. 02-3436-3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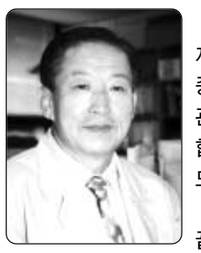
※ 책신청방법 : 아래계좌로 우송료 2000원을 입금시키고 전화주시면 책(390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체국 : 013094-02-213631 주문옥]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 : 1544-3246

홍보관 운영하실분,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료체험실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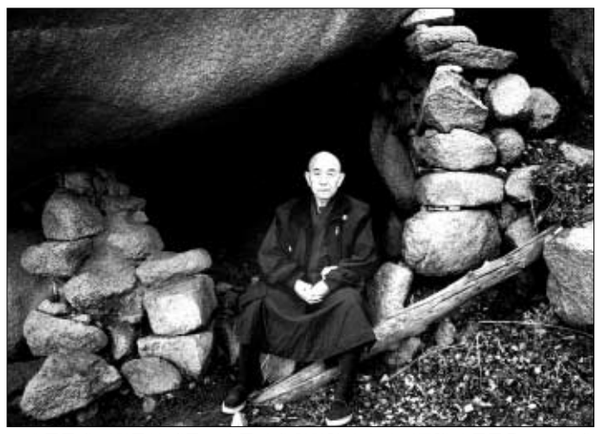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가세! 새처럼! 내 산으로, 내 스승의 동굴로 가서 바위와 나무와 하늘에게 물을 걸세. 스승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동행〉(원제 Bones of the Master)은 물질적 풍요과 소비 만능의 세태 속에서 잊혀진 참된 삶의 의미를 일깨우는 한 선사의 구도기다. '현대판 선어록'의 틀마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중국내 자치구인 내몽고 출신 스님이 스승의 유골을 찾는 고행을 미국 시인이 동행하며 기록한 색다른 형식을 띠고 있다. 더구나 종차이(宗才)라는 주인공 스님은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정권의 탄압을 피해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온 사연 많은 스님이다.

'동행'

조지 크레인 지음 / 정진영 옮김
무우수 / 1만원



◇중국내 자치구인 내몽고의 푸나에 위치한 스승이 거주했던 동굴을 35년만에 방문한 종차이 스님.

스승님은 어디에 … 한 몽고 선사의 구도기

스승 유골 찾아 35년만에 중국 입국
숭고·처절한 인생역정 그려

혁명의 열정에 쌓여있던 중국이 저지른 과오 중 극단적 잔학성으로 악명높은 문화대혁명(1966~76년)은 이보다 앞선 대약진 운동(1958~62년)에서 그 불길한 전조를 보였다. 중국 농촌을 근본부터 바꿔 증산을 꾀하겠다는 이 운동은 결국 최악의 기아사태를 초래하는 것으로 마감했다. 여기다 정치운동까지 겹쳐 공산정권은 몽골과 티베트의 스님들을 닥치는대로 살해했다.

1959년 10월. 출가한 지 13년째 접어든, 세랍 34세의 종차이 스님이 자신의 사원이 있던 내몽고의 푸지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죽음을 피해 또 다른 죽음'을 선택하는 형상이었다. 시인에게 종차이 스님이 어렵게 털어놓는 탈출 과정은 말그대로 눈물없이 읽기 힘들다. 대륙 곳곳에 초근목피조차 구할 수 없어 목숨을 잃은 송장이 너부러진 사이로 삼엄한 감시의 눈길을 피해 1년여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종차이 스님은 기차가 커브를 돌 때 속도가 시속 8㎞로 늦춰진다는 걸 알고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산둔덕에서 기차 지붕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러나 어떤 이는 터널을 지날 때 머리가 으깨져 죽고, 커브를 돌 때 원심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철길로 떨어진다. 결국 혼자 남게 된 종차이 스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강물로 뛰어들고 어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중국을 벗어난다.

이 책은 1987년 미국 우드스톡 인근에 오두막을 짓고 은둔한 채 살아가는 종차이 선사를 매사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던 시인인 저자가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죽음을 이겨낸 종차이 스님의 탈출 과정은 시인의 필력에 의해 열정과 유머로 재현된다. 피로 점철된 중국의 역사와 현재, 내몽고 오지의 풍광, 선사상과 시, 그리고 죽음에 대한 통찰까지.

종차이 스님은 97년, 떠나온 지 35년만에 내몽고를 다시 찾는다. 중국의 개방으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된 것이다. 종차이 스님은 자신이 떠나올 때 노환으로 남겨졌던 스승이 죽은 뒤 사막에 아무렇게나 매장된 걸 알고 그 유골을 찾아 다비식을 치르는 계획을 세운다. 저자는 스승의 유골을 찾으러 가는 종차이 스님와 '동행'하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든 스님으로부터 어떻게 삶을 받아들여야하는 지를 몸으로 배우게 된다.

이 책은 처절하고 숭고한 인생 역정을 거친 선승의 고백이라, 면벽수행(面壁修行)만 해온 스님들의 그것과는 다른 깊이와 맛을 느낄 수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해외에서 가르칠 교사 구함.'

히말라야 동쪽에 자리 잡은 은둔의 나라 부탄에서 일할 영어교사를 구한다는 한 줄짜리 신문광고가 스물네살 캐나다 여성의 삶을 뒤흔들었다. 박사과정 진학과 결혼을 앞둔 제이미 제파는 모든 걸 남겨두고 지구 반대편, 미지의 먼 나라로 떠났다. 그곳에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자기 내면과 불교적 사유의 새로운 만남에 눈떴다. 제자와의 사랑을 통해 소박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도 발견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원제 Beyond the Sky and the Earth)은 그 소중한 체험에 대한 유쾌하고 진솔한 기록이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둥지를 튼 부탄은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정도, 인구 100여만명의 작은 불교왕국. 국민소득으로 보자면 최빈국에 속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세상의 시간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더없이 특별한 곳'이다.

'하늘이 눈물을 떨어뜨리더니 산의 얼굴을 닦았다'는 시적인 표현에, '이렇게 2년만 살면 몸매가 정말 좋아질 것 같다'는 저자의 유머감각도 책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무엇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삶을 세밀화처럼 그려낸 이 책은 허둥지둥 살아가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한다.

김재경 기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제이미 제파 지음 / 도솔 옮김
꿈꾸는 돌 / 1만1천원



◇은둔의 불교왕국 부탄.

'더없이 특별한 곳'서 찾는
삶의 의미

전문가 서평



'쓸모없는 것의 가치'

샘 크레인 저 / 강정 옮김
화니북스 / 9천원

장애인 아들 통해 '진정한 삶' 터득

장자 등 동양고전 천착 … '無用之用' 발견

미 동북부의 작은 학교, 윌리엄스대학에서 동양학과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샘 크레인이 쓴 이 책은, 갑작스럽게 한 장애아 아버지가 된 저자가 '예기치 못한 삶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고뇌하면서 동양고전 읽기를 통해 스스로 변화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의학적 판정과 경제학적인 이해타산을 떠나, 온전치 못한 아이의 삶을 긍정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스스로 변화해 가는 저자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다. 가족의 사랑과 학자적 이성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써 내려간 300여쪽의 내용은 독자들이 사랑의 위대함과 동양고전의 세계에 함께 젖어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의 첫째 아들 에이단은 정상으로 태어났으나 열흘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며 보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게 된다. 그 병은 비정상적인 것들로 희한하게 조합된, 병명도 자료도 없는, 의학적인 판단 밖에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밖에 말해주지 못하는 의학적 판정과 현대과학에 대한 절망과 회의, 없느니만 못한 존재보다는 차라리 죽음이 더 낫다고 부추기는 피터 싱어의 결과주의와 공리주의는 그가 넘어어야 할 또다른 도전이었고, 이런 고뇌가 그를 동양의 정신세계로 인도한다.

저자는 먼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때에 맞는 역할'(時中)을 제시하는 〈주역〉에서 삶의 길을 구한다. 칼 융에 따르면 〈주역〉은 서양의 목적론적 인과율로는 포착할 수 없는 삶의 우연성을, 의미 있는 특수한 상호의존성과 공시성(共時性)에 의해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는 삶의 깊은 '심연'(坎卦)으로 떨어진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물이 주위환경에 적응하듯, 믿음을 갖고 자신의 생활을 에이단에 맞춰간다. 장애아를 둔 아버지로 빨리 변해간 그는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대신 학부모 자문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삶으로 변한다.

그런 그에게, 천하의 미는 추함이 있기 때문이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채워준다는 또다른 고전 〈도덕경〉의 지적은 비정상적인 사람, 약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신하게 한다. 죽어가는 아이의 부모가 되는 방법을 얻고자 찾은 〈장자〉에서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더 천착하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쓰임(無用之用)'을 발견한다. '쓸모없음'에 대한 긍정은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깨달음의 과정을 거친다. 현실을 인정하는 '너른 시야'를 얻어, 소외된 이웃과 훼손된 자연환경, 장애우에 눈뜨게 한다. 배려와 협동, 관용의 미덕, 마음 나눔을 얻게 하고, 포용과 통합, 공존을 지향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대적인 사고에서 전체적인 사고에 이르게 한다.

그에게 장애아인 에이단과 건강한 딸 마거릿은 겉보기에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한 가족이다. 두 자식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샘 가족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저자가 읽은 세 동양고전은 삼현학(三玄學)으로 대표되는 책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연주의 사상이 요점으로 현대 문명에 더욱 빛을 발한다. 만물을 섬처럼 고립시키지 않는 '교제의 철학'이며, 온전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삶의 여유를 주면서 동시에 책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자칫 현실도피로 읽힐 수도 있는 영역본 동양고전을 저자는 지극한 가족애를 날줄로 엮어내며 주어진 현실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수를 놓고 있다. 동시에, 불완전한 것(A−)과 정상적인 것(A)으로부터 비약적인 특수한 삶(A+)을 요구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불완전한 삶(A′)과 또다른 불완전한 삶(A″)으로부터 시야를 넓혀 온전한 일상의 삶(A)을 추구하려는 발상의 전환, 상식적인 가치의 전도를 분별 있는 이성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책은 전도(顚倒)된 현실을 바로보자는 지혜로운 안목이 저자의 눈을 통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다.

남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유유히 노닐겠다는 장자의 지혜나 "우리가 실용성만 중요시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칠 것이다"는 샘의 지적은, "삐뚤어진 대로 곧다"던 경허 선사의 법어를 떠올리게 한다. 어원상 치료(healing)라는 말은 전체(whole)라는 말과 근원이 같고, 종교(religion)라는 단어의 어원 가운데 하나가 '다시 읽기(read again)'라는 점을 되새기며 이 책을 읽으면 더 좋겠다.

■박호상 / 출판연구소 연구원

〈쓸모없는 것의 가치〉의 저자 샘 크레인은 장애인 아들을 통해 과학의 한계에 부닥치면서 〈주역〉〈도덕경〉〈장자〉를 새로 읽었다. 그는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무위자연의 도를 강조하는 동양철학에서 삶의 지침을 발견했다.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E-mail: minjoksa@chollian.net ♣법보시 주문을 받습니다.

문수기도공덕
문수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혜가 총명해지고 밝아진다.
문수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기피를 입은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문수보살경전이 실려 있습니다.
정념스님 엮음/ 4×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

관음기도공덕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관음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묵장화 엮음/ 4×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

지장기도공덕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옥고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 주고 지옥고를 면한 이야기와 부록으로 '지장경'이 실려 있습니다.
명법부 엮음/ 4×6판 양장/ 224쪽/ 값 6,500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간추려 담았다. 예컨대 • 법당,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합니까? • 음주와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재일불공은 어떤 곳입니까? •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 • 임지 • 묵장화 지음/ 4×6판 양장/ 320쪽/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 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성우 • 석지현 엮음/ 4×6판 양장/ 180쪽/ 값 5,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계사 월주 종진 큰스님 감수/ 박은진 지음/ 4×6판 양장/ 295쪽/ 값 6,000원

간단명료하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
간추린 불교상식 100문100답
불교교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이 되는 문제, 100가지를 선정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설한 입문서 입니다.
누구나 전자계산기 같은 이 책 한권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어떤 절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승석교수(동국대교수역임)/ 소책 값 3,800원/ 큰책 값 9,500원

부처님께서 남기신 주옥 같은 명구!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법옥은 꿈과 같은 것이다.
법옥은 날개로운 칼과 같은 것이다.
법옥은 독을 품은 벌레와 같은 것이다.
법옥은 바람과 같고 어둠과 같고 감옥과 같은 것이다.
정휴스님 엮음/ 4×6판 양장/ 170쪽/ 값 6,000원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기초



삼보이야기(2)-불법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일이다. 마가다국의 대신인 고파카 목갈라나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명이자 평생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 아난이시여, 세존께서 '이 사람은 내가 열반에 든 후에 너희들이 의지할 곳이다'라고 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존께 그런 임명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승가에 의해 합의되었거나 장로들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대신 고파카여, 우리들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할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법이 우리들이 의지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 한 이후에도 우리들이 법에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불교도들이 귀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은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혹은 청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푸셨던 가르침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법에 대해 굳은 신념을 품노라. 법은 세존에 의해 능히 설명되었도다. 그 법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며, 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삼보의 하나가 법이란 점에서 법은 불교도들의 신행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며, 가치의 판단과 불교적 윤리를 형성하는 근본이다. 그렇지만 법이란 용어는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용어는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법이란 용어가 지니고 있는 다의성때문이다.

불교에서 법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삼법인에서 제법무아(諸法無我)할 때의 법인데 이 경우는 '존재 일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존재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혹은 구체적이든 관념적이든 관계없이 궁극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일체의 존재란 결국 우리들의 의식을 포함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 전체를 포괄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을 관찰해 보면 그곳에는 하나의 법칙성이 내재되어 있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래가 이 세상에 나오든 혹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든 이것은 결정되어 있으며, 법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법칙성이란 의미의 법이 두 번째 용법이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깨달음의 내용을 달리 표현하자면 법칙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때의 법칙성은 다름 아닌 연기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부니카야>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가르침이 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부의 아들인 사티에게 내린 법문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의 견해가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만 집착하고 매달린다면 '내가 말한 법은 마치 강물을 건네주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면 뗏목도 놓아버려야 한다'는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다. 이것은 '뗏목의 가르침' 으로 알려진 것이며, <금강경>에서는 무집착의 공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상의 가르침에서 법을 뗏목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뗏목이란 강을 건너는 수단이다. 강을 건넘과 동시에 뗏목을 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경전에 절대성을 부여한다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금과옥조처럼 교조화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세 가지로 설명한 법이란 말은 존재 일반, 법칙성,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일체의 존재는 법칙성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사실 즉 법칙성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런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의미와 권위를 지닐 수 없다. 그냥 뗏목의 역할로 끝나 버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법 역시 공한 것이라 말한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 어떤 것을 세간이 공한 것이라 합니까?" "눈이 공한 것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공한 것이며, 내 것이라는 것도 공한 것이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일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잊어서는 안된다. 법칙성을 깨닫게 된다면 강을 건넌 뒤에 뗏목을 버리듯이 경전의 문구에 집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불교윤리의 근본·신행 기본적 토대
존재·법칙성·가르침 의미 포함

불교의 생활·대중화는 온겨레 성불인연 짓는 일

오온산중심우객(五蘊山中尋牛客)
독좌허당일륜고(獨坐虛堂一輪孤)
방원장단수시도(方圓長短誰是道)
일단화염소대천(一團火炎燒大天)

오온산인 몸 생각 듯 가운데서 심우 불성을 찾는 나그네가
텅 빈 집에 둥근 달이 휜히 비치는데 홀로 앉았도다.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은 이것이 누구의 도이랴
일단 '이뭣고'의 불꽃이 대천 번뇌를 태우는 도다



◇도문스님은 언제 누구를 만나든 "좋은 마음을 내면 무슨 일이든 언젠가는 이룰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상 백고좌

도문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좋은마음 내면 언젠가는 성취
'회향' 없는 삶 세상시끄럽게 해

용성스님의 견도송(見道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뜻으로 분별합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분별하는 알음알이를 지적 미혹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적미혹에서 벗어난 경지를 '견도' 했다고 합니다. 견도(見道)란 무엇입니까.

견도란 알음알이의 미혹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견도 위에서 수도를 해야 합니다. 수도란 쉽게 말해 정에 얽혀 있는 것을 풀거나 확실히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념으로 굳어진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도 견도입니다. '금강경이 최고다' '화엄경이 최고다' '아함경이 최고다' 하는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도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도를 바탕으로 만중생을 교화해야 합니다. 교화란 악을 짓는 자 못 짓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쁜 길로 가는 자를 정도로 가게하고, 나쁜 생사를 짓는 자를 열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금강경의 대의와 대요를 알아야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대의는 무상(無相)으로 종(宗)을 삼고, 무주(無住)로 체(體)를 삼고, 묘행(妙行)으로 용(用)을 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는 것은, 모든 현상은 언제든 변화하고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이란 자기주장의 요지이자 주(住)입니다. 종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주는 행위주체인 불성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참된 나입니다.

무주로 체를 삼는 것은 만물의 근본인 무주가 자성을 가지거나 집착하지 않고 연을 따라 일어나기에, 만물이 불변하는 본보양인 체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의 대의를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체를 삼고, 묘행으로 용을 삼았다' 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의 삼공(三空)을 수도의 요체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아집은 자신의 견해에 집착해 떠나지 못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섯 가지 근본 번뇌는 이 아집의 힘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본성이 아닌 아집과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실체라고 믿는 법집을 타파해야 합니다.

나에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타파해도 법집을 타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집이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법에 집착한 나머지 각오(覺悟)를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다운 진리란 바로 대오(大悟)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공을 표현한다는 것은 반야를 깨친 보살의 지혜를 아상으로 삼고, 증득할 바 진여로서 인상을 삼으며, 온전히 깨친 것으로 중생상을 삼아 깨친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의 법이 곧 생활임을 인식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생활이 곧 부처님 법이며, 부처님 법이 곧 생활입니다. 용성스님께서도 이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불교를 생활화해서 모든 국민이 따르도록 불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불교를 대중화하는 것은 온겨레와 인류에게 성불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선이나 염불이나 간경이나 주력이나 어느 것이든 다 잘해야 불교가 지성화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5대 수행이 있습니다. 5대 수행은 불사, 주력, 간경, 염불, 참선수행을 말합니다. 이들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앳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OOO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보현스님 합장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소개

(팔자학은 심리학이며,인격수양학이며,운명예측 및 개선학입니다 / 사주팔자란 마음의 구조물입니다)

<최신 팔자 명리학 비결>강의
저자(오산 정대균) 직강(기초원리에서 고급추명 비결까지)

운 세 상 담
심리구조, 적성 및 각종 인연 (이성, 재물, 지위, 자식, 시험, 승진, 사업, 궁합 등)분석상담

용 신 상 담
사주학을 공부했으나 자신의 용신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상담

<최신 팔자 명리학 비결>서적 판매
- 본서의 주요 장점 :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어떠한 사주이던 쉽게 용신을 취할 수 있는 비결 공개(강약, 음양, 구조 및 희용신) : 오행,십천간,십이지지의 창조원리에서 고급추명비결(심리분석, 궁위론, 변성변궁론, 일간진입론 등)까지 총망라 : 대. 세운 해석비결 공개 : 본서로 공부하면, 누구나 다 명리학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점.

<최신 팔자 명리학 비결>서적 설명회 개최
- 월요일 ~ 토요일 : 오후 2시 30분 ~ 4시 까지
- 일요일 : 오전 10시 30분 ~ 12시 까지

www.sazoopalza.com
한글도메인 주소 : 사주팔자닷컴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 831-0055(代), HP: 011-208-0051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경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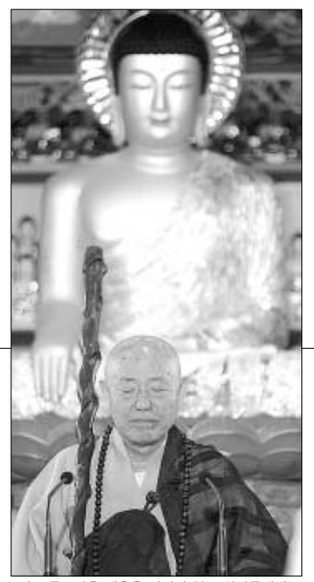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최근 불교TV 법당 무상사에서 열린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에서 법문하는 도문스님.

'나의 죄업을 참회하오니 부처님, 내 마음 알아주소서 이제 악업 버리고 싶어라'



◇도문스님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상좌들에게는 엄하기로 유명하다.

수행을 통해 온 국민은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지악수선(止惡修善)의 생활과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수행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종교인들이 이고득락의 신앙생활을 회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을 굴러 깨달음을 얻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의 수행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도하고 교화해야만 일체중생 모두가 성불할 수 있습니다.

보시에 훈련이 돼있고, 좋은 마음을 내는 사람을 '능훈인(能熏人)'이라고 합니다. 능히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평소에 좋은 일을 하지 않다가 기회를 만나 마음을 내는 사람을 '이숙인(異熟人)'이라고 합니다. 해탈로 가는 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숙인이 되고 능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례 화엄사가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자 스님들이 자기네 살 궁리에 절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실스님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며 주지스님에게 "산을 내려가서 거지나 부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절을 지어달라고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조실스님의 뜻을 받들어 권선문을 지어 마을로 내려가던 중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스님은 조실스님의 당부가 생각나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거지님, 절을 지어주십시오"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밥을 빌어먹는 제가 돈이 어디 있어 절을 짓습니까"하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당시 화엄사 밑에는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앞으로 가자니 주지스님이 막고 있고, 뒤로 가자니 저수지라서 갈 길이 없자, 거지는 굶어죽으나 빠져 죽으나 매한가지니 '기왕 죽을 바에야 좋은 일 하나 하자'는 생각에 "부처님 제가 죽으면 임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절을 지어주겠나이다"하며 저수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주지스님은 '이 모두가 부처님의 뜻이니 절을 반드시 짓겠다'고 생각하고는 인연을 기다리며 20년간 엿 장사를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임금이 된 숙종은 밤마다 한 스님이 자신에게 "거지님 절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오던 임금은 어느 날 장터 행차 길에 엿을 파는 스님을 보게 되고, 그 스님이 꿈에서 본 스님임을 알아차리고는 자초지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화엄사 각황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기왕 죽을 바에야 좋은 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이숙심'이고, 물에 빠져 죽은 그 거지가 바로 '이숙인'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내지 않으면서 씨앗을 따먹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숙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예불공경을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 이 몸을 다 받으소서. 부처님 이 합장은 오분법신향이 되나니, 제보살의 법공양은 수행이고 모든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부처님 나의 죄업을 참회하오니, 부처님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내 이제부터 악업지음을 버리고 싶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미래세에 성불 서원하소. 그러면 능훈식(能熏識)을 뿌리로 이숙식(異熟識)이 발동해 이숙인이 되어야만 능훈과 이숙을 꽃피워 보리열매 맺으리. 과거세부터 닦은 나의 공덕 일체중생 위해 보리회향, 열반회향 하리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기자가 본 도문 스님

불교생활화 교화지침

도문스님에게는 '용성스님'과 '전법'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독립지사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용성스님은 10가지 유훈을 남겼고, 도문스님은 그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도문스님이 가는 곳마다 강조하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도 용성스님의 교화지침이다.

도문스님은 그런 용성스님의 유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전법에 여념이 없다. 공무원불자회와 논산훈련소 수계법사는 물론, 전국 각지를 다니며 포교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경과 조사어록을 100만권 이상 배포했고,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계를 주었다.

95년부터는 네팔에 대성석가사를 세워 해외 포교에 나섰고, 최근에는 인도 보드가야에 한국 사찰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인도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상좌인 환희스님(청룡사지 주지)은 "은사스님은 후학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극진하며 인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계율과 예절을 지키지 않는 상좌들에게는 늘 불호령을 내릴 만큼 엄격하다.

14년째 스님을 모셔오고 있다는 '백용성 조사 전국돌며 포교 몰두 불자 100만명에 수계

유훈실현후원회' 한명옥 회장은 "도문스님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고, 그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사셨다"며 "스님을 뵐 때마다 게으른 내 자신을 채찍질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문스님은 1935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헌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만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경주 분황사,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재단법인 대각사 이사장을 맡으면서 장성 죽림정사 조실 겸 주지, 경주 천룡사지 및 네팔 대성석가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덕혜스님의

스님이야기

원철스님



불교에서는 세상의 변화와 중생들의 만나고 헤어짐을 섭리라는 단어 대신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다.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얽힌 시간과 공간의 흐름속에서 마음이 만날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의 블랙홀에 빠져든다.

92년, 한달여의 인도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태화산 마곡사 선원 동안거에 방부를 들인 나에게도 이러한 인연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음을 어찌 알았을까? 20여 선승들이 저마다의 화두를 들고 참나를 찾기 위해 산사의 적막 속으로 빠져들던 그때 원철과 나는 도반이라는 하나의 인연의 실에 묶였던 것이다.

원철의 인생역전은 그의 첫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 처럼 극적이다. 올 2월6일부터 3월 22일까지 대학로 '알과핵극장'에서 공연된 스님의 첫 작품은, 도둑이 스님으로 변장하고 절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다 부처님의 법에 감화되어 참 스님이 된다는 내용이다.



그림 · 문병성

평소 과묵하다가도 격정적이고 생김새도 말투도 우락부락한 원철스님과 처음부터 친해진 것은 아니었다. 천안에서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었다.

천안이 고향인 원철스님이 어느 목욕삭발날 천안으로 목욕을 하러가자고 하여 스님 다섯이서 천안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사우나에서 원철스님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그만 우리는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고 말았다.

경찰서 안에서도 원철은 집기를 뒤집어 엎고 경찰을 폭행해 고향선배들의 도움으로 치료비를 합의하고 간신히 풀려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길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겉으로는 거친듯한 그가 사실은 여린 심성과 똑심, 의리 있는 본면목을 지녔다는 것을 서서히 파악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그의 성격에 매료되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해제 후 정우스님이 주지로 있는 구룡사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때 원철은 연극계의 원로인 극단 '신시'의 김상렬 선생, 이호재씨 등과 친하게 되었고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재해 있던 예술에의 끼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 일로 인하여 스님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되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이후 원철스님은 활발한 시작(詩作)을 통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시집<광대>를 출간하여 깊이 있는 사상과 남다른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97년 황희 문학상을 수상한 후, 허균문학상, 충헌문화 예술상(황금마패상), 매월당 문학상(시부문상) 등을 잇따라 수상했다. 많은 이들이, 만해의 계보를 잇는 불교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그를 통해 보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98년 고향 천안 옆 수철리 산속에 '한암사'라는 조그만 암자를 세운 원철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외할머니까지 모시고 효도를 하며 살고 있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3월, 천안시 쌍용동에 작은 땅을 마련하고 여기에 포교와 문화공연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기공식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해 왔다.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을 뜨며 이 불사를 통하여 척박한 천안의 불교가 기름진 옥답처럼 변하기를 부처님전에 간절히 기원했다. 원철스님은 비록 힘들더라도 분명히 이 불사를 마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남다른 문학적 재능…여러 상 수상

천안에 불교문화원 세워 전법에 앞장

주었다. 그런데 1년여만에 원철은 건물이 다 완성되었으니 부처님을 모시는 점안법회를 하겠다면서 점안식을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이 앞섰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암사 천안 불교문화원'이라는 현판이 붙은 건물에는 연극 등의 공연을 할 수 있는 90평 규모의 지하공연장이 들어있다. 2층은 방사, 3층에는 100평 규모의 법당이 마무리 공사중이었다.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시며 원철스님은 불사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전화를 하면 돈 달랄까봐 전화를 피하는 신도도 있었고, 불사금을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사업자들에게 빚 독촉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도 12억원의 공사대금중 5억여원을 갚지 못하여 공사잔금을 줄일 일이 걱정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덕혜스님, 불사를 한번 해보시오. 그럼 철이 듭니다. 나는 이번 불사를 경험 삼아 한번 더 이러한 대작 불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어느새 원철스님은 젊었을 때의 불량한 '끼'는 쏙 빠져버리고 3층 법당보다도 더 높은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울 정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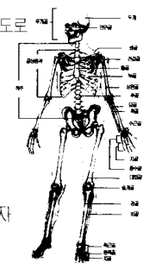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썸머울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6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5월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우리결혼할까요?
10년 노하우의 공든탑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불자 인연을 찾아 연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함께 할 수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소사역 하차 (북부출구) 150m지점 전화상담 후 방문약속
■ 大幸,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288-2944

확실한 영가천도
영가천도가 확실히되었다면
현재의 본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모습입니다
천하고 우습게보이고 값어치없어 보이고 얼굴이 검붉고
눈동자가 탁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푸석푸석해보이고
피부속에서 검은색이 배어나온듯 검고 하십니까

한국인의 피부색은 검붉거나 하얀색 속에서 검은색이 비치듯한
피부색이나 핏기가 없거나 푸석푸석한 얼굴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은 혈색이돌며 하얗거나 약간의 황색입니다

눈이 무엇에 가려져 있듯이 검거나 흰눈자위가 탁하거나
심하게 붉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은 맑고 깨끗하거나 약간의 혈색이보입니다
천해보인다거나 우습게보인다거나 어둡거나 하지않습니다
본래의 모습은 지금보다 당당해보이고 근엄해보이고
자신있어보이며 밝고친근한 모습입니다

49재
49재를 봉행후에는 병들어 가시거나 고통스럽게 가신분이계십니까
살아계실때 병들에 고통받던 모습이 49재중에 모두 벗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앞에 보일것이며 매주 재사를 지낼때 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공덕을 받는것을 직접 느끼십니다

위의 내용은 정토사에서 그동안 49재와 천도제를 봉행한
일부가 아닌 모든 분들의 결과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 1리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
TEL 031)775-3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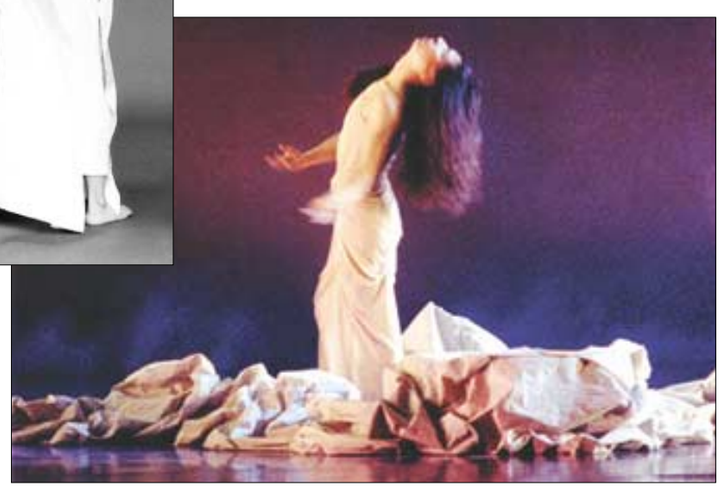


◇대만 출신의 무용가 나이니첸의 향(香)과 이혜경 교수의 '심연의 소리'(사진 오른쪽).

한·미·일·불 4개국 여성무용인

춤사위 한마당

'…상생의 울림' 주제…28일까지 창무국제예술제



전통 예술의 현대화 작업에 기여해 온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연단체를 매년 초청하는 '창무국제예술제'가 11회째를 맞는다. '치유, 구원 그리고 평화-표현하는 여성! 그 포용과 창조, 상생의 울림'을 주제로 내걸고 28일까지 호암아트홀과 포스트극장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무용인들을 초청해 춤의 향연을 마련한다.

개막무대는 11일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 출신의 대만계 미국 안무가인 나이니 첸이 장식했다. 작품 '향(香)'은 서구 문화와 만난 아시아적 소재와 주제를 통해 아시아계 여성 안무가로서 서구 현실의 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의 인내력과 탄탄한 춤 기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15일 펼쳐졌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 이혜경 교수의 '심연의 소리'는 형식은 포스트모던 댄스를 추구하면서도 한국 불교 전통의 선(禪) 사상속에서 자기 예술의 근본과 소재를 찾는 예술가로서의 회귀성을 표현했다. 특히 18일 공연되는 프랑스 현대무용가 카롤린 칼송의 '물에 대한 단상'은 선(禪) 서예 태극권 등 그가 심취해 온 동양문화의 정서를 현대무용과 결합시킨 작품이다. 이어 김매자씨는 '심청' 가운데 '범피중류(汎彼中流)'를 통해 소리를 초월한 은유적 춤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번 창무예술제는 △18일 카롤린 칼송(프랑스) '물에 대한 단상', 김매자(한국) '범피중류(汎彼中流)' △21·22일 유키오 우에시마+컴퍼니(일본) 'Double Vision(더블 비전)', 김선미&김은화(한국) '지금도 넌 물속에 있다' △24·25일 카즈코 다케모토(일본) '내 마음의 평화' △27·28일 야마다 운(일본) '포인트' 등의 일정으로 펼쳐진다. 화~토 오후 8시, 일 오후 5시. (02)3141-177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우수공예문화상품 한곳에

전문전시관 '점(ZUM)' 인사동에 오픈





◇4일 문을 연 한국 우수공예품 전문 전시관 '점(ZUM)'에는 다기, 인형, 화병 등 2백여 점의 생활용품이 전시된다.

촛대·도자기 등 생활용품 200여점 전시

한국 우수 공예문화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문화관광부산하 공예전문기관인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사장 장윤우)과 공예전문벤처기업 (주)우리꼴(대표 최연수)은 민·관 합작 형태의 우수 공예 문화상품 전문 유통관 점(店, ZUM) 1호점을 4일 인사동에 개점했다. 이번에 문을 연 유통관 '점'에는 촛대를 비롯해 그릇, 도자기, 화병, 향로, 다기 등 신인과 유명 기성작가들의 작품 2백여점이 선보인다. 또 개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24일까지 '여름으로의 초대 展'을 주제로 CD 및 명함꽂이, 사각함, 화병 같은 인테리어 소품과 식기류 등 우리네 삶의 정서가 담긴 생활소품도 전시한다. 전시 참여 작가는 김영숙, 김재식, 이미경, 박선영, 조선경 등 10여명. www.ZUMkorea.com, (02)523-0763.

김주일기자

죽음 통한 인간구원과 삶 표현

극단 풍경, 박상륭소설 22일까지 무대에

'로이가 산 한 삶' 등 단편 4편으로 재구성



◇소설가 박상륭씨의 작품 '평심'을 새롭게 재구성한 연극 '평심'의 한 장면.

작가 박상륭씨의 소설집 <평심(平心)>이 연극무대에 올려진다. 난해한 글쓰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의 작품에 대한 각색은 극단 풍경(風磬)의 박정희 대표와 독일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박씨의 남편 강경호씨가 맡았다. 이번 연극은 총 8편으로 구성된 소설집 <평심>중에서 '로이가 산 한 삶', '월튼씨 부인이 죽은 한 죽음', '미스 앤더슨이 날려보낸 한 날음', 그리고 젊은 왕자의 구도행을 조명한 표제작 '평심-동화 한자리' 등 4편의 단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이 연극이 주는 메시지는 죽음을 통해 인간 구원과 삶의 시작을 보여주며, 결국 '나'라는 인간에게 도달하게 되는 즉 우리 스스로를 향해 악수를 청하는 것이다.

세 공간으로 나누어진 무대에는 수학자 로이와 여배우인 왈튼 부인, 명상가 앤더슨이 등장한다. 이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며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아를 이해하려 한다. 로이는 숫자로 세상의 원리를 파헤친다. 또 왈튼부인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자아분열 현상을 겪는다. 그는 갑자기 "날자, 날자, 날아보자꾸나"(이상의 '날개' 중)를 외치며 팔을 퍼덕인다. 앤더슨도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혼란을 겪는다. 이 작품은 극적이거나 자세한 설명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연기파 배우들의 몸짓과 상징적 이미지가 독특한 색채를 전해준다. 22일까지 바탕골 소극장. (02)762-0010

김주일 기자

먹 활용 다양한 점·선

김미순씨 '파묵전' 열어

부산 마린갤러리에서는 29일까지 김미순씨의 '파묵전'을 연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활동해 온 김씨는 먹을 이용해 다양한 모습의 점과 선을 만들어 냈다. 이번 작품들의 주제는 대부분 '생성'에 맞춰져 있다. 생명의 탄생과 성장 및 발전 과정이 전통 수묵화가 아닌 현대적 추상 기법으로 종이 위에 펼쳐져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051)746-4757.



◇김미순 作, 생성

가볼만한 전시회



◇'흑상감 사발'

소박·단아…조선사발 진수

송광사 '조선사발의 美' 展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8월 15일까지 열리는 '조선사발의 美' 전시회에 가면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단아한 조선 사발의 진수를 즐길 수 있다. '옛 그릇 연구회'의 회원들이 모아온 조선 그릇을 전시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웅천 사발', '덤벙 사발', '조화 사발', '귀얄 사발', '녹황유 사발' 등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061)755-0107.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7:10 아침저널
10:55 우리들의 찬불가
12:20 백팔가요
24:00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6:45 룸비니동산
21:05 그리운 등불 하나(일)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8일 13:20 시가 있는 찻집
19일 20:00 원각경 강의
20일 09:20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 문화인
21일 10:00 불교TV 주간뉴스
22일 15:05 자비의 천수천안
23일 19:35 팡팡 룸비니동산
24일 21:40 정경스님의 참선요가

하이라이트

■**불교방송**:▷그리운 등불 하나(22일 21:05~22:00)- '열린 마음, 열린 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리운 등불하나'에서는 장애를 딛고 일어선 장애우를 초대해 인간 승리의 감동을 나누는 '등불 초대석'과 장애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등불 교실'이 마련된다.

■**불교텔레비전**:▷자비의 천수천안(22일 15:05~16:00)-20년 동안 간질을 앓아온 김병준 씨는 아들 김정현 군과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 부인과 이혼하고 IMF때 얻은 빚과 생활비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일노동자로 힘겹게 살아온 그는 이제 그 일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국내최초 침대에 의료기기 허가획득
기념 20%세일

『佛心同體』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돌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헬스700
w4,800,000 → w3,840,000



헬스600
w2,700,000 → w2,160,000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헬스라이프 의료기기침대
누워 주무시기만 하면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 책임보험 2억원 가입 (SAMSUN 삼성화재)

구입문의 02-581-6011

※ 각종 은행신용카드 결재로 24개월까지 할부가능합니다.
※ 주문시 현장설치 및 1년간 무료 A/S 보장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헬스라이프 보료

► 스님께서는 보료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싱 글 : w 1,900,000 → w 1,560,000
● 더 블 : w 3,600,000 → w 2,880,000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
스님과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헬스라이프 침대는 음전위효과, 원적외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설계되어 침구로는 국내최초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동종업계로서는 최초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아 통증완화와 혈액개선의 효능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삼분의 일 가량을 잠자리 시간으로 할애한다고 할 때, 편안한 잠자리는 건강한 하루를 위해 헬스라이프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의장등록 제0304137호
● 품목허가번호 제03-272호
● 벤처기업확인 제021627032-2-5232호
● 제조업허가 제937호
● KS A 9002:1998/ISO 9002:1994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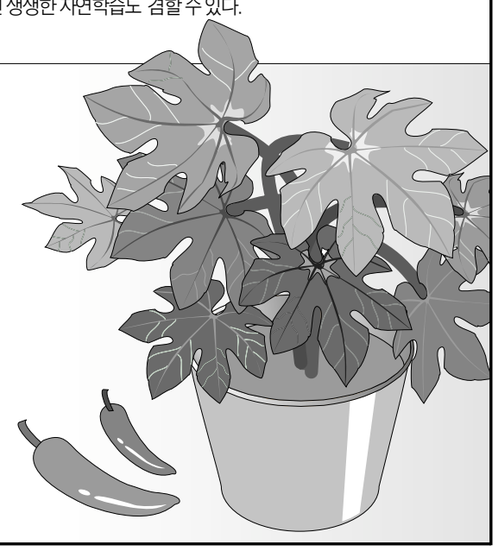
지사 및 대리점모집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7-6
TEL : (02) 581-6011~3
공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1리 272

집에서 무공해 채소 기르면

돈, 건강, 자연학습까지 자라요



하루 종일 흙 한 번 만져보기 쉽지 않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흙냄새 나는 자연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집 앞 텃밭이나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와 주방 창틀을 이용해 채소를 키우는 집이 많아졌다. 집에서 채소를 키울 경우 채소값 절약이라는 경제적인 이점 외에도 농약 걱정도 한시름 덜 수 있다. 또한 자녀와 함께 기르다보면 생생한 자연학습도 겸할 수 있다.



▧ 어떤 채소를 기를까

쉽게 키울수 있는 상추, 쑥갓 등이 적합

가정 재배에 적합한 채소는 쌈재료인 상추, 쑥갓, 치커리, 부추 등의 잎채소다. 건조하면 잎이 억세지므로 물을 많이 주고 잎이 무성해지면 바로 뜯어준다. 최근에는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허브를 키우기도 한다. 애플민트, 라벤더, 로즈메리 등은 초보자들도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다.

채소는 모종이나 씨앗 선택이 수확의 질을 좌우한다. 모종의 경우 잎이 단단히 붙어있으며 두껍고 녹색이 짙을수록 좋다. 씨앗을 구입할 때는 씨를 채집한 시기가 1년이 넘지 않은 것으로 구입한다. 씨앗은 1천~3천원, 채소 모종은 12본 1상자에 3천5백~4천원선이다. 고추나 토마토 등의 모종은 화원이나 공판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LG e-숍이나 CJ몰, 인터파크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씨앗 재배용 화분과 배양토, 씨앗을 함께 판매하기도 한다. 5천~3만원선.

▧ 무엇이 필요할까

스티로품 용기, 퇴비, 삽, 물조리개등 준비

미니 채소밭을 만들 때 가장 편리한 것은 스티로폼 용기. 동네 슈퍼마켓에서 딸기나 토마토 등 과일을 담는 스티로폼 상자를 얻거나 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한다. 또는 꽃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플랜터라는 플라스틱제 화분을 준비해도 좋다. 3천~5천원에 구할 수 있다. 퇴비나 배양토는 종묘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값은 1㎏에 2천원선. 이밖에 꽃삽과 물조리개 등도 준비한다.

▧ 이렇게 키워요

솎아내기 15~20cm, 물은 흙 마르지 않을정도

씨앗을 뿌릴 스티로폼 상자나 플라스틱 화분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바닥에 2개 정도 구멍을 뚫는다. 화분에 뿌릴 씨앗의 이름표를 붙여두면 어떤 채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좋다.

씨뿌리기에 앞서 배양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배양토는 원예상에서 파는 것을 사용해도 되고 집에서 만들어도 된다. 집에서 만들 때는 일반 흙을 비닐봉지에 싸서 햇볕에 일주일정도 쬐어주어야 벌레와 벌레알이 죽는다. 이 흙에 퇴비와 모래를 3분의 1정도씩 섞는다. 배양토가 준비되면 화분이나 플라스틱용기에 담은 후 물을 흠뻑 준다. 씨앗을 뿌리고 3~4㎝ 두께로 다시 흙을 덮어둔다.

속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솎아내기를 해야 하는데 간격은 15~20㎝가 적당하다. 물은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준다. 여수령 기자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딸의 결혼



딸의 결혼을 앞두고 혼자 고민 하다가 저를 찾아 왔다고 하는 한 부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인은 자신과 너무 닮은 딸을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같은 인생을 두 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잊고 싶고 감추고 싶은 자신의 약점들이 딸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자신이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이 싫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은 건 현실적이지 못하고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다 보니 늘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게 되죠. 가장 좋은 예가 결혼인데,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결혼을 현실을 무시한 채 했으니 그 결과가 어떠했으리라는 건 짐작하고도 남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왔던 결혼생활을 돌이켜 보고 싶지 않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고부터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어요. 모든 게 다 제 업인데 억울해 할 게 있나요? 빚을 갚듯 제가 지은 업을 갚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딸은 다르잖아요. 딸은 남들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처럼 말이에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이모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신가보죠?"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부인은 두 살 아래인 동생과 어린시절부터 결혼할 때까지 같은 방을 쓰면서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두 살 차이의 자매지만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성격, 취미, 가치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 등 모든 게 말입니다. 내성적인 부인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혼자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죽음 내생 우주의 질서 같은 관념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사고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해 결혼도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되어 일생동안 힘들게 살아 왔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현실적이지 못하게 선택한 결혼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분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두 살 아래인 동생은 어려서부터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는 별로 흥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가치를 현실적인 것에 두고 있는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자신의 감각을 살려 독특하게 멋도 부릴 줄 알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흔히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듯 합니다. 그런 동생은 결혼도 현실적인 조건을 조목조목 따져서 했는데, 결혼 초 대기업의 건축사였던 남편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지위도 나날이 올라가 지금은 그 회사의 사장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합니다. 남편이 순풍에 돛단배처럼 평탄한 삶을 살고 있으니 동생도 자연히 그런 삶을 살게 돼, 동생은 인생이 고(苦)라는 말을 고어(古語) 속에 나오는 말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고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동생은 그 말을 속담 속의 한 구절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제 딸이 저보다 더 비현실적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있어도 밀려나기가 십상인 데 아예 열외자로 물러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위가 될 청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인이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사위가 될 청년은 천재성을 지닌 기인(奇人)인 것 같았습니다. 천재성을 지닌 기인이라면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건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게 될 고통도 수 없이 있을 거고요. 부인의 말을 다 듣고 난 저는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선택하게 한다면 부인은 동생 쪽의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제 질문을 받고 난 부인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글쎄요. 동생의 삶을 부러워한 건 사실이지만 그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어쩐지 경치 좋은 들판에서 잘 놀다 가는 것처럼 싱겁게 느껴져서요. 누군가가 다시 인생을 선택하라고 한데도 저는 제 쪽의 인생을 선택할 것 같군요. 인생이 고해인줄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 정법도 만났을 테니까요."하며 웃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속에 따님에 대한 답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군요."

저도 부인을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따님 역시 인생이 고해인줄을 알아야 부처님 정법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정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化緣 (www.hwayeon.org) (02)704-3577

고(苦) 알아야 진리 만날 수 있어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애호박 소박이



애호박 2개, 당근 30g, 표고버섯 2장, 은행 8알, 두부1/4모, 잣 2큰술, 소금, 칡녹말, 밀가루

1. 애호박은 꼭지와 밑동을 조금 잘라 씨 부분을 도려낸다. 잘라낸 부분은 채썬다.
2. 채썬 당근, 불린 표고버섯, 호박은 소금간해 볶는다.
3. 은행은 마른 팬에 볶아 속껍질을 벗기고 두부는 으깨 놓는다.
4. 그릇에 2와 3, 잣을 담고 칡녹말을 조금 넣어 소금간해 반죽한다.
5. 애호박에 밀가루를 바르고 소를 채워 넣은 후 찜통에서 찐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미니불상

가정, 직장에 불단 꾸미기 적합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미니불상'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작은 불단을 꾸미기에 적합하다. 석가모니좌상과 반가사유상, 지장 · 관음보살좌상과 입상 등 6종류가 있다. 높이 8~10cm, 값1만5천~2만원.(02) 732-1520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 지방문화재 제371호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대 지 : 총 159평
- 건 물 : 1층 요사채 50평(실평수 60평)
  2층 법당 25평(목조건물 단청 되있음)
  창고 有, 산신각(목조건물), 용왕
  물(지하 암반수), 수도물, 난방(심야전기),
  부속건물 20평, 방6개, 화장실 3개
- 교통편리, 주차 20대이상 가능
- 가 액 : 7억(절충가능)

031)469-5476
011)9012-8047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5화 수자타의 출현



아직도 생명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최후의 순간이 코끝까지 다가와 있음을 느끼면서도 싯다르타는 아직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번뇌를 이기고 해탈의 경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순간순간 해탈의 삼매경에 들때도 있었으나 곧 삼매(三昧, Samadhi)가 깨어지고 현실의 고통이 뼈와 살을 깊숙히 파고 들어오곤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싯다르타의 모습을 지켜보고있던 5인의 고행자들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저 샤카족의 왕자는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동안은 싯다르타가 어느 한순간에 해탈의 경지에 오를지도 모르는 좌선(坐禪)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지켜 보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저 샤카족의 왕자는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수도고행 중 굶어 죽으면 반드시 극락으로 오른다고 말들을 하지만 지금 저 왕자께서 이대로 죽고 말면 지금까지의 고행이 덧없이 흩어질 것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우리들의 소망도 다 함께 무너질 것이다."

모두들 듣고보니 카운딘냐(Kaundinya, 橋陳如)의 말이 옳은 것 같았다. 마침내 샤카족의 왕자가 가고있는 고행길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은 5인의 고행자들은 우선 싯다르타에게 최소한도의 음식을 공양해 목숨을 구하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열반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도록 보살피기로 합의하였다.



"샤카의 왕자여, 우리 다섯 사람들이 왕자의 뒤를 따른지 벌써 오래 되었소이다. 제발 우리들을 내치지 말고 받아주소서, 우리는 결코 왕자의 수행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오. 아니, 방해가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하여 왕자께서 고행을 마치고 열반에 오르도록 시중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서로 약속한 바 매일같이 두명씩 교대로 탁발(托鉢, Pindapata)을 하고 깨끗한 음식을 골라 샤카의 왕자님께 공양(供養)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오. 우리는 그동안 브라만이나 요가의 승려들을 흉내 내어 제 자신의 육체를 너무 괴롭혀 온 듯하오. 나는 지난 며칠간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며 과연 내가 해탈을 얻기위하여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악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었소. 잘 먹어 육체를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잘 입어 육체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아름답게 육체를 장식하기 위하여 모든 까마(Kama, 慾望)가 발생한다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죄악으로 단정하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후생의 안락이 보장된다고 믿고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고 학대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이르른 것이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육체의 고통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괴롭히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이오. 중요한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오. 결국 육체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맑은 마음으로 삼매의 경지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불을 제거하고 불빛만 찾으려는 잘못된 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소."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가 금욕(禁慾)과 금식(禁食)으로 고행(苦行)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높게 평가했을 것이오. 그러나 육체(惡)를 학대하여 삼매(三昧, 정신을 선(善)으로 봄)를 구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중이오. 그 이유는 내가 육체를 편하게 하고 살던 왕성시절에 때때로 요가(Yoga, 정신집중)속에 있어 보았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오히려 마음이 맑았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오. 솔직히 번뇌를 벗기 위하여 수행하는 지금 내 마음에는 더 많은 번뇌(煩惱, Klesa)와 집착이 존재한단 말이오."

"결국 나는 지금까지 수행하는 방법에만 얽매여서 형식에 치우쳤고 정작 중요한 마음을 맑게하는 데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오. 그것은 마치 불(火, 악을 의미)을 미워하면서 불빛(善, 정신을 의미)만 찾으려는 격이니 불이 타오르면 불빛도 빛날 것이요. 불이 꺼지면 결국 불빛도 사라지고 말 것이니 비록 커다란 불덩어리는 아니더라도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는 불꽃을 유지해야만 밝고 흔들림이 없는 불빛을 얻게 될 것이 아니겠소."



이제 싯다르타는 다시금 깊은 선정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리라. 결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건너지 못할 것을 건너려 하는 듯 갈수록 미혹하고 더욱 아득하여 졌다.

도(道)는 슬기와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먹지 않는다고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는 없었다. 비록 몸은 허약해져 갔으나 슬기로운 마음이 피워 오르고 있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허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지금의 이 고행을 끝내려는 일념에서 엉뚱한 생각을 해낸 것은 아닐까…." 싯다르타는 또 다시 마음을 모아 두 번 세 번 검증하여 보았다.

싯다르타는 마지막 힘을 다 기울여 마음을 밝히고 생각을 쉬며 온갖 경계를 초월해서 무상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고행과 단식이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됨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지난 며칠동안 그 자신이 역설했던 불과 불빛의 관계를 분명히 검증하고 났는데도 혹시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싸였다.

"옳다, 나의 고통을 이제야 알았다. 까마(Kama)를 떠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도(道)는 약한 몸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름지기 몸의 힘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음식은 모든 근(根)을 충실히 하고, 근이 충실하면 마음 또한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고요함(禪定)이 따르고 비로소 선정(禪定)에 들게 되는 것이다. 선(禪)을 통하여 성법(聖法)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번뇌(煩惱)가 떠나게 된다."



드디어 싯다르타는 오랜시간 고행하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사경을 헤맬 만큼 극도로 허약해진 몸이었다. 갖은 노력을 다하여 겨우 자리를 일어난 싯다르타는 한걸음씩 가까이 흐르고 있는 나이란쟈나(Nairanjana) 강으로 옮겨갔다.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수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였다. 싯다르타는 강가에 늘어진 나뭇가지를 잡고 간신히 강물속으로 미끄러져 내려 갈 수 있었다.

싯다르타가 아름다운 나이란쟈나 강에서 그동안 묵은 때를 벗기며 목욕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수자타(Sujata)라 불리는 한 소녀가 그곳을 지나며 싯다르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 소녀 수자타는 그곳 우루빌라 마을(Uruvilva-gra)의 촌장의 딸이었다. 그녀는 마침 숲속의 신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가던 중 싯다르타의 모습을 발견하고 수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공손히 발걸음을 멈추어 섰다.

오래간만에 몸을 깨끗이 하니 기분이 상쾌해지며 마음도 맑아짐을 느낀 싯다르타가 다시 강물을 벗어나려 하니 이미 몸의 기력을 다 소진한 듯 지쳐서 어쩔줄 모르고 쩔쩔매게 되었다.

이때 수자타(Sujata)가 바라본 싯다르타의 모습은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5년간의 계속된 고행(苦行, Duskara-carya)으로 인하여 싯다르타의 몸은 피골이 상접하여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수자타는 비로소 이 사람이 숲의 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죽고 말 것이다. 수자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이 허약한 수도자를 끌어 올렸다. 이제 그녀는 이 고행 수도승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싯다르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기몸 하나도 제맘대로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때 수자타의 출현은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 이었다.



마음의 불을 항상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행주좌와 참선해야

호국영령 추모하는 자세

문 매년 6월이면 많은 사찰에서 호국영령 위령제를 지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를 지내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그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의 마음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들이 여건이 닿는 대로 그 분들을 위해서 재를 지내드리는 것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고 자식이 부모를 잃었을 때의 그 심정, 저도 6·25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작개비 내뜨린 것과 같이 무더기 진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피가 한없이 흘러내리는 걸 봤습니다. 강을 못 건너오고 모래사장에서 허덕이다가 총을 맞아서 픽픽 쓰러지고, 수없이 쓰러진 그 시체들을 보기도 하고, 총알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근본이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신차려서 앞으로 생활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령들을 위해서 해야 할 두세 가지 문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와 나를,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과거에 살던 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자기가 자유로써 모든 걸, 12대 종손을 견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응신으로서 나투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을 다, 어느 것 하나도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또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런 모든 진리에 관한 건을 섭류해서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 생활을 재료로 마음공부 하면
> 몸속의 모든 의식 보살로 화하고
> 스스로 밝아져 조상도 천도되지요

그런데 둘째는,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서 들어오듯이, 부모라는 마음이 가설돼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라든가 자식을 위해서라든가 더불어 같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 마음을 밝히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두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나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또는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재료로 삼아 항상 행주좌와 참선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저히 정신계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밝히면 자식들도 나가서 어떠한 문제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지면서 몸 안에 들은 모든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합니다. 말로 안 하고 욕을 안 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서 밝아짐으로써 일이 되고, 또 부모는 스스로서 밝아져서 천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연구 재료죠. 우리가 꼭 연구를 한다 하고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정돈하고 계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생활과 더불어,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내 한생각에 모두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세하게 맡겨야 하는지…

문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 만물만생을 주인공에 한번 맡겼으면 그만이지 세세하게 다시 또 맡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스님이나 다른 분들이 벌써 일체 만물만생을 주인공에게 맡겼다면 제가 다시 맡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답 우리가 단 하루를 사는데도 세 번 공양을 하듯이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고정되게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올라오고 변하는 생각을 나온 그 자리에 다시 좋게 돌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봐서는 지구에 바람과 뜨거운 기운이 사람이 먹으면 체하듯이 모두 정상적으로 물이 고르르 내려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니 뭘 할 수 있으면 항상 관하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손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손이 그 모두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여러분 생활이 교재라고 했죠. 그런 것도 하면서 만약에 80~90% 없어진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 우리가 바퀴가 굴러갈 때, 심봉 때문에 바퀴가 굴러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심봉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봉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한 사이가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지 않고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본래면목 그 실상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벌써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벌써 입증이 되고, 내가 움죽거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만 봐도 벌써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딴 데 형상에나 허공에나 또는, 즉 말하자면 말에나 이런 데에 속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일체를 근본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주인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빛깔도 없고 뭘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무한량의 에너지가 갈로 심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차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시대로 볼 때는 차라고 비유합시다. 차가 있으면 벌써 차 안에 엔진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차가 있는데 엔진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림 · 최주현

> 지금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 말하고 이러는 것이
> 그대로 용이자 법이고 진리

이걸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갈래갈래, 해가 뜰 때에 바늘같이 이렇게 햇발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 햇발이 비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천차만별로 많은 거죠. 해는 하난데 그 햇발은 수만 개가 뭘는지 모르죠. 헤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해 하나 속에서 다 그 빛은 나오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적인 실상의 불성은 다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각자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햇빛이 비칠 때에 이렇게 비치는 것 모양으로 한 줄기 한 줄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줄기가 아니라 그 해 전체에, 하나의 줄기에 붙어있다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깐 그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해 자체를, 전체를 내가 가지고 거머쥔다면, 거머쥐고 그것이 바로 크다는 생각도 없고 작다는 생각도 없이 근본 나 자체가 바로 주인공 실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전체를 한생각으로 움죽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부딪치는 대로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고 앞에 닥치는 것대로 그것이 바로 법문이요, 법의 문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화두요, 그것이 근본이요, 그것이 자아부처라 이겁니다. 불이자 법이고 법이자 용이거든요. 그대로 한데 붙어 돌아가는데 어떤 걸 따로따로 이렇게 찾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말하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용이자 그대로 법이고, 법이자 그대로 우리 진리 아닙니까? 여북하면 불성이 둘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을 한마디로 해버렸을 뿐입니다. 진리예요, 그게!

하여튼 이 정신계라고 그러는 건 이 물질계의 몸을 이끌어가는 바로 주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자가 자기 몸을 끌어가고 주장자만이 속의 의식들을, 생명의 의식들을 다 이끌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이렇게 가는 원동력인 주장자에다가, 즉 말하자면 주인공 뿌리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은 그 다스리는 게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말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한테 실천을 해보지도 않고 하라는 것은 참 어렵지만 실천을 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마음을 낸다면 일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언덕을 넘고 또 언덕을 넘고 또 언덕을 넘는다 하는 것은 무색할 정도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가 없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고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걸 조끔조끔, 이건 굴곡이 돼서 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보이고 이런 굴곡이 돼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저 여러분이 진짜 체험을 해서 알고 그 주장자를 잡고 나간다면 성불을 할 거는 따 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고선 살아서 그대로 움죽거리듯 해야 되겠죠.

올해와 내년은 그렇게 차고 뜨거운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살기가 참 어렵고 머리 돌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항상 공식으로서 관을 하고 가십시오. 재차 당부하지만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감지해서 어떤 것이든지 치워버리시고 다니십시오.

>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 어떤 것이든 실천할 수 있는
>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소공(小空)과 대공(大空)

문 스님 법어집인 『한마음요전』에 보면 소공(小空)과 대공(大空)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옛날에 이런 점이 있지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나서 하도 이 말 저 말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둥근 공이 있는데 공을 누가 움죽거리게 하느냐? 또 그 공 가운데엔 티끌만한 공이 있는데 그 공을 누가 쉬지 않고 튀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랍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깐 그것을 알면 모두 다 알 수 있으니 여러 말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더랍니다.

지금 이 말을 부처님께서 하셨다고 하기보다도 우리를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이 떠다니는데 우린 그 공 속의 공과 같습니다, 티끌 공. 그 공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공이 자기 공, 티끌만한 공 속에 자기가 빠져야 큰 공 속에서도 빠지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아주 간편하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들여서 모든 걸 몰락 놔 버려라' 하는 것은 부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부정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나오게 하려면 들이고 내는 것을 지켜봐야 이것을 확실히 알게끔 되는 겁니다. 자기가 탄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탄생한 게 아닙니다. 육신을 형성시킨 것뿐입니다.

공에서 형성됐고 그 형성된 자체가 바로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모름으로써 이론이 많고 방황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 육신을 하나도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중생입니다. 자기 중생 하나 이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 자기한테 자기가 인가를 받아야, 자기를 몰락 죽이고 인가를 받아야 상대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다시 죽어야 그것은 양면에서 하나가 돼 가지고 다시 또 인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소공의 인가를 받아야 대공의 인가를 받을 수 있고 대공의 인가를 받아야 바로 내가 내가 아니면서 전부 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통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찾으면서 관세음보살이니 문수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모두 추구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그 에너지 통, 삼각형으로 된 에너지 통은 바로 내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들이고 낼 줄 안다면 이게 스스로서 둥그러진단 말입니다, 전체가. 그게 바로 소공에서 대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 이러는 것도 그 삼각형의 에너지 통에 귀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인공의 그 실상 자체와 더불어 내 마음, 분별하는 마음과 육신과 삼합이 한데 합쳐진 삼각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삼각형의 에너지 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겁니다. 안에다가 코드를 꽂고 안에서 구원을 받게끔 하고, 감사한 일이 생겨도 거기다가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나오기 이전 참 자기 에너지 통이거든요. 그러기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먹은 이 컵의 물이 부처님이라면 이건 어제 먹은 컵의 물이에요. 그런데 어제 먹은 컵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그것이 바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물이 또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뒷생각이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 컵의 물은 바로 앞의 물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왔다 이겁니다.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바꿔져서 여기 또 왔다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앞의 물은 방치해 두고 뒤의 물만 생각을 하고 자꾸, 자기가 먹고 돌아선 뒤의 물만 생각을 하니까 앞의 물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까지나 계발을 하는 데는 내가 현 시점에서 그 모두를 바탕으로 삼아서, 주춧돌로 삼고 길잡이로 삼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 길잡이가 모든 것을 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계발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저께 계산한 거를 또 오늘에 가서 계산을 한다면 되느냐. 어제 계산한 건 어제 계산한 것대로 어제 계산한 거지 오늘 계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계산을 하는 거는 오늘의 나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과거의 계산과 미래의 계산이 여기 오늘의 계산으로 합쳐지는 것이 삼각형입니다. 그

☞30면으로 계속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

☞29면에서 계속

래서 삼각형이 법이라면 둥근 것은 대공의 열반의 나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란 것은 나툼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없어서 無자로 돌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조것도 됐다 요것도 됐다 하니깐 '평등 공(空)'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꽉 찬 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 하나에서 수만 가지가 소생되는 겁니다. 나고 죽고 나고, 생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을 모르고는 대답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질문을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지구창조 이전의 윤회

문 나라는 존재는 본래 수억겁 동안 윤회해서 오늘의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구창조 이전의 윤회는 어떻게 된 건지, 다른 별에서도 윤회를 해서 지금의 지구인 나가 생겨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 태초라고 해서 어느 먼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오늘이 태초입니다. 영원한 오늘 이 순간이 늘 태초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말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내 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전체에 우리가 너무도 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 몸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론 태어날 때는 보통 우리가 삼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삼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하자면 나 자체,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근원 자체가 우리와 한데 합쳐져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면 어린애가 되듯이,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도 씨가 없으면 안 되는 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니까 인간 하나가 나온다고 보는데 예로부터 삼신이라고 일컬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말입니다. 태어나면 벌써 물주머니에서 터지고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수화풍에서부터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수화풍으로부터 한데 합쳐지니 그것이 바로 큰 성을 이루었고 성을 이루었으니 온기가 거기 등장을 했고, 모든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까지도 지수화풍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지금 몸도 지수화풍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 물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억겁광년을 거쳐오면서 애당초에, 태초에 생긴 그 자체는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의 그 몸 속에 갖가지 형태로 있는 세균, 그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 모습이 바로 태초의 자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가 생긴 것들이 그렇게 각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지금 수만 개가 돼서 형성된 게 인간의 별성 하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오고부터 이 세상은 생긴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삼천 년 전으로 갈 것도 없어요, 후로 갈 것도 없고요. 대충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 참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몸의 태초의 모습 하나가 수만 개가 돼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겹겹의 세포에 모든 것이 있는데, 선장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마음, 즉 말하자면 공생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체 합치면 공생이요, 공용이요, 공체요, 공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따져본다면 내 몸 하나가 은하계도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혹성이기도 하고, 별성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한시 반시를 그냥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이 세상 우주가 전체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몸을 자도 깨도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하나를, 한생각을 잘하면 자기 몸을 잘 끌고 다닐 수가 있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자기 몸을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에 잘 끌고 가면 차도 성하고 일이 잘 성사가 되지만 잘못 끌고 가서 어디 들이받기라도 하면 몸이 다치고 이렇듯이 사람 몸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떠한 쇼크를 받았다거나 이래도 그 몸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기가 치밀어서 말입니다.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 자체를 어떻게 먹어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나고서부터 세상은 일어난 거니까, 나로부터 화두가 되며, 나로부터 근원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대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자신을 알라고요. 자신을 알아야 남을 알고 남을 알아야 서로 공생공용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한마음이 선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중생들은 지금 배에 태워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느 종교를 나누어서 찾을 게 아니라, 전체 우리는 바로 공생이며 공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우주의 근본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몸이 오대양 육대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속 내용을 보시고 뇌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하게 되어 있나.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나로부터 알고 간다면 이것을, 우리가 맘대로 좀 오래 살려면 오래 살고 이젠 옷을 벗어야겠다 하면 벗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천하 만물만생이 다, 즉 말하자면 벌레에서부터 진화되는 것은 생각, 마음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바로 요런 거다 하고 모르면, 귀도 먹고 그러면 벌레는 벌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가다 보면 벗어나게 되겠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살다보면 차원에 따라 전체가 차원이 높고 낮은 관계상 '아, 눈이 뜨여지고 귀가 트여지는가?'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여러분도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백지장 하나 사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공부를 진짜 하려면, 무조건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일체 만법, 생활을 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끌고다닐 수 있고, 당신만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다니게 할 수 있는 건 주인공 당신밖에 없다. 대신 가즐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줄 사람도 없다. 내가 혼자 와서 혼자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잠나를 발견하고 감응이 될 때, 그때에 하늘 한번 쳐다보고 울고 땅을 한번 내려다보고 땅을 치며 울 때 그때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모두 아는 것도, 알려고 하는 것도 다 놓으십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이 뜻을 몰라서 답변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동생 같고 자식 같고 형제 같은 겁니다, 모두. 또한 연세가 높으신 분은 내 부모 같고 모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우리 정해 놓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의 그 차원에 따라서 빨리 싹이 날 수도 있고 빨리 더 클 수도 있고 아주 밑에서 싹도 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콩이 익었을 때, 콩 말입니다. 콩에 비유하는 겁니다. 콩이 익었을 때 아주 잘 익었다면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죠. 그런데 덜 익은 거는 속껍데기가 짝짝 붙어가지고는 아무리 까려고 해도 안 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거 까지기는 해야 할 텐데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우리는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가고 싶으면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벗어지게끔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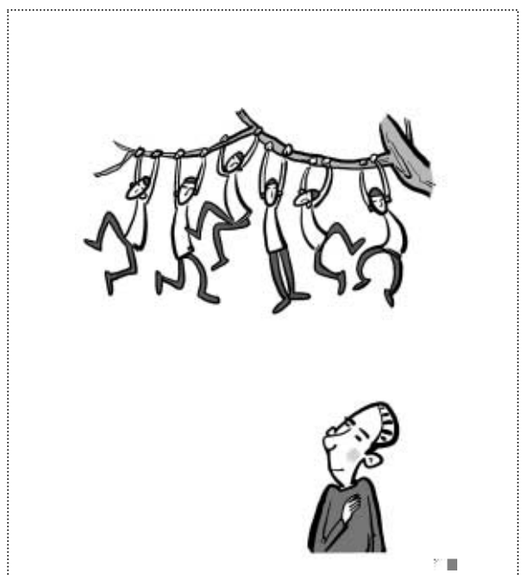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공에서 형성된 자체가 바로 공으로 돌아감을 모름으로써 이론이 많고 방황하게 돼"

> 영원한 실상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낼 수 있을까

타 종교인의 불교공부

문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불교교리와 참선에 관심이 생겨서 가끔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깁니다. 타 종교를 계속 믿으면서 불교를 배우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괜찮습니다. 배우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론으로만 글로만 경을 보는 거는 말로 이론적으로만 알게끔 되는 겁니다. 학설이라는 건 대기설법으로 그 책을 보고선 읽어 주지마는 스스로깨달아서 삼라만상, 모든 유생과 무생이 다 보이지 않는 데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저 날아다니는 새들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어느 풀포기 하나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죽은 사람의 마음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모습으로 나타내서 나투어 다니면서 모든 걸 이익을 줄 수 있고, 산 사람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고, 죽은 사람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즉 말하자면 무와 유가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기도교를 믿지말고 불교로 오너라 이런 식의 어리석은 그런 소린 안 합니다. 단지, 어느 교를 막론하고 '네 마음을 깨달아라. 네 마음의 주인공을, 바로 주처를 찾아라. 네 주처를 찾지 않는 이상에는 대공의 이치를 아예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물질적으로 요거 조금 사랑하는 거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도량에는 부처님의 모습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부처님의 모습이 너의 몸이요, 그 생명이 너의 생명이요, 그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고상이 걸렸어도 그것은 이 세상 돌아감을 뜻해서 바로 인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집착하지 말라, 바로 자기니라.' 이렇게 해 준 거예요. 성모마리아 상이 모셔져 있다 해도 그것이, 그 형상이 바로 너의 몸이요, 그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 "부처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며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 중에 천주교를 믿는 친척들이 있어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 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더라도 바로 자기의 심주心柱)는 그대로 자기 심주니까요. 그 심주 속에서는 모든 전체, 예수 부처 유생무생이 다 그 안에 들었으니까 걸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넓게 가르쳤지 좁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앉아 있는 바로 거기에 부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지 어느 개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나무 이파리가 자기 뿌리를 볼 수 있나요? 흙에 가려서 못 보죠? 사람도 그와 같이 자기 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소립니다. 포괄된 전체 신이라는 건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 신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 전체의 신이 한데 합쳐진 대공이다 이거예요.

뭐 부처님께선 옆구리로 나셨다고 하지만, 옆구리로 났다는 건 어떠한 뜻에서 옆구리로 났다고 하느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고렇게만 들어서도 안 돼요, 또. 옆구리로 나왔다 하는 것이나 기독교에서 갈빗대를 추려서 났다 하는 거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야래도 아니고 위도 아니다. 전체의 대공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요. 그대로 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라는 거는 평등하면서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에 빠지지 마라. 보이지 않는 거를 영이라고 한다. 그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린 여여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모두들 방귀 뀌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방귀는 여여하게 뀌었는데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보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방귀는 뀌긴 뀌었죠? 그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났는데 그 소리가 난 자체가 바로 영원한 대공의 이치예요. 붙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여여하게 그렇게 소리를 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분들은 모두 '한마음주인공, 당신이시여! 모든 것은 일체 당신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참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일체 먹는 것을 모두에게 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함도 거기다 감사하고, 일체 혼자 해 먹는 게 없거든요. 물이 없어도 해 먹을 수 없고, 불이 없어도 해 먹을 수 없고, 땅이 없어도 우리가 걸어다닐 수가 없고, 공기가 없어도 살 수가 없고, 산소나 또는 바람이 없어도 살 수가 없으니 그 모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의 손 인력이 다 감사한 겁니다. 그 외에 자기가 손을 놀려서 번 게 감사한 겁니다. 그건 모두가 원동력이 하나다 이거예요. 그럼 전체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둠으로 해서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라 존칭할 수도 있고, 주인공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주처를 마련해 놓고 공부하는 겁니다. 전체 개별적인 주처가 아니라 포괄적인 주처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주처에다가 개별적인 자기가 사량으로서의 말을 해서 자꾸 잠재해 있는 자기 실상을 계발하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눈으로도 그 능력이 나가고 귀로도 나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판단해서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모든 보이지 않는 데 맛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이라고 하죠. 그 오신통은 마음의 부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신통을 통해도 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부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말을 해보죠. 만약에 잠나, 영원한 실상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군이라고 하고, 오관을 통해서 하는 걸 나라고 한다면 나 없어도 안 되고 신하가 없어도 안 되고, 인군이 없어도 안 되죠. 그래, 고게 합쳐진 것이 지금 사람 하나예요. 인체로 비유한다면, 보이지 않는 잠나가 있고 보이는 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보이는 나는 안 보이는 나의 생리적인 작용밖엔 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움쭉거리지 않는데 육체가 움쭉거립디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형식에 끄달리는 모든 이름을 떼어버린 채, 우상화하는 이름을 떼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모두 알라 이런 소리예요. 그건 이름뿐이에요. 자기 마음과 남의 마음이 얼마나 통하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꼭 만나야 할 텐데 꼭 친구를 만나게 해!' 라든가 이렇게 한번 자기 주인공에 놓고 지켜보는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에 끄달리고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바로 자기가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문화원형은 상상력, 창의력

무한대

우리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공모

확정 사업 11개중 불교 주제 2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최근 2003년 제1차 '우리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업 자유공모'를 실시, 사업자를 확정하고 11일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우리의 전통과 역사속에 녹아있는 문화원형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인 창작 소재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프로젝트 가운데 불교를 주제로 한 것은 두개다.

■ 감로탱화 디지털 가공하여 게임으로

조선시대 50여 작품 촬영, 복원 콘텐츠화

한서대학교 애니메이션영상연구센터(주임교수 김윤)는 예술품보존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불화 가운데 '지옥도'로 불리는 감로탱화 속에 나타난 인물, 불구 등을 게임 제작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한다. 애니메이션영상연구센터는 디지털 가공쪽을, 예술품보존관리연구소는 문화원형의 고증을 맡게 된다.

감로탱화란 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영가천도(靈駕薦度) 때 봉안하는 불화로 조선시대에 성행했다. 감로탱화는 상중하단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은 주로 불보살이 배치된 극락, 중단은 재단에서 재의식을 펼치는 승려와 상주, 왕후장상이 형상화 되어있고 하단은 아귀와 온갖 망령들이 사는 지옥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민중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어 독창적 문화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임 제작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한서대 팀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감로탱화 50여점을 모두 실사 및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디지털로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인물, 동물, 소품, 문양, 아바타 소재, 이야기를 추출해 2D 이미지 제작, 3D 게임용 모델 개발 등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을 할 방침이다.

■ 한국미술에 나타난 길상이미지 개발

이미지 수집 이모티콘 아바타 등에 활용

불구인 목어, 운판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할까? 또한 불화 속에 나타난 연꽃, 용, 호랑이 등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골든벨 애니메이션(대표이사 황지현)은 이같이 우리 문화 원형 속에 특정한 의미를 갖는 길상 이미지들을 찾아내고 이를 이모티콘, 아바타,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소재를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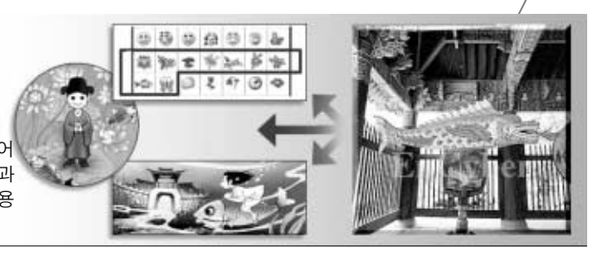
길상 이미지란 행복을 추구하고 장수를 바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상징체계로 민화나 민간신앙과 결부된 산신도, 용호도 등 불화 속에도 많이 나타나 있다.

골든벨 애니메이션은 이같은 길상 이미지를 찾기 위해 허균 前 정신문화연구원, 정병모 경주대 교수와 함께 통도사 금강계단 석등, 범어사 대웅전 불단의 연꽃,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경복궁 등을 직접 방문, 상징체계를 수집해 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명구 동아방송대 교수, 임영규 세종대 교수의 기술 자문을 받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감로탱화(좌)를 게임용으로 응용한 지옥 모습.



◇신륵사 목어(우)가 이모티콘과 아바타 등으로 응용된 예.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충남 아산 보문사 (www.bomoonsa.net)



◇보문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찰 전경 동영상 촬영, 네티즌에 소개
사이버 대학 설립 계획 등 포교에 매진

충남 아산에 위치한 보문사는 송암스님이 서울 봉은사 조실 석주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1997년 중창불사를 시작해 지금은 대웅전, 관음전, 노인복지관을 갖춘 수행과 기도, 복지 도량이다.

그러나 보문사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사찰이기를 당당히 거부한다. 중창불사와 함께 인터넷을 매개로한 가상 공간에 사이버 보문사(www.bomoonsa.net)를 개설, 세계인에게 사찰의 일주문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많은 불교 콘텐츠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보문사 홈페이지는 보문복지관 소개, 주지스님 법문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문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네티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석주스님과 만봉스님의 작품 54점도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보문사가 사이버 공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버 포교에 나선 것은 주지 송암스님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다. 15년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포교에 매진했던 송암스님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소개되기 전 이미 미국에서 인터넷을 접했고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보문사에 머물면서 오프라인 불사와 병행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아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동분서주 불교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송암스님은 앞으로 사암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아산불교대학을 모태로 사이버 아산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사암연합회 활동 및 합창단 공연 등 아산지역 불교소식도 사이버 공간을 마련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보문사는 사찰 종무 전산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5년 사찰 종무관리프로그램인 금강장사를 구입해 신도관리에서 재무관리까지 사찰의 전반적인 종무를 전산화했다. 정보소양이 부족한 노 보살님들이 많아 아직까지 종무소에 신도카드를 비치하고 있지만 이 모든 자료가 이미 DB화 되어 있다. 김두식 기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샌프란시스코 선센터

(http://www.sfzc.com/index.html)



수행 이상의 대사회활동으로 운영
뉴스 통해 이슈, 수행자 탐방 등 전해

샌프란시스코 선센터(http://www.sfzc.com/index.html)는 1962년 스즈키 로시와 그 제자에 의해 설립된 곳이다. 이 곳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일본계 불교단체의 하나이다.

선센터에서는 참선을 통한 수행만을 명제로 삼지 않는다. 선센터는 대사회 활동으로 노숙자를 위한 음식 나누기, 홈리스 아이들과 가족과의 활동, 재소자와 함께하는 명상 트레이닝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웹에서는 사이트맵, 손내밀기 프로그램, 다르마의 색깔, 관련 사이트 링크, 윤리학 진술, 도서, 특별 이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상가뉴스를 통해 다양한 불교계 이슈와 선센터 소식, 참선 수행자 탐방 등을 전한다.

캘린더를 통해 선센터의 행사일정을 세세히 둘러볼 수도 있다. 선센터와 녹색 농장 등 선센터가 운영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기 쉽도록 연락처와 참가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게시판 엿보기

⊙ 수많은 약속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이왕이면 아름다운 약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진취적이고 밝은 약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은 아마도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탤런트를 보람되게 활용하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정근, 다음카페 인연

⊙ 이것 저것에 이끌리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바른 길을 가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끝없는 방랑길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더는 헤매지 말고 '참 나'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바라며 부처님 품안에서 뜻하는 바 이루소서.

혜진(보리), 다음카페 연꽃향기마을

⊙ 만일 우리가 이 '참 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윤회(輪廻)와 업(業)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 날 수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 최후의 유훈에 따라 게으름없이 정진 합시다.

맑은영혼, 불락사 게시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맑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당신에게 행운을... 발명특허 출원제품



소원성취 행운의 부적양말

본제품은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자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취급품목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게
▶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현함 ◀
www.bujukshop.com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을...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천룡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아잔타 석굴 전경 (533×168cm).

인도그림기행 7

하늘이 숨겨 놓은 불법수호의 터

그림·글 이호신

붓다를 숭배한 혼백의 전당

아잔타 석굴사원에서

시공 초월한 구성과 채색에 숙연해지고
미완의 끌과 정 자국마다 서원의 체취

때는 1819년, 영국 장교 존 스미스(John smith)가 동굴속으로 사라진 호랑이를 쫓다 찾아낸 곳이 아잔타 석굴사원이라고 한다.

기원전 2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7세기에 조성된 세계 최고의 불교 유적지 '아잔타석굴'은 9세기 이후 불교쇠퇴에 따라 광대한 밀림지대로 변했고 교통도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세상 빛을 보게된 사건이다. 이는 마치 우리 석굴암이 1200년간의 숨결을 지닌 채 묻혀 있다가 일제 때 한 일본인(집배원)에 의해 발견된 사실과도 오버랩된다.

역사의 침묵속에 묻혀 있지 않았다면 아잔타는 힌두교의 거침없는 여세로, 석굴암은 조선의 폐불정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경주박물관 뜰에 수없이 목이 잘린 불상을 보노라면 실로 만감이 교차한다. 하지만 영혼을 다한 진실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람이나 유물도 때론 침묵의 시간이 더 중대하다는 걸 깨닫는다.

요즈음 표현대로 아잔타는 30개 석굴의 다양성이 소프트웨어라면 석굴이 위치한 천혜의 조건은 하드웨어로 빛나고 있다. 천만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자연지리적 요소는 하늘이 숨겨 놓은 터에 불타를 숭상한 영혼들이 불을 밝혀 찾아낸 난공불락의 요새요, 불법수호의 전당이자 수행의 전진기지로 삼은 곳이다.

지평선 같은 산 능선 아래 침식단애(侵蝕斷崖)로 형성된 석굴은 산을 등지고 물에 임한(背山臨水) 풍수의 전형으로 탁 트인 시야속에서 굽이치는 물길을 바라본다. 그 등허리 아래 말굽처럼 휘어 띠를 이룬 검은 석굴의 장관이라니! 이 아잔타의 운명은 불법을 만나 저물지 않는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제 매표소로 내려가 1굴부터 살펴보는 설렘속에 길을 오르는데 방학을 이용한 한국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띄니 반갑기 그지없다.

석굴은 차이트야(chaitya)와 비하라(vihara)로 불리는 예배공간과 수행공간으로 나뉘는데 9, 10, 19, 26, 29번 석굴이 전자요, 나머지는 후자에 속한다. 한편 1번에서 26번까지는 완성되었지만 나머지는 석굴을 조성하다만 흔적을 보여주는 미완의 석굴이다.

먼저 제1굴의 생생한 벽화를 만나는 순간, 한송이 연꽃을 쥔 연화수보살(蓮花手菩薩) 앞에서 벌써 발걸음이 굳어짐을 어쩌랴.

옛 고구려의 땅 집안(集安)에서 생생한 고구려벽화를 함께 보고 눈물 흘리던 동료의 심금이 불현듯 떠오른다.

저 현란한 구성과 자연채색은 누구로부터 어디서 구해진 걸까. 미술학도는 시공을 초월해 옛 장인들의 혼백에 숙연해지고, 이름과 명예를 남긴다는 것조차 신앙의 귀의 앞에는 허영임을. 선현들의 붓길과 정 자국 앞에 자꾸만 떨려 오는 것이다.

자연암반을 뚫고 들어가 천장부터 깎아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석굴은 한 천재 설계자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만다라 사원이다. 또 지속해서 불법의 전당을 위해 누대로 이어간 헌신의 생애를 어찌 필설로 형용하랴.

제2굴 감실 입구에 그려진 과거천불(過去千佛)은 낮설지 않기로 데칸고원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돈황, 운강, 용문석굴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친연성이 서려있다.

기원전, 무불상시대에 조성된 9, 10번 석굴은 중앙에 거대한 돔(dome)을 연화대에 안치하였는데 종을 엎어놓은 공간 창출이 숭엄한 기운을 자아낸다. 그리고 또 다시 이어지는 거대한 불상과 17번 굴의 벽화는 탁발하는 불타와 그 가족 이야기, 과거 7불에 미래불을 더한 팔불도(八佛圖)로 장엄하였다. 기원 후 500년경에 조성되었다는 제19굴은 아잔타 석굴 중 가장 아름다운 조각과 장식으로 유명한데 화려하고 섬세하게 꽃이 핀 신라 말의 양식화처럼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감이 없지 않다. 이는 극도로 세련된 기능이 때론 초기 양식의 기운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을 빚기도 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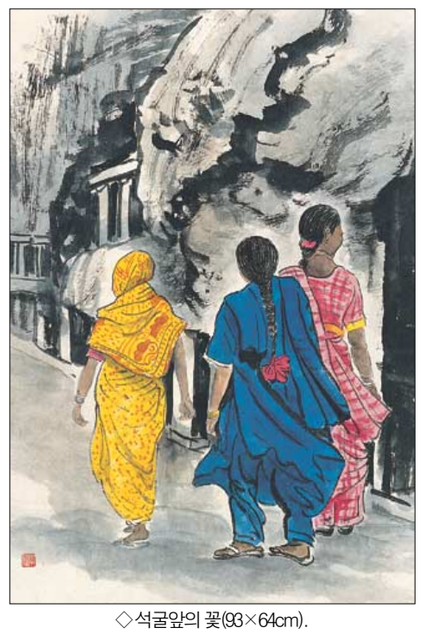
한편 완성된 마지막 석굴로 남은 제26국은 가장 후대의 것으로 아잔타 석굴조성의 운명을 예시하듯, 거대한 붓다의 열반상을 조각해 놓았다.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나무 아래서 슬퍼하는 아난존자의 슬픔이 석굴을 감싸고도는데 중심에 위치한 웅대한 스투파는 부처님 형상을 새긴 새로운 양식으로 돋보인다.

뜨거운 백일하에 긴장과 충격이 감도는 석굴순례는 서늘한 석굴로 들어설 때마다 한편으로 안식과 참배의 마음이 잦아들게 한다. 붓타를 숭배하는 이들이 그 옛날 등불을 밝히고 삶의 이치와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던 혼백들이 곳곳에 살아 숨쉬고, 미완의 끌과 정 자국의 끈끈한 체취에는 지속되어야 할 서원의 의지가 서려 있는 듯하다.

석굴 순례객들은 외국인도 눈에 띄지만 인도인들의 발길이 자국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주는 것 같다. 고유 의상이 빛나는 현란한 사리 물결은 과거의 유적과 오늘의 삶을 동시에 투영하는 풍경인데 석굴 앞 여인들은 그대로 '꽃'이 되어 거닌다.

불전(佛前)에 살아 움직이는 꽃이 되어 붓다와 중생이 예토(穢土)에서 다시 만난다.

lhs1957@lycos.co.kr



◇석굴앞의 꽃(93×64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30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즐어들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30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 처럼 사용하시고 7일만 사용하면 입냄새는 없어지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되어요.
1set면 1년정도 사용하며 온 가족의 치아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생약초 치약입니다. 본 제품은 사용해 보신 분들에 의해 그 진가가 더욱 증명되고 있습니다.

※ 1set가격은 60,000원입니다.

문의전화는 (02)722-2890 입니다.